

아동의 피해-가해 중첩 현상 분석 및 개입 방안 연구

G O O D N E I G H B O R S

자료발행등록번호

25-사07-027

아동의 피해·가해 중첩 현상 분석 및 개입 방안 연구

책임연구원 : 김균희(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공수연(한국복지사이버대학교 휴먼케어학과 교수)

김미경(굿네이버스 아동권리연구소 과장)



〈목 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 범위 및 구성	5
3. 연구 추진 일정	7
II. 아동의 피해-가해 중첩 현황 및 이론	9
1. 피해-가해 중첩 개념 및 현황	11
2. 피해-가해 중첩 관련 이론	18
3. 소결	30
III. 아동의 범죄 예방과 지원을 위한 정책 및 민간단체 활동	33
1. 아동의 범죄 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정책	35
2. 아동의 범죄 가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정책	43
3. 아동의 범죄 예방과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 활동	56
4. 소결	63
IV. 아동의 피해-가해 중첩 현상에 대한 사례 연구	67
1. 사례연구 개요	69
2. 사례연구 결과	80
3. 참여자별 피해-가해 전이 맥락	101
4. 소결	108
V. 아동의 피해-가해 중첩에 대한 개입 방안	117
1. 아동 피해-가해 중첩에 대한 정책적 개입 방안	119
2. 굿네이버스에서의 아동 피해-가해 중첩에 대한 실행 방안	135

〈표 목 차〉

표 I-1. 연구 구성	6
표 I-2. 연구 추진 일정	7
표 II-1. 아동의 피해-가해 경험 유형 (2023)	16
표 II-2. 아동의 특성에 따른 피해-가해 중첩률 (2023)	17
표 II-3. Engström(2021)의 일상활동의 8가지 범주	25
표 III-1. 범죄피해자 보호법 주요 내용	36
표 III-2. 아동·청소년의 범죄 피해 보호 및 지원 법	37
표 III-3. 제4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2022~2026) 중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40
표 III-4. 범죄 피해 지원 신청기관	42
표 III-5. 소년법 주요 내용	44
표 III-6. 소년범죄 종합대책 주요 내용	46
표 III-7. 소년보호사건 단계별 주요 제도 및 프로그램	49
표 III-8.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현황(2025)	50
표 III-9. 소년보호관찰 대상 및 기간	51
표 III-10. 소년원 현황 및 교육과정	52
표 III-11. 보호소년 수용 현황	53
표 III-12.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주요 업무	54
표 III-13. 소년보호사범 사회복귀지원	55
표 III-14. 굿네이버스 사회적약자통합지원센터 주요 사업	56
표 IV-1. 연구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	74
표 IV-2. 면담 회차별 주요 면담 내용	75
표 IV-3. 면접 절차	76
표 IV-4. 아동 피해-가해 중첩 현상에 대한 사례분석 결과	81
표 IV-5. 보호처분 아동의 피해-가해 중첩 현상 분석틀	110
표 V-1. 아동 피해-가해 중첩 현상에 대한 정책적 개입 방안	120

〈그림 목 차〉

그림 II-1. 피해-가해 중첩	11
그림 II-2. 아동의 피해-가해 경험 유형 및 중첩률 (2023)	16
그림 II-3. 아동의 특성별 피해-가해 경험 중첩률 (2023)	18
그림 III-1. 제4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2022~2026) 비전과 추진 과제	39
그림 III-2.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의 종류	41
그림 III-3. 소년보호사건 처리 절차	48
그림 IV-1. 연구참여자 협조 공문	73
그림 IV-2. 아동의 피해-가해 전이과정 5단계 분석절차	77
그림 IV-3. 청소년 피해-가해 전이 유형	86
그림 IV-4. 청소년들의 시설 경험을 구성하는 처분-보호-관계의 삼중구조	92
그림 IV-5. 보호처분 아동이 직접 그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캠페인	94
그림 IV-6. 보호처분 청소년이 지각한 자아	99
그림 IV-7. 청소년들의 피해-가해 전이에서의 의미 세계 변화	101
그림 IV-8. 보호처분 청소년의 피해-가해 중첩 현상 요인별 핵심 주제	109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구성
3. 연구 추진 일정

GOOD NEIGHBORS

I .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아동이 경험하는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양상 또한 복합적이고 다변화되고 있다. 아동의 피해는 가정 내의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국한되지 않으며, 학교 폭력, 집단따돌림, 지역사회 범죄 노출, 나아가 온라인 환경에서의 괴롭힘 및 성적 착취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온·오프라인 공간을 넘나들며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 경험은 아동의 신체적·정서적·사회적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삶 전반에 걸쳐 장기적인 부정적 결과와 회복의 어려움을 초래한다.

아동의 피해와 가해 경험을 논할 때 유의해야 할 중요한 측면은 아동이 단순히 피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해 행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아동이 경험한 반복적 피해가 내면화되거나 외현화되면서 피해와 가해가 긴밀히 연결되는 ‘피해-가해 중첩 양상(victim-offender overlap)’이 나타난다. 실제로 Beckley 외(2012)¹⁾는 1958년부터 2011년 사이 진행된 37개 연구 중 31개 연구에서 피해-가해 중첩 현상이 나타남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분석 방법, 시대적 배경, 문화적 맥락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Jennings 외(2012)²⁾, Miley 외(2020)³⁾ 역시 피해를 경험한 아동·청소년은 가해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가해 중첩이 개인의 심리·행동적 특성, 폭력적 환경, 사회적 요인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아동의 피해와 가해를 분리된 현상이 아닌 연속선상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Beckley, A. L., Caspi, A., Arseneault, L., Barnes, J. C., Fisher, H. L., Harrington, H., ... & Moffitt, T. E. (2018). The developmental nature of the victim-offender overlap. *Journal of Developmental and Life-Course Criminology*, 4, 24-49.

2) Jennings, W. G., Higgins, G. E., Tewksbury, R., Gover, A. R., & Piquero, A. R. (2010). A longitudinal assessment of the victim-offender overlap.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5(12), 2147-2174.

3) Miley, L. N., Fox, B., Muniz, C. N., Perkins, R., & DeLisi, M. (2020). Does childhood victimization predict specific adolescent offending? An analysis of generality versus specificity in the victim-offender overlap. *Child Abuse & Neglect*, 101, 104328.

아동기 피해-가해 중첩에 관한 실증 연구들은 대규모 종단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되었다. 대표적으로 Miley 외(2020)⁴⁾는 플로리다주 고위험 청소년을 분석하여 신체적 학대 경험은 이후의 폭력 가해 가능성을 1.55배, 성적 학대 피해 경험은 성범죄를 할 가능성을 3.58배, 가정 내 약물 사용 목적은 약물 사용 가능성을 1.66배 높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Jennings 외(2010)⁵⁾는 청소년 대상 종단 데이터를 활용하여 신체적 폭력 피해자와 범죄 가해자 간의 중첩이 상당하며, 특히 낮은 자기 통제력이 범죄 피해와 비행(delinquency) 궤적을 예측하는 주요 위험 요인임을 밝혔다. Mulford 외(2018)⁶⁾는 중범죄를 저지른 남자 청소년(15~24세)의 7년 동안 피해 경험과 범죄 가해에 대한 이중경로 분석을 하였는데, 피해와 가해 간 관련성이 높으며, 피해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면서도 가해 행동을 줄이는 청소년은 많으나 피해 경험 없이 범죄를 지속하는 경우는 제한적임을 강조하였다. Zimmerman 외(2017)⁷⁾는 시카고 청소년 데이터를 통해 누구로부터 입은 피해인지에 따라 이후 가해 행동이 달라짐을 밝혔는데, 가족, 또래, 갱단(gang)에 의한 피해는 이후 범죄 가해 위험을 증가시키지만, 낯선 사람이나 지인에 의한 피해 경험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특히 또래에게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높은 수준의 폭력 가해 행동으로 이어졌고, 다음으로 갱단, 가족 순으로 나타났다(Zimmerman et al., 2017).⁸⁾

위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아동기 피해 경험은 이후 가해 행동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피해 유형·가해자와의 관계·개인의 심리적·사회적 특성에 따라 피해 경험이 가해 행동으로의 전이되는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아동의 피해와 가해가 단절된 사건이 아니라,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과정임을 시사한다.

기존의 연구는 대규모 종단조사 자료를 활용해 피해와 가해의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밝히는 데 기여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피해-가해 중첩 현상이 발생하는 구체적인 맥락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미흡하다. 둘째, 가정, 또래, 지역사회, 온라인 환경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중첩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기보다 일부 요인에 집중한 경향이 있다. 셋째, 다수의 연구가 국외 자료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국내 연구 역시 특정 패널 조사 데이터에 국한되어 우리나라 아동이 현실에서 경험하는

4) 앞의 논문

5) Jennings, W. G., Higgins, G. E., Tewksbury, R., Gover, A. R., & Piquero, A. R. (2010). A longitudinal assessment of the victim-offender overlap.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5*(12), 2147-2174.

6) Mulford, C. F., Blachman-Demner, D. R., Pitzer, L., Schubert, C. A., Piquero, A. R., & Mulvey, E. P. (2018). Victim offender overlap: Dual trajectory examination of victimization and offending among young felony offenders over seven years. *Victims & Offenders, 13*(1), 1-27.

7) Zimmerman, G. M., Farrell, C., & Posick, C. (2017). Does the strength of the victim-offender overlap depen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ictim and perpetrator? *Journal of Criminal Justice, 48*, 21-29.

8) 앞의 논문

피해-가해 전이의 구체적 사례와 맥락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우리나라 아동을 대상으로 피해가 가해로 전이되는 맥락적 과정과 그 이면에 담긴 의미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호처분을 받은 만 14-18세 아동⁹⁾을 대상으로 본질적 사례 연구를 실시하여, 피해 경험이 외현화되어 가해 행동으로 전이되는 과정을 심층적으로 탐색함으로써 아동이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인식하고 서사화하는지 확인하고, 피해가 외현화되는 과정과 내면적 동기를 규명함으로써 정책적·실천적 개입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아동을 단순한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 이분화하는 기존의 단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복합적 환경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주체로 아동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제안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와 가치가 있다.

2. 연구 범위 및 구성

본 연구는 아동의 피해-가해 중첩 현상(victim-offender overlap)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바탕으로 이를 예방하고 효과적인 정책적·실천적 개입 방안 도출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주요 연구 내용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외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피해-가해 중첩의 개념, 및 이론, 관련 정책 및 민간단체 실천 사례를 확인하였다. 또한 굿네이버스 「2023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아동의 피해-가해 중첩 현황을 파악하였다.

둘째, 1-6호 보호처분을 받은 만 14-18세 아동 12명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를 해당 집단으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① 선행연구(Miley et al., 2020;¹⁰⁾ Mulford et al., 2018;¹¹⁾ Zimmerman et al., 2017¹²⁾)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보호처분 아동은 과거에 누적된 피해 경험이 있

9)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14-18세이며, 본 보고서에서는 아동으로 통칭한다. 18세는 아동복지법상의 아동 연령(만 18세 미만)을 웃돌나, 이들이 고등학교 재학 연령에 해당한다는 점, 소년법상 소년보호사건 대상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무엇보다 본 연구의 목적이 아동기 피해 경험이 현재 가해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전이 과정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데 있으므로, 생애사적 연속성을 반영하고자 함이다. 나아가 현재의 법적 지위를 넘어 이들에 대한 복지적인 관점과 아동 권리 측면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기 위함이다.

10) Miley, L. N., Fox, B., Muniz, C. N., Perkins, R., & DeLisi, M. (2020). Does childhood victimization predict specific adolescent offending? An analysis of generality versus specificity in the victim-offender overlap. *Child Abuse & Neglect, 101*, 104328.

11) Mulford, C. F., Blachman-Demner, D. R., Pitzer, L., Schubert, C. A., Piquero, A. R., & Mulvey, E. P. (2018). Victim offender overlap: Dual trajectory examination of victimization and offending among young felony offenders over seven years. *Victims & Offenders, 13*(1), 1-27.

12) Zimmerman, G. M., Farrell, C., & Posick, C. (2017). Does the strength of the victim-offender overlap

을 가능성이 높아 피해-가해 중첩 현상을 탐색하기에 적합하다.

- ② 보호처분은 1-10호까지로 구성되는데, 1-6호 보호처분은 아동이 사회 내에서 생활을 유지하거나 비교적 낮은 강도의 시설에서 생활하며, 행동 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경미하거나 중간 수준의 보호처분으로, 7호 이상의 의료보호시설 또는 소년원 송치와 비교할 때 법적·물리적 강제성이 낮다. 따라서 1-6호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을 연구참여자로 정하였다.
- ③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사건 대상은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범죄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인 만 14-18세로 한정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 중 본질적 사례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이는 특정 사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생생한 묘사를 통해 사례가 지닌 독특함, 특별한 상황, 맥락 및 의미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적합하다. 이를 통해, 아동의 피해-가해 전이 과정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각 사례의 사회적, 심리적 맥락과 아동의 내적 경험을 총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하며, 아동의 가해 행동 예방과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 요인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넷째, 도출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동의 피해-가해 중첩 현상 예방을 위한 정책적·실천적 개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또한 민간단체인 굿네이버스에서의 실천·적용 가능한 사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depen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ictim and perpetrator? *Journal of Criminal Justice*, 48, 21-29.

표 1-1. 연구 구성

구분	내용
<p>문헌 검토 및 2차 자료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가해 중첩 개념, 현황 및 이론 • 굿네이버스 「2023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4차년도 자료를 통한 아동의 피해-가해 경험 중첩 현상 분석 • 아동의 범죄 예방과 지원을 위한 정책 및 민간단체 활동
<p>사례 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대상 : 1-6호 보호처분을 받은 만14-18세 아동 12명 • 연구방법 : 본질적 사례연구 • 연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가해 행동의 발생 맥락과 의미 분석 - 반복된 피해 경험이 가해 행동으로 이어지는 전이 과정 분석 - 아동의 가해 행동 예방 및 개입을 위한 보호 요인 탐색
<p>피해-가해 중첩 현상 예방을 위한 개입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가해 중첩을 위한 정책적 개입 방안 도출 • 굿네이버스에서의 실천 방안 도출

3. 연구 추진 일정

본 연구의 추진 일정은 아래와 같다.

표 1-2. 연구 추진 일정

세부내용	25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IRB 접수 및 선행연구 고찰							
연구대상자 모집 및 심층 인터뷰 진행 (IRB 승인 후 진행)							
자료 분석							
연구보고서 작성 및 발간							



아동의 피해-가해 중첩 현황 및 이론

1. 피해-가해 중첩 개념 및 현황
2. 피해-가해 중첩 관련 이론
3. 소결

G O O D N E I G H B O R S



II. 아동의 피해-가해 중첩 현황 및 이론

1. 피해-가해 중첩 개념 및 현황

1) 피해-가해 중첩 개념

피해-가해 중첩(Victim-Offender Overlap)은 범죄학 및 심리학에서 주로 사용된 개념으로, 범죄의 가해자가 동시에 피해자가 되거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그림 II-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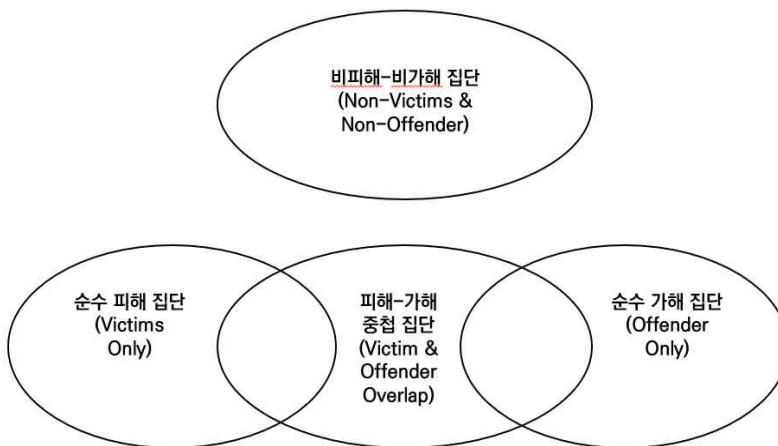


그림 II-1. 피해-가해 중첩

출처 : Jennings et al. (2012).¹³⁾

13) Jennings, W. G., Piquero, A. R., & Reingle, J. M. (2012). On the overlap between victimization and offending: A review of the literature.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7*(1), 16-26.

Hindelang(1976)¹⁴⁾이 대규모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유사성을 일찍이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학술적 논의는 90년대 초반까지 큰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그동안의 연구는 가해의 양상과 예측 요인(가해자 중심) 혹은 피해 양상과 예측 요인(피해자 중심)에 초점을 맞추어 이분법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연령, 성별, 인종, 사회적 지위, 지역사회 불리함, 개인차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와 가해 간의 밀접한 상관성이 지속적으로 확인됨(Jennings et al., 2012)¹⁵⁾에 따라 연구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 발달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가정, 학교, 지역사회, 온라인 환경 등 다양한 환경에서 경험하는 피해가 범죄 가해 행동과 서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권순화 외, 2021;¹⁶⁾ 장현석, 2017;¹⁷⁾ Chan, 2019;¹⁸⁾ Miley et al., 2020;¹⁹⁾ Mulford et al., 2018).²⁰⁾ 따라서 아동기에 나타나는 피해-가해 중첩 현상의 구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 것은 범죄 예방 및 개입을 위해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 선행연구에서의 피해-가해 중첩 현황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피해-가해 중첩(victim-offender overlap) 비율은 연구대상, 측정 기간과 방식, 고위험 여부에 따라 상당한 편차(6~36%)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된다. 일반 아동·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하거나 횡단 연구에서는 비교적 낮게 보고 되는 반면, 고위험 집단을 대상으로 하거나 종단 연구에서는 그 비율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표적으로 Chan(2019)²¹⁾은 홍콩의 13~18세 중·고등학생 892명을 대상으로 최근

-
- 14) Hindelang M.J. (1976). *Criminal Victimization in Eight American Cities*. Cambridge, MA: Ballinger
- 15) Jennings, W. G., Piquero, A. R., & Reingle, J. M. (2012). On the overlap between victimization and offending: A review of the literature.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7*(1), 16-26.
- 16) 권순화, 정채연, 이현수, 조은경(2021). 사이버 공간에 의한 청소년의 피해-가해 중첩(overlapping) 행동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28*(11), 29-57.
- 17) 장현석(2017).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 학교폭력(왕따) 피해에 미치는 영향: 종단자료를 이용한 피해-가해 중첩 맥락의 이해. *한국범죄심리연구, 13*(1), 227-254.
- 18) Chan, H. C. O. (2019). Exploring the overlap between victimization and offending among Hong Kong adolescent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61*, 72-80.
- 19) Miley, L. N., Fox, B., Muniz, C. N., Perkins, R., & DeLisi, M. (2020). Does childhood victimization predict specific adolescent offending? An analysis of generality versus specificity in the victim-offender overlap. *Child Abuse & Neglect, 101*, 104328.
- 20) Mulford, C. F., Blachman-Demner, D. R., Pitzer, L., Schubert, C. A., Piquero, A. R., & Mulvey, E. P. (2018). Victim offender overlap: Dual trajectory examination of victimization and offending among young felony offenders over seven years. *Victims & Offenders, 13*(1), 1-27.
- 21) Chan, H. C. O. (2019). Exploring the overlap between victimization and offending among Hong Kong adolescent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61*, 72-80.

12개월 피해-가해 중첩 현상을 분석한 결과, 중첩 비율은 6.6%인 것으로 나타났다(피해만 3.3%, 가해만 26.9%, 무경험 63.2%).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 범죄에서의 피해-가해 중첩률(5.5%)이 비폭력 범죄(1.9%)보다 높았고,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9.4%)이 여학생(2.7%)보다 피해-가해 중첩률이 높았다(Chan, 2019).²²⁾ 이 연구에서는 피해 경험과 가해 경험이 상호 간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비행 또래와의 교류가 피해-가해 중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 확인되었다(Chan, 2019).²³⁾

한편, 장기 추적 자료를 활용한 연구에서는 피해-가해 중첩 현상이 보다 일반적인 현상이 드러난다. 영국의 대표적인 출생코호트 연구인 Environmental Risk(E-Risk) Study는 1994년-1995년에 태어난 2,232명 쌍둥이를 18세까지 추적 조사한 결과, 18세 시점의 피해-가해 중첩률은 전체의 29%로 피해만 경험한 집단(16%), 가해만 경험한 집단(20%)의 비율보다 많았다(Beckley et al., 2017).²⁴⁾ 또한 피해 경험과 가해 행동 간의 유의한 상관성이 있어, 피해 경험이 많은 청소년일수록 가해 행동에 가담할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Beckley et al., 2017).²⁵⁾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 청소년에게서도 유사하게 발견된다. 박여주(2022)²⁶⁾는 한국 청소년패널조사 1, 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범죄 유형을 분석한 결과, 전체 표본 중 반복중첩 집단의 비율이 36.5%에 달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무경험 집단(20.5%)', '반복피해 집단(25.8%)', '반복가해 집단(17.2%)'보다 높은 수준으로(박여주, 2022),²⁷⁾ 우리나라 청소년에게 피해-가해 중첩 현상은 예외적인 현상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험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반복중첩의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한 요인은 과거의 피해 경험, 과거의 가해 경험, 컴퓨터 사용 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박여주, 2022).²⁸⁾

폭력 노출의 장기 효과를 살펴본 종단 연구를 통해 피해-가해 중첩이 형성되는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Mulford 외(2018)²⁹⁾는 미국 Pathways to Desistance Study 자료를 활용하여, 중범죄로 사법체계에 진입한 남성 청소년의 15세부터 24세까지 폭력 노출과 범죄 가해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폭력 노출은 단일한 양상이 아니라

22) 앞의 논문

23) 앞의 논문

24) Beckley, A. L., Caspi, A., Arseneault, L., Barnes, J. C., Fisher, H. L., Harrington, H., ... & Moffitt, T. E. (2018). The developmental nature of the victim-offender overlap. *Journal of Developmental and Life-Course Criminology*, 4(1), 24-49.

25) 앞의 논문

26) 박여주(2022). 청소년의 반복피해와 반복가해의 중첩성에 관한 연구. *한국공인행정학회보*, 31(3), 193-226.

27) 앞의 논문

28) 앞의 논문

29) Mulford, C. F., Blachman-Demner, D. R., Pitzer, L., Schubert, C. A., Piquero, A. R., & Mulvey, E. P. (2018). Victim offender overlap: Dual trajectory examination of victimization and offending among young felony offenders over seven years. *Victims & Offenders*, 13(1), 1-27.

시간에 따라 서로 다른 궤적을 보였으며, 특히 중·고 수준의 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집단일수록 범죄 가해 행동이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았다(Mulford et al., 2018).³⁰⁾ 주목할 점은 피해나 폭력 노출 경험 없이 범죄 가해만 지속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었다는 점으로(Mulford et al., 2018),³¹⁾ 이는 범죄 피해 경험이 범죄 가해의 지속과 심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고위험 집단을 대상으로 한 국내 연구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김정남과 박미랑(2022)³²⁾은 가정 밖 청소년의 학대 피해 경험이 이후 범죄 가해, 피해, 피해-가해 중첩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체의 61.3%가 가정 밖에서 범죄 가해 또는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전체의 23.1%는 피해와 가해를 동시에 경험한 중첩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김정남, 박미랑, 2022).³³⁾ 또한 가정 밖 청소년의 74.4%가 신체적·정서적 학대 또는 방임을 경험하였으며, 이러한 학대 피해 경험은 가출 이후 범죄 피해 및 피해-가해 중첩 집단에 속할 가능성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남, 박미랑, 2022).³⁴⁾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아동의 피해-가해 중첩은 개별적인 현상이 아니라 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피해 및 위험 경험 속에서 형성되는 구조적 현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 아동 집단에서는 중첩률이 비교적 낮으나, 종단 연구나 고위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피해-가해 중첩이 약 1/4~1/3 수준까지 나타난다. 국내외 연구들은 과거의 피해 경험이 이후의 가해 행동과 연관되어 있음을 일관되게 보여주는데, 폭력 목적 또는 직접 피해, 학대, 방임과 같은 아동기 피해 경험이 범죄 피해와 가해를 증폭시키는 핵심 요인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아동의 가해 행동을 개인의 선택이나 일탈로만 해석하는 접근에는 한계가 있으며, 아동기 피해 경험을 조기에 개입하지 않을 경우 피해-가해 중첩이 반복되고 고착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라 하겠다.

3)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자료를 통해 살펴본 피해-가해 중첩 현황

본 장에서는 굿네이버스 「2023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아동의 피해-가해 중첩 실태를 살펴보았다. 해당 자료는 초등학교 4, 6학년 및 중학교 2

30) 앞의 논문

31) 앞의 논문

32) 김정남, 박미랑(2021). 가정 밖 청소년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연구: 취약성과 범죄피해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23(1), 53-84.

33) 앞의 논문

34) 앞의 논문

학년을 대상으로 권리보장 환경, 권리경험, 발달결과를 격년으로 측정하는 전국 단위 자료이다(이봉주 외, 2024).³⁵⁾

굿네이버스 「2023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아동의 피해-가해 경험을 분석한 결과, ‘피해-가해 무경험’, ‘피해만 경험’, ‘가해만 경험’, ‘피해-가해 중첩’의 네 집단으로 구분되었다(표 II-1 참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만 경험(45.7%)한 아동이 전체의 절반 가량에 달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온라인 공간에 이르기까지 일상적인 생활환경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 폭력, 괴롭힘 등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특히 ‘피해-가해 무경험(24.1%)’보다 피해를 경험한 집단의 비율이 높다는 점은 폭력이 특정한 소수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발달 과정에서 직면하는 보편적인 위협 요소임을 보여준다.

본 분석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지점은 가해 경험이 있는 아동의 분포 특성이다. 가해만 경험한 집단은 1.5%에 불과한 반면, 피해-가해를 동시에 경험한 중첩 집단은 28.6%에 달했다. 본 결과는 아동 약 10명 중 3명 정도가 단순한 피해자나 가해자가 아니라 두 경험이 복합적으로 얽힌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욱이 가해 행동을 하는 집단 중 약 95%가 과거 혹은 현재 폭력의 피해 당사자라는 점은, 가해 행동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피해 경험’에 의해 유발된 결과임을 시사한다. 즉, 피해로 인한 심리적 상처와 내면화 문제, 왜곡된 대처 방식 등이 또 다른 가해 행동으로 표출되는 ‘폭력의 순환 구조’가 아동의 대인관계 및 상호작용 속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가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또래 괴롭힘에서의 중첩률은 26.3%로 전체 중첩률(28.6%)과 유사한 수준을 보인 반면, 비행 경험에서의 중첩률은 8.3%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피해-가해 중첩 현상이 주로 또래 관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가정·학교·지역사회·온라인 환경 등 다양한 환경에서 축적된 피해 경험이 학교 내 신체 및 언어 폭력, 온라인상 괴롭힘 등 또래를 향한 공격적 행동으로 전이되는 양상을 띠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 경험이 또래를 괴롭히는 가해 행동으로 전이되고, 고착화되지 않도록 아동의 심리적 회복을 돕고, 건강한 대인관계 형성 및 의사소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개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5) 이봉주, 임선영 (2024). 2023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굿네이버스.

표 II-1. 아동의 피해-가해 경험 유형 (2023)

구분		가해 경험			가해 경험 유형			
					도래 괴롭힘 경험		비행 경험	
		전체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피해 경험	전체	8,908 (100.0)	6,219 (69.8)	2,689 (30.2)	6,485 (72.8)	2,423 (27.2)	8,107 (91.0)	801 (9.0)
	없음	2,284 (25.6)	2,147 (24.1)	137 (1.5)	2,201 (24.7)	83 (0.9)	2,220 (24.9)	64 (0.7)
	있음	6,624 (74.4)	4,072 (45.7)	2,552 (28.6)	4,284 (48.1)	2,340 (26.3)	5,887 (66.1)	737 (8.3)

자료 : 굿네이버스 「2023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주1) 피해 경험은 최근 1년간의 가정에서의 학대 및 방임, 성학대, 가정·학교·지역사회 내에서의 체벌 경험, 온오프라인에서의 도래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포함함.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음.

- 가정에서의 학대 및 방임은 가벼운 신체학대, 중간 정도의 신체학대, 심각한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을 의미함.
- 성학대는 원치 않는 신체 접촉 등의 성적 학대 경험을 의미함.
- 도래 괴롭힘은 학교에서 도래를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별명을 부르거나 욕하고 시비를 거는 등의 행동, 인터넷(온라인)에서 누구를 괴롭히거나 놀리는 행동을 의미함.
- 가정·학교·지역사회 내에서의 체벌 경험은 부모님이나 보호자, 선생님, 학원 및 동네 등에서 성인으로부터 체벌을 받은 경험을 의미함.

2) 가해 경험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도래 괴롭힘과 비행 경험을 포함함.

- 도래 괴롭힘은 학교에서 도래를 때리거나 발로 차거나, 별명을 부르거나 욕하고 시비를 거는 등의 행동, 인터넷(온라인)에서 누구를 괴롭히거나 놀리는 행동을 의미함.
- 비행 경험은 폭력 비행, 성 비행, 재산 비행, 사이버 비행 경험을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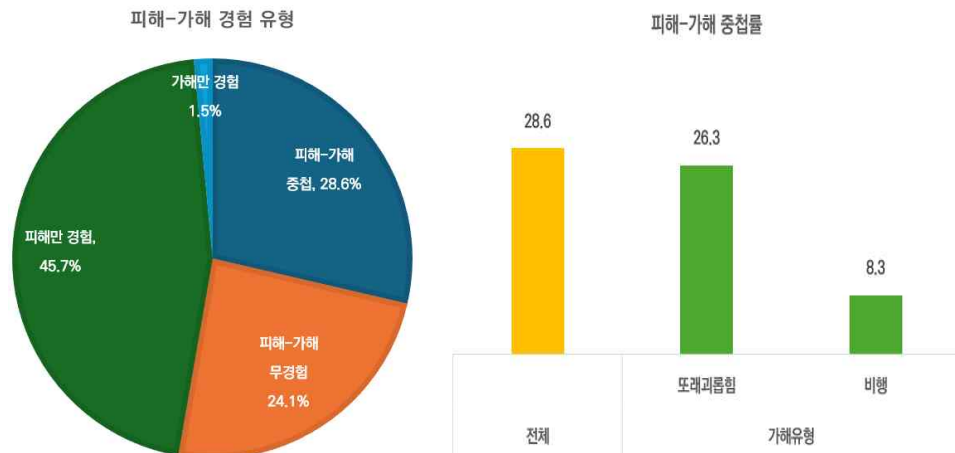


그림 II-2. 아동의 피해-가해 경험 유형 및 중첩률 (2023)

자료 : 굿네이버스 「2023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표 II-2에서는 아동의 특성에 따른 피해-가해 중첩률을 제시하였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의 피해-가해 중첩률(34.7%)은 여학생(23.0%)보다 11.7%p 높았으며, 또래 괴롭힘 중첩률, 비행 중첩률 또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의 비행 중첩률(11.1%)이 여학생(5.6%)보다 두 배 가량 높았는데, 이는 남학생의 피해 경험이 위법성이 있는 심각한 행동으로 전이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높음을 시사한다.

학년에 따라서는 초등학교 6학년의 피해-가해 중첩률이 34.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중학교 2학년(27.2%), 초등학교 4학년(23.7%) 순이었다. 또래 괴롭힘 중첩률은 초등학교 6학년이 33.1%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최근 들어 심화되는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현상과도 맞닿아 있다. 반면, 비행 중첩률은 초등학교 4학년(4.8%)에서 초등학교 6학년(8.3%), 중학교 2학년(12.0%)으로 갈수록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피해 경험이 단순한 관계 내 갈등을 넘어 위법성이 있는 심각한 행동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종합하여 굿네이버스 「2023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피해-가해 중첩 현상은 일부 특수한 사례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아동·청소년 집단 내에서 관찰되는 보편적이고 구조적인 양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남학생과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 그리고 또래 괴롭힘 영역에서 피해-가해 중첩률이 두드러진다는 결과는 초등학교 시기부터 예방 및 조기 개입의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피해 경험으로 인한 또래 괴롭힘 행동이 연령 증가와 함께 심각한 수준의 비행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확인되는 만큼, 단순한 처벌 위주보다 피해 회복과 가해 예방을 동시에 아우르는 개입이 필요하다.

표 II-2. 아동의 특성에 따른 피해-가해 중첩률 (2023)

구분	전체				또래 괴롭힘				비행				
	피해-가해 중첩	피해 만	가해 만	피해-가해 없음	피해-가해 중첩	피해 만	가해 만	피해-가해 없음	피해-가해 중첩	피해 만	가해 만	피해-가해 없음	
전체	28.6	45.7	1.5	24.1	26.3	48.1	0.9	24.7	8.3	66.1	0.7	24.9	
성별	남자	34.7	43.0	2.0	20.3	31.3	46.4	1.1	21.1	11.1	66.6	1.0	21.2
	여자	23.0	48.2	1.1	27.6	21.6	49.6	0.7	28.0	5.6	65.6	0.4	28.3
학년	초4	23.7	51.8	0.8	23.6	22.5	53.1	0.7	23.7	4.8	70.8	0.2	24.2
	초6	34.6	43.5	1.4	20.6	33.1	44.9	0.9	21.0	8.3	69.7	0.5	21.5
	중2	27.2	41.7	2.5	28.7	22.5	46.3	1.1	30.0	12.0	56.9	1.5	29.6

자료 : 굿네이버스 「2023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주1) 피해 경험은 최근 1년간의 가정에서의 학대 및 방임, 성학대, 가정·학교·지역사회 내에서의 체벌 경험, 온·오프라인에서의 또래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를 모두 포함함.

주2) 가해 경험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또래 괴롭힘과 비행 경험을 포함함.

아동의 특성별 피해-가해 중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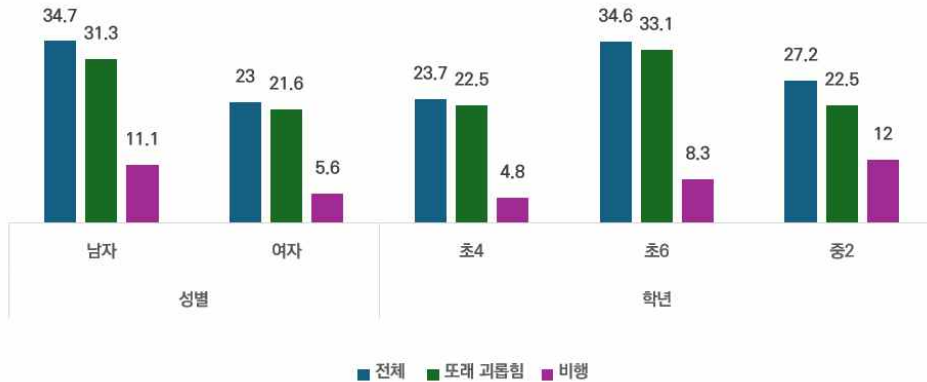


그림 II-3. 아동의 특성별 피해-가해 경험 중첩률 (2023)

자료 : 굿네이버스 「2023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2. 피해-가해 중첩 관련 이론

1) 자기통제 이론

범죄학의 대표적인 Gottfredson과 Hirschi(1990)³⁶⁾의 자기통제 이론은 낮은 자기통제 수준이 범죄나 비행의도 형성에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본다. 이 이론이 발표된 이래로 2026년 1월까지 약 19,500건 이상 인용(구글 스칼라 2026년 1월 20일 기준)되고,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범죄학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고전이론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Burt, 2020).³⁷⁾

Gottfredson과 Hirschi(1990)³⁸⁾는 자기통제 이론에서 자기통제의 형성, 안정성, 그리고 범죄행동 발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자기통제는 주로 8-10세 아동기 시절에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방법에 의해 형성되고, 인생 전반에 걸쳐 유지되며 나이가 들어서도 안정적으로 유지된다(Gottfredson & Hirschi 1990).³⁹⁾ 아동기에 형성된 자기통제 수준은 개인이 범죄 기회에 당면했을 때 일탈행동을 저지르지 혹은 자제할지 결정

36) Gottfredson, M.R.,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37) Burt, C. H. (2020). Self-control and crime: beyond Gottfredson & Hirschi's theory. *Annual review of criminology*, 3(1), 43-73.

38) Gottfredson, M.R.,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39) 앞의 책

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Nodeland, 2020).⁴⁰⁾

그렇다면 낮은 통제력을 갖는 사람은 주로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 Gottfredson과 Hirschi(1990)⁴¹⁾는 낮은 자기통제를 가진 이들은 “충동적이고(impulsive), 둔감하며(Insensitive), 신체적이며(physical, as opposed to mental), 위험을 추구하며(risk-taking), 근시안적이며(shortsighted), 비언어적인(nonverbal) 특성”을 지닌다고 설명하였다. Grasmick 외(1993)⁴²⁾는 이를 바탕으로 낮은 자기통제 척도(Low Self Control Scale: LSC)를 개발하였으며, 충동성, 간단한 과제 선호, 위험 추구, 신체활동 선호, 자기중심성, 성급한 기질(좌절에 대한 내성 부족)과 같이 6개 하위 요인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즉, 자기통제가 낮은 사람은 장기적인 결과보다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이익을 우선시하며, 타인의 고통이나 감정에 대해 둔감하고 순간적인 충동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 자기통제가 낮은 사람은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더라도 당장의 이익을 쫓게 되므로 일탈행동 또는 범죄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반대로 합리적인 개인은 비용과 이익을 고려한 후 범죄를 포기하게 된다(Gottfredson & Hirschi, 1990).⁴³⁾

이러한 이론적 논의는 실증 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검증되어 왔다. 1990년대, 2000년대 발간된 논문을 활용하여 메타분석한 연구에서는 자기통제력이 범죄 및 일탈행동의 핵심적인 요인임을 보고하고 있다. 우선, Pratt과 Cullen(2000)⁴⁴⁾은 1993년부터 1999년까지 발표된 21개 연구를 분석하여 낮은 자기통제력이 범죄 및 일탈행동을 설명하는 주요한 요인이며, 표본의 특성과 관계없이 이러한 결과가 일관되게 나타남을 밝혔다. 이들은 자기통제력 외에도 사회학습 변인(예: 비행 또래 집단, 반사회적 태도 등)이 범죄 행동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Pratt & Cullen, 2000).⁴⁵⁾ 이후 Vazsonyi 외(2017)⁴⁶⁾는 2000년부터 2010년 사이에 발표된 99개 연구를 검토하여, 낮은 자기통제력이 다양한 비행 유형과 관련이 있으며 비행 유형에 따라 상관의 강도가 다른 것을 밝혔다. 낮은 자기통제는 비행, 신체적 폭력과 가장 강한 상관을, 술·담

40) Nodeland, B. (2020). The effects of self-control on the cybercrime victim-offender overlap. *International Journal of Cybersecurity Intelligence and Cybercrime*, 3(2), 4-24.

41) Gottfredson, M.R.,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42) Grasmick, H. G., Tittle, C. R., Bursik Jr, R. J., & Arneklev, B. J. (1993). Testing the core empirical implication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1), 5-29.

43) Gottfredson, M.R.,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44) Pratt, T. C., & Cullen, F. T. (2000). The empirical statu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A meta-analysis. *Criminology*, 38, 931-964.

45) 앞의 논문

46) Vazsonyi, A. T., Mikuška, J., & Kelley, E. L. (2017). It's time: A meta-analysis on the self-control-deviance link. *Journal of criminal justice*, 48, 48-63.

배·약물 사용, 학업 및 조직 내 부정행위와는 상대적으로 약한 상관을 보였다(Vazsonyi et al., 2017).⁴⁷⁾ 또한 표본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없었던 Pratt과 Cullen(2000)⁴⁸⁾의 연구와 달리, 남성 참여자가 많거나, 고연령층, 미국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 자기보고 식 측정 연구에서는 그 관계가 다소 약화된다고 하였다(Vazsonyi et al., 2017).⁴⁹⁾ 이상의 메타분석 연구들은 낮은 자기통제력이 범죄 및 일탈행동을 예측하는 강력하고 안정적인 요인임을 시사하는 동시에, 그 영향력의 크기는 범죄 및 일탈행동의 유형이나 인구 사회학적 배경, 측정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낮은 자기통제력은 범죄 피해에도 영향을 준다(Higgins et al., 2009;⁵⁰⁾ Kwak & Kim, 2022;⁵¹⁾ Schreck, 1999).⁵²⁾ Schreck(1999)⁵³⁾은 기존의 자기통제 이론이 범죄 가해에 초점을 맞추어 왔지만, 범죄 피해와도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Schreck(1999)⁵⁴⁾은 즉각적이고, 쉽고, 확실하며, 단기적인 욕구 충족을 추구하는 낮은 자기통제력의 특성을 가진 행동들이 부산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데, 동일한 원리로 범죄 피해에 대한 취약성(Vulnerability) 역시 발생시킨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흡연, 음주, 과속과 같은 행동들은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저하시킨다는 것이다(Schreck, 1999).⁵⁵⁾ 이를 확인하기 위해 Schreck(1999)⁵⁶⁾은 1996년 애리조나 대학교에서 실시된 Tucson Youth Project(TYP) 데이터를 분석하였으며, 낮은 자기통제력이 개인의 피해(폭력, 위협 등)와 재산 피해 모두를 발생할 가능성을 유의미하게 높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미래 지향성 부족, 공감능력 결여, 좌절에 대한 내성 부족, 근면성 부족, 신체적 활동 선호, 위험 추구 성향과 같이 낮은 자기통제력의 특성이 개인을 범죄에 취약한 상태로 만들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다(Schreck, 1999).⁵⁷⁾

낮은 자기통제력이 폭력 피해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경향을 보인다.

47) 앞의 논문

48) Pratt, T. C., & Cullen, F. T. (2000). The empirical status of Gottfredson and Hirschi's general theory of crime: A meta-analysis. *Criminology*, 38, 931-964.

49) Vazsonyi, A. T., Mikuška, J., & Kelley, E. L. (2017). It's time: A meta-analysis on the self-control-deviance link. *Journal of criminal justice*, 48, 48-63.

50) Higgins, G. E., Jennings, W. G., Tewksbury, R., & Gibson, C. L. (2009). Exploring the link between low self-control and violent victimization trajectories in adolescent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6(10), 1070-1084.

51) Kwak, H., & Kim, E. K. (2022). The role of low self-control and risky lifestyles in criminal victimization: A study of adolescents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9(18), 11500.

52) Schreck, C. J. (1999). Criminal victimization and low self-control: An extension and test of a general theory of crime. *Justice Quarterly*, 16(3), 633-654.

53) 앞의 논문

54) 앞의 논문

55) 앞의 논문

56) 앞의 논문

57) 앞의 논문

Higgins 외(2009)⁵⁸⁾는 Gang Resistance Education and Training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자기통제력과 폭력 피해 궤적을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자기통제력은 대체로 안정적이고, 자기통제력 궤적이 폭력 피해 궤적과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낮은 자기통제력을 보인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폭력 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일부 연구(Kwak & Kim, 2022)⁵⁹⁾에서는 낮은 자기통제력이 범죄 피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보다 비구조화된 활동 및 시간 또는 본인의 비행 경험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도 결과적으로 개인의 자기통제력이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게 하고,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범죄의 타겟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에 동의한다(Kwak & Kim, 2022).⁶⁰⁾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자기통제력은 범죄 가해와 피해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상당히 많은 사회적 및 개인적 특성을 공유하는데(Berg & Schreck, 2022;⁶¹⁾ Gottfredson & Hirschi, 1990).⁶²⁾ 이는 가해와 피해가 별개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개인들에게 집중되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Posick, 2013).⁶³⁾ 실제로, Jennings 외(2010)⁶⁴⁾의 연구에서는 피해와 가해의 종단적 궤적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와 가해자 집단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상당 수준으로 중첩된다는 것과 낮은 자기 통제력 수준이 범죄 피해와 청소년의 비행을 모두 예측하는 주요한 요인임이 입증되었다. 흥미롭게도 낮은 자기통제력은 오프라인에서 피해-가해 중첩 현상뿐만 아니라 사이버 피해-가해 중첩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Nodeland, 2020).⁶⁵⁾ 다만 이러한 자기통제의 영향력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Flexon 외(2010)⁶⁶⁾의 연구에서는 낮은 자기통제력이 범죄 피해-가해 중첩에 미치는 영향이 남성에게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종합하면 자기통제력은 비행의 예방을 넘어, 가해와 피해의 악순환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근본적인 역량이라

58) Higgins, G. E., Jennings, W. G., Tewksbury, R., & Gibson, C. L. (2009). Exploring the link between low self-control and violent victimization trajectories in adolescent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6(10), 1070-1084.

59) Kwak, H., & Kim, E. K. (2022). The role of low self-control and risky lifestyles in criminal victimization: A study of adolescents in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9(18), 11500.

60) 앞의 논문

61) Berg, M. T., & Schreck, C. J. (2022). The meaning of the victim-offender overlap for criminological theory and crime prevention policy. *Annual Review of Criminology*, 5(1), 277-297.

62) Gottfredson, M.R.,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63) Posick, C. (2013). The overlap between offending and victimization among adolescents: Results from the second international self-report delinquency study. *Journal of Contemporary Criminal Justice*, 29(1), 106-124.

64) Jennings, W. G., Higgins, G. E., Tewksbury, R., Gover, A. R., & Piquero, A. R. (2010). A longitudinal assessment of the victim-offender overlap.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5(12), 2147-2174.

65) Nodeland, B. (2020). The effects of self-control on the cybercrime victim-offender overlap. *International Journal of Cybersecurity Intelligence and Cybercrime*, 3(2), 4-24.

66) Flexon, J. L., Meldrum, R. C., & Piquero, A. R. (2016). Low self-control and the victim-offender overlap: A gendered analysi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31(11), 2052-2076.

할 수 있다.

자기통제의 안정성 가정에 대한 반론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Ray(2011)⁶⁷⁾는 미국 7-10학년 3,249명을 대상으로 자기통제 발달 궤적을 분석한 결과, 73.9%는 자기통제가 안정적 궤적을 보이나 26.1%는 비행 친구, 부모의 범죄 등 환경적 요인에 따라 자기통제 수준이 변화하는 불안정적 궤적을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자기통제가 8-10세에 고정되는 특성이 아니라 청소년기에도 환경 경험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 신경과학 연구에서도 유사한 맥락의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Keator 외(2024)⁶⁸⁾는 만 18세 이전 아동기 부정적 경험(ACEs)과 성인기의 인지 통제 네트워크(Cognitive control network)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즉, 아동기 부정적 경험(ACEs)이 충동 억제를 담당하는 전전두엽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쾌락과 보상처리를 담당하는 배측 선조체(dorsal striatum)를 무너지게 만든다는 것이다(Keator et al., 2024).⁶⁹⁾ 라틴아메리카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fMRI를 실시한 다른 연구에서도 일반 범죄, 신체적 학대, 학교 폭력, 폭력 목격 등의 폭력 노출이 충동 억제와 목표 지향적 행동을 담당하는 전두정엽 네트워크(특히 전대상피질)를 저하시켰다(Cará et al., 2019).⁷⁰⁾ 이러한 결과는 아동·청소년기의 학대 및 폭력 노출 등 부정적 경험이 뇌의 구조적·기능적 변화를 야기하고, 이로 인해 자기통제력을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한다.

아동기 부정적 경험과 자기통제력 손상의 관계는 피해-가해 중첩 현상과 연결된다. Beckley 외(2017)⁷¹⁾는 아동기 낮은 자기통제력과 반사회적 행동이 피해자나 가해자에 비해 피해-가해 중첩자가 될 확률을 거의 두 배로 증가시키며, 아동기 역경 경험 사건이 하나씩 증가할수록 피해-가해 중첩 가능성이 약 12%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앞선 결과와 Beckley 외(2017)⁷²⁾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 자기통제 능력을 손상시키고, 이로 인해 피해 경험 후 보복이나 공격성을 택할 가능성을 높이게 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자기통제력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막론하고 범죄 피해와 가해를 동시에 결정짓는 주

67) Ray, J. V. (2011).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self control: Assessing the stability hypothesis*. South Florida: University of South Florida.

68) Keator, D. B., Salgado, F., Madigan, C., Murray, S., Norris, S., & Amen, D. (2024).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brain function, and psychiatric diagnoses in a large adult clinical cohort. *Frontiers in Psychiatry, 15*, 1401745

69) 앞의 논문

70) Cará, V. M., Esper, N. B., De Azeredo, L. A., Iochpe, V., Dalfovo, N. P., Santos, R. C., ... & Buchweitz, A. (2019). An fMRI study of inhibitory control and the effects of exposure to violence in Latin-American early adolescents: Alterations in frontoparietal activation and performance. *Social Cognitive and Affective Neuroscience, 14*(10), 1097-1107.

71) Beckley, A. L., Caspi, A., Arseneault, L., Barnes, J. C., Fisher, H. L., Harrington, H., ... & Moffitt, T. E. (2017). The developmental nature of the victim-offender overlap. *Journal of Developmental and Life-Course Criminology, 4*(1), 24-49.

72) 앞의 논문

요한 요인임과 동시에, 가해와 피해가 동일인에게 집중되는 ‘피해-가해 중첩 현상’을 설명하는 주요한 요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에서는 자기통제력이 아동기 초기에 형성되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집단도 있으나, 이후 학대 또는 폭력 목격 등 부정적 경험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피해 경험으로 인한 뇌의 변화는 자기통제력을 손상시켜 다시 가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가해 중첩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자기통제 이론과 더불어 아동기의 누적된 부정적 경험이 자기통제력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일상활동/생활방식 이론

일상활동 이론(Routine Activities Theory, RAT)과 생활방식 노출 이론(Lifestyle Exposure Theory, LET)은 범죄가 발생하는 ‘상황’과 ‘기회’에 초점을 맞춘 범죄학의 주요 이론들이다. 두 이론은 개념적으로 유사하여 일상활동/생활방식 이론으로 통합되어 논의되어 왔다.

일상활동 이론은 Cohen과 Felson(1979)⁷³⁾이 제안한 것으로 범죄자가 누구인지 보다 어떠한 상황에서 발생하는가에 주목하였다. 이들은 범죄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범죄의 3요소 즉, ① 동기화된 가해자(motivated offenders), ② 적절한 표적(suitable targets), ③ 범죄 행위를 막아줄 유능한 감독자의 부재(the absence of capable guardians against a violation)가 시간과 공간적으로 수렴해야 하며, 이 중 하나라도 결여될 경우 범죄는 발생하지 않거나 억제될 수 있다고 보았다(Cohen & Felson, 1979).⁷⁴⁾ 여기서 핵심은 가해자의 범죄적 성향이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범죄의 3요소가 시공간적으로 수렴할 기회가 증가하면 범죄율은 역시 증가한다는 것이다(Cohen & Felson, 1979).⁷⁵⁾ 즉, 일상활동이 가정 밖으로 확대되고 사회적 통제가 약화되는 구조적 변화는 범죄율 상승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일상활동 이론이 발표된 유사한 시기에 Hindelang 외(1978)⁷⁶⁾는 생활양식 이론(lifestyle theory)을 제시하였는데, 개인의 생활양식이 범죄의 피해 위험의 핵심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미국의 ‘전국범죄피해조사(NCVS)’ 자료를 분석하여 개인의 인

73) Cohen, L. E., & Felson, M. (1979).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A routine activity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88-608.

74) 앞의 논문

75) 앞의 논문

76) Hindelang, M. J., Gottfredson, M. R., & Garofalo, J. (1978). *Victims of personal crime: An empirical foundation for a theory of personal victimization (Vol. 348)*. Cambridge, MA: Ballinger Publishing Company.

구학적 특성(성별, 연령, 인종, 소득, 혼인 여부, 교육 수준, 주요 활동 즉 직업)이 여가·업무 등 시간 사용 방식과 개인의 생활양식에 영향을 미치며, 이렇게 형성된 개인의 생활양식은 특정 시간·장소에 머물 가능성이나 잠재적 가해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할 가능성을 높여 결과적으로 피해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밝혔다(Hindelang et al., 1978).⁷⁷⁾ 생활양식 이론과 일상활동 이론은 공통적으로 범죄 연루 위험을 생활패턴으로 설명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나, 전자가 미시적·개인적 수준에 초점을 둔다면 후자는 거시적·구조적 측면을 강조한다는 차이가 있다. 이후 두 이론은 이러한 공통적, 상호보완적 특성으로 인해 통합하여 발전되고 활용되고 있다(Garofalo, 1987;⁷⁸⁾ Gottfredson, 1981).⁷⁹⁾

즉 일상활동/생활방식 이론(Lifestyle-Routine Activity Theory, L-RAT)은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노출되는 정도가 범죄 피해뿐만 아니라 가해의 기회까지 영향을 준다고 보는 입장으로, 범죄를 개인의 내재적 특성보다는 상황적 기회의 산물로 이해한다(Birkbeck & LaFree, 1993;⁸⁰⁾ Wilcox & Cullen, 2018).⁸¹⁾ 이 관점에서는 범죄의 피해와 가해를 서로 독립적인 결과가 아닌, 동일한 일상적 노출 과정에서 파행되는 상호 연관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Engström(2021)⁸²⁾은 이 이론을 기반으로 24세 이하의 청소년 범죄 연구 101편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일상활동의 범주를 불법활동, 약물사용, 구조화되지 않는 또래 중심 여가, 문제 행동 및 위험 활동, 학생 활동, 구조화된 저위험 활동, 피해 경험, 성 및 데이트 활동의 8가지 범주로 체계화하였다. 이러한 일상활동 유형은 피해와 가해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다. 불법활동이나 약물 사용은 범죄 피해 노출을 결정하는 주된 지표인 한편, 성인의 감독이 부재한 상태에서 또래와 어울리는 비구조화된 여가활동은 범죄 가해 기회를 높이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지적된다(Engström, 2021).⁸³⁾ 이는 청소년이 일상에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 그 자체보다 그 활동의 구체적인 맥락(장소, 동행자, 시간)에 따라 범죄 연루 위험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77) 앞의 책

78) Garofalo, J. (1987). Reassessing the lifestyle model of criminal victimization. In M. R. Gottfredson & T. Hirschi (Eds.), *Positive Criminology* (pp. 23-42). Newbury Park, CA: Sage.

79) Gottfredson, M.R. (1981). On the aetiology of criminal victimization.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72(2), 714-726.

80) Birkbeck, C., & LaFree, G. (1993). The situational analysis of crime and deviance. *Annual Review of Sociology*, 19(1), 113-137.

81) Wilcox, P., & Cullen, F. T. (2018). Situational opportunity theories of crime. *Annual Review of Criminology*, 1(1), 123-148.

82) Engström, A. (2021). Conceptualizing lifestyle and routine activities in the early 21st century: A systematic review of self-report measures in studies on direct-contact offenses in young populations. *Crime & Delinquency*, 67(5), 737-782.

83) 앞의 논문

표 II-3. Engström(2021)의 일상활동의 8가지 범주

구분	내용
불법 활동 (Illegal activ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 범죄(절도 등)부터 심각한 폭력 범죄까지 모든 법 위반 행위를 포함함. 이러한 활동은 행위자를 위험한 장소와 인물에게 노출시키는 고위험 활동으로 간주됨.
약물 사용 (Substance us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주, 폭음, 마약 사용 등을 포함하며, 자기 방어 능력을 낮추거나 타인과의 갈등 및 공격성을 유발하여 피해와 가해를 동시에 높이는 활동임.
구조화되지 않은 또래 중심 여가 (Unstructured/peer-oriented leisu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인의 감독 없고 명확한 목적이 없는 상태에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활동임. 특히, 밤 늦은 시간에 돌아다니기 등의 활동이 구체적인 위험 노출 지표로 강조됨.
문제 행동 및 위험 활동 (Problem behaviors/risky activ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 위반은 아니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행동임. 예를 들어, 무단결석, 가출, 성매매 등이 고위험 노출을 야기하는 활동이 포함됨.
학생 활동 (Student activ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기반의 교외활동(동아리, 스포츠 등)을 의미함. 주로 학교내 피해 연구에서 중요한 지표이나, 보호요인이 되기도 함.
구조화된 저위험 활동 (Structured/low-risk activ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장 생활, 가사노동, TV 시청, 비디오 게임 등은 구조화되어 있거나 범죄 노출이 낮은 활동임. 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 등 보호자가 존재하는 상황이 포함됨.
피해 경험 (Victimization experien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폭력, 성범죄, 괴롭힘(bullying) 등 과거의 피해 경험이 현재의 위험 노출 지표가 됨.
성 및 데이트 활동 (Sex and dating activ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트너 혹은 성적 관계를 맺으려는 대상과 보내는 시간임. 일반적인 또래 활동과는 구별되는 특수한 대인관계 맥락에서의 노출 위험을 측정함.

출처: Engström, A. (2021). Conceptualizing lifestyle and routine activities in the early 21st century: A systematic review of self-report measures in studies on direct-contact offenses in young populations. *Crime & Delinquency*, 67(5), 737-782.

선행연구들은 비구조적·감독이 없는 활동, 음주·흡연 또는 약물 사용뿐만 아니라 부모의 낮은 모니터링, 비행 또래, 범죄율이 높은 지역 등도 범죄 피해 또는 가해, 피해-가해 증첩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박성훈, 이유나, 2015;⁸⁴⁾ 이상문, 2022;⁸⁵⁾ DeCamp et al., 2018;⁸⁶⁾ Engström, 2021;⁸⁷⁾ Jennings et al., 2010;⁸⁸⁾ Mulford et al., 2016).⁸⁹⁾ Mulford 외(2018)⁹⁰⁾는 중범죄를 저지른 남성 청

84) 박성훈, 이유나(2015). 청소년비행유형별 피해-가해의 변화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한국아동·청소년패널자료의 분석. *피해자학연구*, 23(3), 201-232.

85) 이상문(2022). 피해자와 가해자 증첩의 인과적 과정. *한국공인행정학회보*, 31(2), 129-160.

86) DeCamp, W., Zaykowski, H., & Lunn, B. (2018). Victim-offender trajectories: Explaining propensity differences from childhood to adulthood through risk and protective factors. *Th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58(3), 667-688.

87) Engström, A. (2021). Conceptualizing lifestyle and routine activities in the early 21st century: A systematic review of self-report measures in studies on direct-contact offenses in young populations. *Crime & Delinquency*, 67(5), 737-782.

88) Jennings, W. G., Higgins, G. E., Tewksbury, R., Gover, A. R., & Piquero, A. R. (2010). A longitudinal assessment of the victim-offender overlap.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5(12), 2147-2174.

89) Mulford, C. F., Blachman-Demner, D. R., Pitzer, L., Schubert, C. A., Piquero, A. R., & Mulvey, E. P. (2018). Victim offender overlap: Dual trajectory examination of victimization and offending among young felony offenders over seven years. *Victims & Offenders*, 13(1), 1-27.

소년(15-24세)을 대상으로 세 가지 이론(생활양식/일상활동 이론, 자기통제 이론, 거리 문화 이론)을 비교 검증한 결과, 생활양식/일상활동 이론만이 피해-가해 중첩을 의미 있게 설명한다고 밝히며, 특히 총기 소지, 마약 거래, 비행 친구와의 어울림 등 감독이 없는 위험한 활동이 피해-가해 중첩의 주요 요인이라고 제시하였다. 이상문(2022)⁹¹⁾는 비행 친구는 부모유대감, 자아통제력보다 피해-가해 중첩의 과정을 잘 설명하는 요인일 수 있다고 하였으며, Osgood 외(1996)⁹²⁾도 성인 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일탈 또래와 함께 보내는 시간의 양이 범죄에 취약한 상황을 만들어낸다고 주장하였다. 비행 친구와의 유대가 잠재적 가해자로부터의 보호막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실제로는 폭력 피해의 위험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Schreck et al., 2004).⁹³⁾ 이는 비행 집단 구성원들의 낮은 보호 의지, 보복을 정당화하는 하위문화적 특성, 그리고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공유가 개인을 범죄의 취약한 대상으로 만들기 때문이다(Schreck et al., 2004).⁹⁴⁾ 이처럼 여러 요인 중에서도 감독이 없는 비구조적 활동과 비행 또래가 피해-가해 중첩의 강력한 요인으로 확인된다.

앞서 살펴본 영향은 청소년기에 국한되지 않고, 성인기까지 장기적으로 관찰되기도 한다. DeCamp 외(2018)⁹⁵⁾는 영국의 Offending, Crime and Justice Survey (OCJS) 종단 데이터를 활용해 10세부터 28세까지의 피해 및 범죄 경향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13세 이전 음주, 흡연, 마리화나 등 문제 행동(비구조적 활동), 범죄 경험이 있는 부모나 친구, 재산 범죄 경험, 사회적 보호 부족 등이 범죄 피해 및 가해를 동시에 높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상과 같이 일상활동/생활양식 이론(L-RAT)을 적용한 선행 연구들은 범죄가 개인의 특성보다 상황적 요인에서 비롯됨을 보여준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비구조적 활동과 비행 또래와의 접촉은 피해와 가해를 동시에 높이는 요인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장을 저해하는 ‘발달적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미비할 때 더욱 증폭되는데, 따라서 적극적인 조기 개입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또래 관계를 맺고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보호자의 보호 결핍을 보완할 수 있는 안전한 보호 환경을 마련하는 것, Mulford 외(2018)⁹⁶⁾가 제안

90) 앞의 논문

91) 이상문(2022). 피해자와 가해자 중첩의 인과적 과정. *한국공인행정학회보*, 31(2), 129-160.

92) Osgood, D. W., Wilson, J. K., O'malley, P. M., Bachman, J. G., & Johnston, L. D. (1996). Routine activities and individual deviant behavior.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1(4), 635-655.

93) Schreck, C. J., Fisher, B. S., & Miller, J. M. (2004). The social context of violent victimization: A study of the delinquent peer effect. *Justice Quarterly*, 21(1), 23-47.

94) 앞의 논문

95) DeCamp, W., Zaykowski, H., & Lunn, B. (2018). Victim-offender trajectories: Explaining propensity differences from childhood to adulthood through risk and protective factors. *The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58(3), 667-688.

한 바대로 적절한 감독 하의 구조화된 활동(예: 방과 후 활동, 스포츠,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하는 것, 지역사회의 사회적 결속력과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 등이 범죄 피해 위험 및 가해 행동 예방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전략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3) 하위문화 이론

하위문화 이론(Subcultural Theory)은 20세기 중반 하위 계층 남성, 특히 청소년 비행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 개발되었다(Deitzer & Copes, 2017;⁹⁷ Iuliana, 2021).⁹⁸ 이 이론은 긴장 이론과 문화적 이탈 이론을 중요한 토대로 삼고 있다. 긴장 이론은 정당한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한 기회가 제한된 하위 계층이 겪는 좌절감이 범죄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보았으며, 문화적 이탈 이론은 개인이 소속된 집단의 가치를 학습하고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범죄 및 비행에 가담한다고 보았다(Iuliana, 2021).⁹⁹ 이러한 맥락에서 하위문화 이론은 범죄를 개인의 특성이나 단순한 기회의 산물로 보지 않고, 특정 집단에서 공유되는 독특한 가치관, 신념, 규범에 주목한다. 하위문화는 주류 사회와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 존재하며 지배 문화의 가치를 일부 공유하기도 하지만, 구성원이 자신이 속한 집단의 독특한 규범에 순응하는 과정에서 지배 문화의 법적 기준과 충돌하며 범죄 및 비행의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Deitzer & Copes, 2017;¹⁰⁰ Iuliana, 2021).¹⁰¹

하위문화 이론을 처음 제시한 Cohen(1955)¹⁰²은 대도시 슬럼가에서 발생하는 비행 현상에 주목했으며, 이러한 현상의 근본 원인이 부모의 기대 수준, 자녀 양육 방식, 학교 평가 기준에서 나타나는 계층 간 차이에 있다고 보았다. 즉, 하위 계층의 부모의 기대 수준, 양육 방식은 중산층과는 괴리가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성장한 청소년들은 의사소통 기술 부족, 학습에 대한 낮은 몰입도, 만족 지연 능력의 결핍을 경험하게 된다(Cohen, 1955).¹⁰³ 학교는 이러한 계층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공간이 된다. 학교에

96) Mulford, C. F., Blachman-Demner, D. R., Pitzer, L., Schubert, C. A., Piquero, A. R., & Mulvey, E. P. (2018). Victim offender overlap: Dual trajectory examination of victimization and offending among young felony offenders over seven years. *Victims & Offenders, 13*(1), 1-27.

97) Deitzer, J. R., & Copes, H. (2017). Subcultural Theories. *The Encyclopedia of Juvenile Delinquency and Justice*, 1-5.

98) Iuliana, S. A. (2021). Subcultural theories of delinquency and crime. *Jurnalul de Drept si Stiinte Administrative, 21*(6), 135-144.

99) 앞의 논문

100) Deitzer, J. R., & Copes, H. (2017). Subcultural Theories. *The Encyclopedia of Juvenile Delinquency and Justice*, 1-5.

101) Iuliana, S. A. (2021). Subcultural theories of delinquency and crime. *Jurnalul de Drept si Stiinte Administrative, 21*(6), 135-144.

102) Cohen, A. (1955). *Delinquent Boys: The culture of the Gang*. Free Press.

103) 앞의 책

서 하위 계층 청소년은 자립심(self-reliance), 예의 범절(good manners), 소유권 존중(respect for property), 장기지향적인 계획(long-range planning)과 같은 중산층 잣대(middle-class measuring rod)로 평가받는다(Cohen, 1955).¹⁰⁴⁾ 그러나 이들은 성장 배경의 차이로 평가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지위 좌절과 긴장을 경험한다.

이 과정에서 하위 계층 청소년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화되어 적응한다. 하위문화 내에 안주하는 코너 소년(corner boy), 중산층 기준에 부응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칼리지 소년(college boy)과 달리 비행 소년(delinquent boy)은 원하지만 얻을 수 없기에 중산층 가치를 강하게 거부하고 자신들만의 하위문화 내에서 비행을 정당화한다(Cohen(1955).¹⁰⁵⁾ 다시 말해 자신들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지위를 원천 거부함으로써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비행은 경제적인 이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비실용적이며 쾌락적인 특성을 보이며, 기물 파손, 폭력, 반사회적 행동 등을 통해 집단 내 지위와 인정을 획득한다(Cohen, 1955).¹⁰⁶⁾ “비행 하위문화는 부적응 문제에 대처하는 하나의 방식(Cohen, 1955)”¹⁰⁷⁾으로, 실패의 내면화가 비행의 핵심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Blackman, 2014).¹⁰⁸⁾

이후 하위문화 이론의 연장선에서 Anderson(1999)¹⁰⁹⁾의 거리코드 이론(Code of the Street)을 제시하였다. Anderson(1999)¹¹⁰⁾은 필라델피아 빈곤 지역에 대한 민족지학적 연구를 통해, 인종차별, 제도적 방치, 그리고 주류 사회로의 상승 이동 경로가 차단된 구조적 조건 속에서 거리코드가 형성되는 과정을 밝혔다. 사회의 보호망에서 배제된 환경에서 청소년들은 어렵게 얻어지지만 쉽게 잃을 수 있는 사회적 화폐로서의 ‘존중(respect)’을 중요시하게 된다(Anderson, 1999).¹¹¹⁾ 이들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되는 사람으로 인식되게 하기 위해, 강인하게 보이거나 강인하게 행동하며 이는 상대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Anderson, 1999;¹¹²⁾ Fader & León, 2024).¹¹³⁾ 즉, 청소년들은 상대적 존엄과 존중을 위한 과장된 남성성 전략을 사용하는데(Fader & Len, 2024),¹¹⁴⁾ 공격 또는 거친 행동 등은 자기방어(억제)와 평판 유지(존중 확보)를 위한 상호작용적 수

104) 앞의 책

105) 앞의 책

106) 앞의 책

107) 앞의 책

108) Blackman, S. (2014). Subculture Theory: An Historical and Contemporary Assessment of the Concept for Understanding Deviance. *Deviant Behavior*, 35(6), 496-512.

109) Anderson, E. (1999). *Code of the Street*. New York.

110) 앞의 책

111) 앞의 책

112) 앞의 책

113) Fader, J. J., & León, K. S. (2024). Code of the street 25 years later: Lasting legacies, empirical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Annual Review of Criminology*, 7(1), 19-38.

114) 앞의 논문

단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Oliver(2006)¹¹⁵⁾는 거리코드가 가족, 교회, 교육 체계만큼 중요한 비공식적 규범으로서 개인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생애과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으며, Fader와 León(2024)¹¹⁶⁾도 Anderson의 거리코드 이론이 지난 25년간 다양한 인종적·지역적 맥락에서 경험적 지지를 받아왔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폭력을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의 문제로 환원하는 해석을 비판하며, 제도적 및 구조적 맥락화 속에서 폭력 발생을 이해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렇다면 불리한 사회경제적인 조건과 높은 범죄율을 가진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적응 전략으로 공격적이고 강인한 태도를 취한 청소년들은 실제로 범죄에 덜 연루되는가? 이에 대해 Stewart 외(2006)¹¹⁷⁾는 공격적이고 강인한 태도를 강조하는 거리코드를 택한 청소년일수록 범죄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한다고 밝히며, 무질서한 지역에 거주함으로써 발생하는 피해 위험 이상의 추가 위험이 생긴다고 하였다. 즉, 거리코드는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기보다 오히려 피해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Stewart et al., 2006).¹¹⁸⁾ 한편, Berg 외(2012)¹¹⁹⁾는 Family and Community Health Study(FACHS) 1·2차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의 거리문화(neighborhood street culture)에 따라 아프리카계 미국인 청소년의 피해-가해 중첩 현상이 달라지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의 폭력 피해 경험은 이후 폭력 가해 가능성을 높이고, 반대로 폭력 가해 경험은 이후 피해 위험을 증가시켰으며, 이러한 피해-가해 중첩 현상은 거리 문화가 두드러지는 지역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Berg et al., 2012).¹²⁰⁾ 김가은(2019)¹²¹⁾에서도 폭력을 허용하는 거리코드 가치는 학교폭력에 있어서의 피해-가해 중첩 현상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결과들은 지역 또는 소속집단의 문화적 규범, 특히 폭력과 보복을 정당화하는 거리코드의 강도에 따라 피해-가해 중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위문화 이론에 근거할 때, 피해-가해 중첩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개인의 비행 행동을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청소년들이 속한 또래 집단과 지역사회

115) Oliver, W. (2006). "The streets" An alternative black male socialization institution. *Journal of Black Studies*, 36(6), 918-937.

116) Fader, J. J., & León, K. S. (2024). Code of the street 25 years later: Lasting legacies, empirical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Annual Review of Criminology*, 7(1), 19-38.

117) Stewart, E. A., Schreck, C. J., & Simons, R. L. (2006). "I ain't gonna let no one disrespect me" does the code of the street reduce or increase violent victimization among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43(4), 427-458.

118) 앞의 논문

119) Berg, M. T., Stewart, E. A., Schreck, C. J., & Simons, R. L. (2012). The victim-offender overlap in context: Examining the role of neighborhood street culture. *Criminology*, 50(2), 359-390.

120) 앞의 논문

121) 김가은(2019). *청소년의 학교폭력 가해-피해 중첩성에 대한 경로분석 : 거리코드 가치(code of the street)의 적응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회의 규범 체계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폭력을 대체할 수 있는 갈등 해결 방식을 교육하고, 지역사회 차원에서 집단적 효능감을 강화하는 개입이 효과적일 수 있다. 또한 온라인 공간에서 형성되는 유해한 하위문화에 대한 모니터링과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3. 소결

본 장에서는 피해-가해 중첩의 개념과 현황, 주요 이론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아동의 피해-가해 중첩 현상은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나 일시적 문제 행동이 아니라, 발달 과정 속에서 축적된 피해 및 위험 경험 속에서 발생하는 구조적인 현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선행연구 검토 결과 피해-가해 중첩은 일반 아동 집단에서는 중첩률이 비교적 낮으나, 종단 연구나 고위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피해-가해 중첩률이 약 30% 이상 나타난다. 또한 국내외 연구들에서는 아동기 학대, 폭력 노출, 또래 괴롭힘 피해 경험은 아동의 가해 행동과 관련성이 있음을 일관적으로 보고하며(권순화 외, 2021;¹²²⁾ 장현석, 2017;¹²³⁾ Chan, 2019;¹²⁴⁾ Jennings et al., 2012;¹²⁵⁾ Miley et al., 2020;¹²⁶⁾ Mulford et al., 2018),¹²⁷⁾ 피해나 폭력 노출 경험 없이 범죄 가해만 지속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지적한다(Mulford et al., 2018).¹²⁸⁾ 따라서 아동기 피해 경험이 이후 가해 경험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

둘째, 굿네이버스 「2023 대한민국 아동권리지수」 4차년도 자료를 활용한 분석을 통해서도 우리나라 아동의 피해-가해 중첩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1년간 아동의 피해-가해 중첩률은 28.6%로 나타나 아동 약 10명 중 3명가량이 피해와 가해를 동시에

122) 권순화, 정채연, 이현수, 조은경(2021). 사이버 공간에 의한 청소년의 피해-가해 중첩(overlapping) 행동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28(11), 29-57.

123) 장현석(2017).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 학교폭력(왕따) 피해에 미치는 영향: 종단자료를 이용한 피해-가해 중첩 맥락의 이해. *한국범죄심리연구*, 13(1), 227-254.

124) Chan, H. C. O. (2019). Exploring the overlap between victimization and offending among Hong Kong adolescent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61, 72-80.

125) Jennings, W. G., Piquero, A. R., & Reingle, J. M. (2012). On the overlap between victimization and offending: A review of the literature.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7(1), 16-26.

126) Miley, L. N., Fox, B., Muniz, C. N., Perkins, R., & DeLisi, M. (2020). Does childhood victimization predict specific adolescent offending? An analysis of generality versus specificity in the victim-offender overlap. *Child Abuse & Neglect*, 101, 104328.

127) Mulford, C. F., Blachman-Demner, D. R., Pitzer, L., Schubert, C. A., Piquero, A. R., & Mulvey, E. P. (2018). Victim offender overlap: Dual trajectory examination of victimization and offending among young felony offenders over seven years. *Victims & Offenders*, 13(1), 1-27.

128) 앞의 논문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가해 행동을 한 아동의 95%가 피해 경험이 있어 가해 아동의 대부분이 과거 혹은 현재의 폭력 피해 당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해-가해 중첩 현상은 일부 특수한 사례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아동·청소년 집단 내에서 관찰되는 보편적이고 구조적인 양상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중첩 현상은 또래 관계 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데, 가정·학교·지역사회·온라인 환경 등 다양한 환경에서 축적된 피해 경험이 또래를 향한 공격적 행동으로 전이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남학생과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 이러한 현상을 두드러지므로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부터 예방 및 조기 개입이 필요성이 있다. 또한, 연령이 증가하면서는 또래 괴롭힘을 넘어 위법성이 있는 심각한 수준의 비행 행동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가해 아동에 대한 단순한 처벌보다 피해 회복과 가해 예방을 동시에 아우르는 개입이 필요하다.

셋째, 자기통제 이론은 피해-가해 중첩을 설명하는 개인 내적 요인으로서 중요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낮은 자기통제력은 범죄 가해뿐 아니라 피해 위험까지 동시에 증가시키는 공통 요인으로 확인된다. 다만 최근 연구들은 자기통제가 아동기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대나 폭력 노출과 같은 부정적 경험에 의해 변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신경과학적 연구 역시 아동기 역경이 인지통제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쳐 충동 억제와 자기조절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는 피해 경험이 자기통제력을 매개로 다시 가해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한다.

넷째, 일상활동/생활방식 이론은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노출되는 정도가 범죄 피해와 가해를 동시에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감독이 없는 비구조적 활동, 비행 또래와의 접촉, 음주·흡연·약물 사용, 범죄율이 높은 지역 등은 피해와 가해의 공통된 위험 요인으로 반복적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감독 없는 비구조적 활동과 비행 또래와의 접촉은 피해-가해 중첩을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확인되며,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미비할 때 더욱 증폭될 수 있다. 이는 피해-가해 중첩 현상을 개인의 특성뿐 아니라 상황적 기회와 환경적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함을 의미한다.

다섯째, 하위문화 및 거리코드 이론은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존중 확보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집단 규범이 피해-가해 중첩을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폭력에 대한 허용적 규범이 강한 또래 집단이나 지역사회에서는 피해 경험이 보복이나 공격 행동으로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중첩 현상은 개인의 심리적 요인과 더불어 집단문화, 지역사회 구조, 제도적 배제 등 거시적 맥락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종합하면, 피해-가해 중첩은 자기통제력, 아동기의 부정적 경험, 위험한 일상활동과 비행 또래와의 관계, 폭력을 정당화하는 문화 등 복합적으로 얽혀 형성되는 다차원적 현

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중첩 현상에 대한 대응은 피해 지원과 가해 예방을 분리하여 접근하기보다, 통합적인 관점에서 설계하여 제시될 필요가 있다.



아동의 범죄 예방과 지원을 위한 정책 및 민간단체 활동

1. 아동의 범죄 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정책
2. 아동의 범죄 가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정책
3. 아동의 범죄 예방과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 활동
4. 소결

G O O D N E I G H B O R S

Ⅲ. 아동의 범죄 예방과 지원을 위한 정책 및 민간단체 활동

1. 아동의 범죄 피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정책

아동의 범죄 연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인 대응은 크게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교정’이라는 두 축에서 운영되고 있다. 우선, 현재 우리나라는 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의 일상 회복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나이에 관계 없이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보호 대상으로 삼고, 피해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제공한다. 다만 아동의 특수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조항은 제한적으로, 피해 아동 대상으로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을 통해 피해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을 하고 있다.

1) 법적 근거

(1) 범죄피해자 보호법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2005년에 제정되었으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¹²⁹⁾ 또한 범죄피해자가 범죄 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을 권리,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이 보호되어야 할 권리, 그리고 해당 사건과 관련된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기본 이념으로 삼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¹³⁰⁾

129)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범죄피해자 보호법.

130)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범죄피해자 보호법.

이 법의 주요 내용은 표 Ⅲ-1과 같다. 우선, 범죄피해자를 직접적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보호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구조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지정하여 포괄적으로 지원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제3조).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상담, 치료비, 구조금 지급, 신변 보호 등 피해 회복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한 책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4조, 제5조), 특히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제16조).

한편, 이 법은 2025년 3월 21일 일부 내용이 개정되었는데,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 강화 및 구성권 행사 실질화가 핵심이다(법무부, 2025.3.20.일자 보도자료).¹³¹⁾ 범죄피해구조금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구조금 지급액을 증액하고(동법 시행령 제22조-제24조), 지급대상을 확대였으며(제18조, 제23조),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실질을 도모하기 위해 가해자의 부동산·금융자산 등 보유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제29조의 2, 제29조의 3)(법무부, 2025.3.20.일자 보도자료).¹³²⁾

표 Ⅲ-1. 범죄피해자 보호법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관련 조항
범죄피해자 정의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및 범죄구조 행위자	제3조
국가·지자체 책무	보호·지원 체계 구축, 정책 수립, 실태조사 및 연구, 홍보 및 자원 조달 의무	제4조, 제5조
피해 회복 지원	상담, 의료(치료비),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주거 및 취업 지원, 보호시설 운영	제7조
형사절차 참여 보장/범죄피해자 권리·지원 정보 제공	재판 절차 진술권 보장, 가해자에 대한 수사 결과·공판기일·재판 결과 등 관련 정보 제공,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에 관한 정보	제8조, 제8조의2
신변 및 비밀보호	보복 방지 조치(신변보호), 업무상 비밀누설 금지 및 위반 시 벌칙 규정	제9조, 제39조
범죄피해 구조금	구조피해자가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유족·장해·중상해 구조금 지급, 범죄피해자가 관리 능력 부족 시 심의를 거쳐 구조금 분할 지급	제16조~제22조
구상권 행사 실질화	가해자의 부동산·금융자산 등 보유재산 조회	제29조의 2, 제29조의 3
형사조정	검사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회부 가능, 실질적 피해 회복 및 원만한 분쟁 해결 도모	제41조~제45조
인권 주간	범죄피해자 복지 증진을 위해 매년 11월 29일 포함 1주간 지정	제11조의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범죄피해자 보호법.

131) 법무부(2025.3.20.일자 보도자료). 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 강화 및 구상권 행사 실질화를 위한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
132) 앞의 자료

(2) 아동·청소년의 범죄 피해 보호 및 지원 법률

앞서 살펴본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 피해를 입은 전 연령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경우 발달 과정 중에 있다는 특수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보다 세밀한 보호망이 필요하다. 이에 국내법에서는 아동 학대 및 성범죄 등 피해유형별에 따라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과 같이 개별법을 마련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법들은 단순한 피해자 지원을 넘어, 아동의 최상의 이익 보장, 복지 증진, 나아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먼저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학대 피해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상담·가정위탁·시설 입소 등의 보호조치를 실시한다(제15조). 아동 매매 및 가정폭력 노출을 포함한 각종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제17조), 피해 아동과 그 가족에게 의료적·심리적 치료를 제공하며(제29조), 학대 종료 후에도 재발 확인을 위한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등 통합적인 지원을 실시하도록 한다(제28조).

다음으로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제2장, 제3장),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제5장),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제4장, 제6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음주·약물 감경 제한을 규정하고(제7조-제19조), 영상녹화·신뢰관계인 동석 등 피해자 권리 보호 장치를 명시하며(제25조-제31조),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처벌 대상이 아닌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여 전용 지원센터를 통해 건강한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표 III-2. 아동·청소년의 범죄 피해 보호 및 지원 법

구분	주요 목적 및 기본 이념	주요 내용
아동복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 보장 •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대피해 등으로 인한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제15조) • 아동 매매,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가정폭력 노출 포함), 유기 및 방임, 경제적 착취 등 11가지 행위 금지(제17조) • 학대피해 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 실시(제29조) • 아동학대 행위자 등에 대한 상담 교육 실시(제29조의 2) • 아동학대 종료 이후 재학대 확인 위해 사후관리(가정방문, 전화상담 등) 의무적 실시, 필요시 피해 아동 및 가족 추가 지원 실시(제28조)

구분	주요 목적 및 기본 이념	주요 내용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처벌법)	•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제2장, 제3장) •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제5장)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제4장, 제6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성보호법)	•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처벌 및 절차 특례 :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성착취물 제작·배포, 성매매 유인·강요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음주·약물 감경 적용 제한 (제7조-제19조) •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진술 과정의 영상녹화 및 증거보전, 신뢰관계인 동석, 변호인 선임 특례, 비밀누설 금지 및 통지 의무 (제25조-제31조) • 피해아동·청소년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치료 제공 (제37조) •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은 형사처벌하지 않고, 관련 시설에서 교육·상담 제공 (제38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각 법령 내용 요약 정리하여 제시

2) 관련 정책

(1) 제4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2022-2026)¹³³⁾

제4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은 ‘범죄피해자의 인권존중 및 인간다운 삶의 보장 실현’을 비전으로 삼고,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되는 정책이다. 이 계획은 5대 정책 영역, 13개 정책과제, 87개 세부과제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피해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형사 절차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며, 긴급 지원 및 중·장기적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인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범죄 발생 직후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24시간 응급위기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검찰과 경찰 간 핫라인을 구축하여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경제적 지원 측면에서는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 대상과 액수를 현실화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원상회복을 도모하며,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상권 행사의 실질화를 추진한다. 또한,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접근권을 확대하고,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 등 전문가 조력 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사법 절차 내에서의 소외를 방지하고자 한다.

133) 법무부(2021). 제4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 에서 요약·정리하여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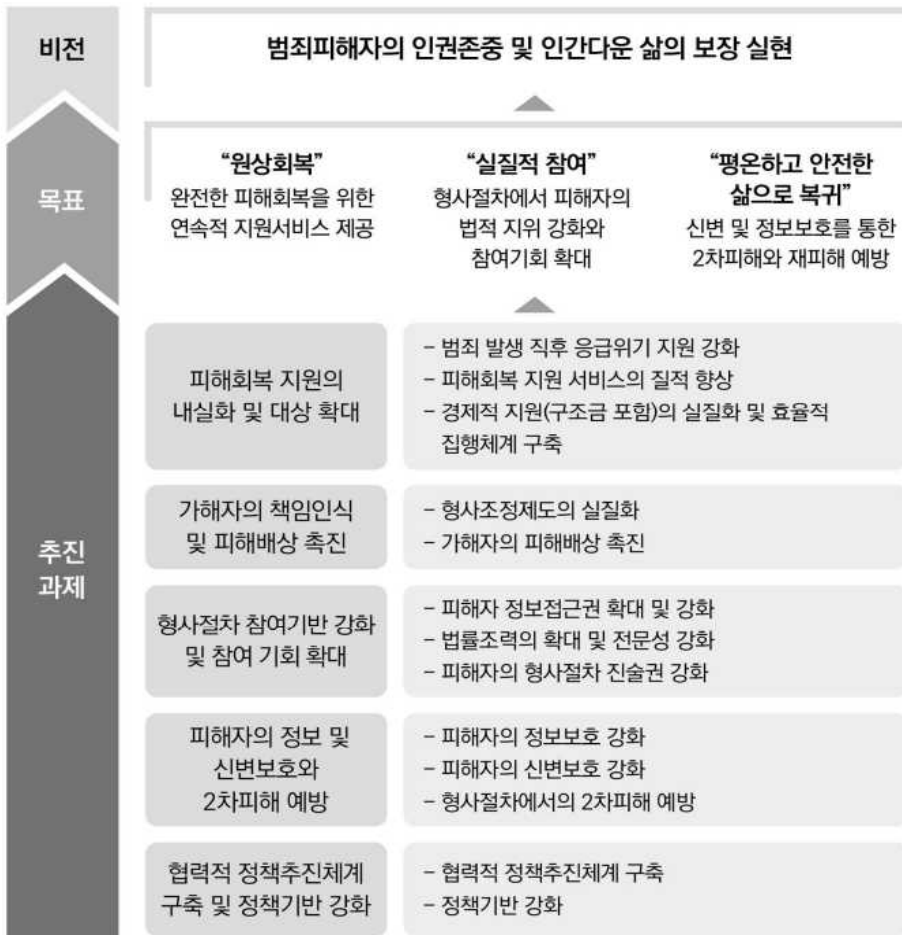


그림 III-1. 제4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2022~2026) 비전과 추진 과제

출처: 법무부(2021). 제4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 내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회복 지원의 내실화 및 대상 확대 영역에서는 아동학대 피해아동 치료를 강화하고,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피해아동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 활성화, 진술분석관 확대로 아동학대범죄 심리조사 지원, 방문형 가족회복 프로그램 실시 등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내실화, 의사표현이 서툰 영유아를 전문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형사절차 참여기반 강화 및 참여 기회 확대 영역에서는 소년보호사건 피해자의 정보접근권 보장과 진술조력인 처우 개선 및 진술조사에 적합한 수사환경 조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소년보호사건 심리 관련 정보에 대해 가해소년의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수사기관 내 아동 및 장애인에 적합한 조사환경을 마련하고, 아동 및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진술조사 가이드라인 마련 및 수사담당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셋째, 피해자의 정보 및 신변보호와 2차 피해예방 영역에서는 성폭력 범죄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에서도 피해자 신원정보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대상 범죄 및 처벌대상인 행위주체 확대 검토하는 것,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표 III-3. 제4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2022~2026) 중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영역	세부과제	주요 내용
피해회복 지원의 내실화 및 대상 확대	1-2-① 심리지원 서비스의 지역적 편차 해소 및 방식 다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피해아동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 지정·운영 활성화, 시·과도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심리지원팀을 설치하여 지역 내 고난도 사례 심리치료 및 협력체계 운영
	1-2-③ 피해자 특성 및 피해유형별 맞춤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진술분석 근거 마련 및 진술분석 관 확대로 아동학대범죄 심리·조사 지원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2023년 10월부터 사례관리만 전담, 방문형 가족회복 프로그램, 피해아동 심리치료 등 사례관리 내실화 -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쉼터를 적정 규모까지 확충하여 학대 피해아동 심층 사례관리 및 회복지원 강화 - 의사표현이 어려운 학대피해 영유아는 전문 가정 보호
형사절차 참여기반 강화 및 참여 기회 확대	3-1-③ 소년보호사건 피해자의 정보접근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년보호사건 심리 관련 정보에 대한 피해자 통지 추진 (법원행정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년보호사건에 있어서 가해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소년보호사건 진행, 결정 등 심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 검토 • 소년보호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에 대한 제한적 허용 (법원행정처)
	3-2-② 진술조력인 처우 개선 및 진술조사에 적합한 수사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 조사 및 진술조력을 위한 수사 환경 구축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기관 내 아동 및 장애인에 적합한 조사환경 마련(영상녹화, 속기록 작성, 장애인 편의시설 등) - 아동 및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진술조사 가이드라인 마련 및 수사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영역	세부과제	주요 내용
피해자의 정보 및 신변보호와 2차피해예방	4-1-③ 언론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피해자 신원정보 공개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피해자 신원정보 공개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정비 (법무부,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폭력범죄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에서도 피해자 신원정보 공개를 하지 못하도록 대상 범죄 및 처벌대상인 행위주체 확대 검토 - 범죄에 따라 상이한 처벌규정에 대한 법정형의 검토 및 개선
	4-3-③ 디지털 성범죄 2차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 지원 정책의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여성가족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아동·청소년 성보호를 위해 성인과 달리 특화된 대응체계 구축 필요

출처: 법무부(2021). 제4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

(2) 범죄피해자 지원내용 및 시설

그림 III-2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무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신변보호,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 가해자로부터의 손해배상과 같이 신변 안전부터 사법절차 참여, 일상회복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의 신변보호	형사절차상 피해자 보호	신체·정신·재산상 의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	가해자로부터의 손해배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변보호조치 - 가명조서 - 피해자 보호시설 - 임시안전숙소 - 이관비(이사비) - 스마트워치 (위치확인장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피해자 의견진술 제도 - 범죄피해자 대리 출석 제도 - 형사사법포털과 모바일(앱)을 통한 정보제공 제도 -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 제도 -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 진술조력인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죄피해구조 제도 - 주거 지원 제도 - 경제적 지원 제도 - 범죄피해지원센터를 통한 피해자 지원 제도 - 스마일센터를 통한 피해자 지원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상명령 제도 - 형사소송에서의 화해 제도 - 형사조정 제도 -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 대한법률구조공단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대한가정법률상담원

그림 III-2.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의 종류

출처: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cvs/2698/subview.do>)

표 III-4. 범죄 피해 지원 신청기관

구분	지원제도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변보호조치, 피해자보호시설(안전가옥), 이전비(이사실비), 스마트위치(위치확인장치), 가명조서, 범죄피해자 의견진술제도,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제도, 형사사법포털 및 앱 정보제공,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진술조력인 제도,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주거지원 제도, 경제적 지원 제도, 배상명령제도, 형사조정제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긴급구호, 경제적 지원(생계비, 치료비, 간병비 등), 취업지원, 수사기관 및 법정 동행 등
스마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치료 및 임시거주시설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상담 및 소송구조
법률홍닥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상담 및 법교육
경찰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변보호조치, 스마트위치(위치확인장치), 임시안전숙소, 가명조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지제도,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진술조력인 제도, 범죄현장정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대피해아동 심리치료, 의료 및 법률지원

출처: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cvs/2698/subview.do>)

이와 같이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와 정책적 노력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의 관점에서는 보완이 필요한 지점이 존재한다. 아동의 범죄 피해에 대한 현행 지원 체계는 범죄 유형별 개별법에 의존하고 있어 사법 절차 전반에서 아동의 발달적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제4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2022-2026)’에서 소년보호사건 피해 아동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음에도, 실제 정책 추진의 지연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건 진행 상황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진술조력인 등 전문가 조력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 중심의 사법 환경과 실효성이 낮은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아동이 반복 진술에 노출되는 등 2차 피해를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적·물리적 회복 지원 측면에서는 구조금 지급액 증액과 가해자 재산 조회권 신설 등 제도적으로 진전이 있었으나, 아동은 생애주기를 고려한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체계는 미흡한 수준이다. 범죄 피해를 경험한 아동은 성장 과정 전반에서 트라우마가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원은 사건 발생 직후의 긴급 구호와 단기 치료비 지급에 집중되어 있어 성인기 이행을 돕는 중장기적 사례 관리 체계가 부족하다고 하겠다. 더불

어 디지털 성범죄와 같이 전파 속도가 빠르고 재유포의 두려움이 큰 신종 범죄에 대해 아동·청소년이 체감할 수 있는 삭제 지원 및 잊힐 권리의 보장이 법적·기술적으로 완벽히 뒷받침되지 못해 피해 아동이 지속적인 불안감 속에 방치될 우려가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피해를 입는 주요 장소는 또래와 주로 관계를 맺는 학교가 주를 이루고 있어 개입이 필요하나 그 지원체계가 미흡하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범죄피해자보호법 적용이 제한적으로, 범죄피해자보호법과 학교폭력예방법이 중첩 적용되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학교폭력예방법 위주로만 처리되어 아동의 범죄피해자 권리(구조금, 변호사 지원 등)가 보장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학교 내 상담·심리치료 연계가 부족하고, 피해 학생의 장기 심리치료와 학업복귀 지원이 여전히 공백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제4차 기본계획의 진술조력인 제도가 학교폭력 사건에 적극 활용되지 않아 소년보호사건 정보제한으로 피해 학생의 사법적 소외가 심화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2. 아동의 범죄 가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정책

1) 법적 근거

(1) 소년법

소년법은 아동의 범죄 가해 예방과 지원을 위한 법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이 법은 미성년자는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형사처벌을 전면화하기보다는 환경 조정,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을 통해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적용 대상은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규정되며(제2조), 범죄를 저지른 ‘범죄소년’뿐 아니라 형사책임이 없는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 그리고 비행 우려가 있는 ‘우범소년(10세 이상 19세 미만)’까지 포함한다(제4조). 이는 소년법이 단순한 사후 처벌법이 아니라, 예방적·선제적 개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자 함을 보여준다.

소년법은 소년의 인권과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조사 및 심리 과정에서 의학·심리학·교육학 등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9조, 제12조), 소년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도록 명시한다(제10조). 또한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진행하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낙인과 사회적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제24조).

소년법에는 피해자 보호 및 참여 보장 관한 내용도 일부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제25조의2), 소년의 교정을 위해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제25조의3) 회복적 사법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 다만, 앞서 밝혔듯이 소년보호사건의 특성상 가해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의 정보접근권이 제한되는데, 피해자 권리 보장과 소년보호 간의 균형 문제는 여전히 논의 과제로 남아 있다.

소년법의 핵심은 1호부터 10호까지의 단계적 보호처분 체계이다(제32조, 제33조). 보호자 감호위탁, 수강명령(최대 100시간), 사회봉사명령(최대 200시간), 보호관찰, 감호위탁, 의료소년원 위탁, 단기·장기 소년원 송치 등 비행의 정도와 개선 가능성을 고려한 다양한 처분이 마련되어 있다. 보호처분은 처벌의 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없이 보호처분 내용을 준수하도록 한다.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으며 소년의 장래 신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여 낙인 효과를 최소화하고 있다.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에 18세 미만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이나 무기형을 선고할 수 없고(제59조),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제60조). 이는 범죄소년의 가능성을 전제로 하여, 교정 성적이 양호할 경우 조기 종료도 가능하도록 한 제도이다. 또한 검사는 처분 전 소년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을 조사하여 가장 적합한 처분을 결정해야 하며(제49조의2), 선도·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제도도 운영된다(제49조의3).

표 III-5. 소년법 주요 내용

대분류	조항	핵심내용	세부내용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사회성 소년의 환경 조정 및 품행 교정 형사처분 특별조치로 소년의 건전한 성장 도모
	제2조	소년 보호 및 보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년은 19세 미만인 자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자 또는 감호하는자
제2장 보호사건	제4조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죄를 범한 소년(범죄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촉법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소년(우범소년)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제9조	조사 방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학·심리학·교육학 등 전문 지식 활용 조사 소년·보호자의 품행, 경력, 가정 상황 등 파악 위해 노력

대분류	조항	핵심내용	세부내용
	제10조	진술거부권 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년에게 불리한 진술 거부할 수 있음 고지
	제12조	전문가 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 또는 심리 시, 전문가 진단,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고려해야 함
	제18조	임시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심리 필요 시 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위탁(1개월)
	제24조	심리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친절하고 온화한 심리 진행 비공개 원칙, 단 판사가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 허가 가능
	제25조의2	피해자 등의 진술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해자 또는 대리인 등에게 진술 기회 제공
	제25조의3	화해권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년의 품행 교정을 위해 피해자와의 화해 권고 화해 여부를 보호처분 결정 시 고려하는 것 가능
	제32조/제33조	보호처분 및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0호 처분 <o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6개월 판사 결정으로 6개월 연장 가능) 수감명령 (최대 100시간) 사회봉사명령 (최대 200시간)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1년)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2년, 판사결정으로 1년 범위 내 연장 가능)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6개월 판사 결정으로 6개월 연장 가능) 병원, 요양소 등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6개월 판사 결정으로 6개월 연장 가능)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 (최대 6개월) 장기 소년원 송치 (최대 2년)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음
	제32조의2	부가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안교육 및 상담·선도 교육 이수 병행 명령 가능 보호자 특별교육 명령 가능
제3장 형사사건	제49조의2	결정 전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사의 처분 전 소년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 조사 요구 검사는 소년피의자를 교화·개선하는 데 가장 적합한 처부 결정
	제49조의3	조건부 기소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도·교육 이수를 전제로 한 불기소 처분 가능
	제59조	형량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18세 미만 소년 사형·무기형 해당 시 15년 유기징역
	제60조	부정기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대해 장기(최대 10년)와 단기(최대 5년)를 정하여 선고 교정 성적 양호 시 단기 경과 후 형 집행 종료 가능
제3장의2 비행예방	제67조의2	비행예방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무부장관의 비행소년 건전 성장 관련 정책 수립·시행 중앙행정기관 및 사회단체와의 협조체계 운영
제4장 벌칙	제68조	보도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사자 짐작 가능한 성명, 용모 등의 보도 및 방송 금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소년법.

2) 관련 정책

(1) 법무부 소년범죄 종합대책

법무부에서는 2022년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제시하였다. 이는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흉포화에 대응하고,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종합적인 정책이다. 주요내용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교정 강화, 소년보호절차 인권보호 개선,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소년형사사법절차 전문성 제고,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소년범죄 예방 정책 추진 등이 있다.

표 III-6. 소년범죄 종합대책 주요 내용

소년범죄 종합대책 주요 내용	
①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
②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소년원 생활실 소규모화(10~15인실 ⇨ 4인실), 아동복지시설 수준 급식비 인상수도권에 학과교육 중심 소년전담 교정시설 운운영구치소 내 성인범·소년범 철저 분리, 소년 보호관찰 전담 인력 증원소년분류심사원 시설 확충·명칭 변경(1개 ⇨ 3개), 민간 참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설
③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교정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9호·10호 소년원송치 처분에 5호 장기 보호관찰을 병합할 수 있도록 개선「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3~’27년)」에 소년원 포함, 교육부와 협력 강화소년교도소에 검정고시반 필수과정 신설 등 학과교육 강화소년 성폭력사범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 개발, 피해자 관점 교육 도입소년범에 대한 맞춤형 가석방 도입 및 전과 회보제한 검토
④ 소년보호절차 인권보호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우범소년에게 장기 보호관찰, 소년원송치 등 과도한 보호처분 폐지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소년의 이익제기권 신설외출제한명령 대상자 감독방식을 ‘스마트워치’ 방식으로 개선
⑤ 소년범죄 피해자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소년보호절차에서 피해자에 대한 통지제도 개선 및 피해자의 참석권 규정 신설피해자 의사 반영을 위해 검사의 항고권 신설SNS, 전화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피해자 접근금지 법적근거 마련

소년범죄 종합대책 주요 내용

⑥ 소년형사사법절차 전문성 제고

- 인천· 수원지검에 '소년부' 신설, 약식기소 자제 등 형사처벌 적정성 제고
- 보호자 등의 통고에 의해 소년보호사건 개시된 경우 검사 통지 제도 마련, 조건부 소년부송치 제도 신설

⑦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소년범죄 예방정책 추진

- 체계적 소년범죄 통계 관리시스템 구축
- 범죄 예방 환경개선사업(CPTED)과 소년범죄 예방 적극 연계

출처: 법무부(2022.10.26.일자 보도자료).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

2) 소년보호사건 처리절차 ¹³⁴⁾

(1) 소년보호사건 처리절차 개요

소년법에 따라 소년보호사건 대상은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구분된다.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죄를 범한 소년, 촉법소년은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 우범소년은 형벌법령을 저촉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집단으로 몰려다니며 주위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 등이 있는 소년을 말한다.

소년보호 사건처리는 촉법소년과 우범소년은 경찰에서 선도하거나 직접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고,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는 경우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며, 보호자·학교 또는 복리시설의 장이 범죄소년·촉법소년·우범소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법원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법원 소년부 판사가 소년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소년의 성행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호부터 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내리며, 한 가지 또는 복수의 처분을 내리는 것이 가능하다.

134) 법무부 범죄 예방국 홈페이지(<https://www.cppb.go.kr/cppb/578/subview.do>) 에서 발췌하여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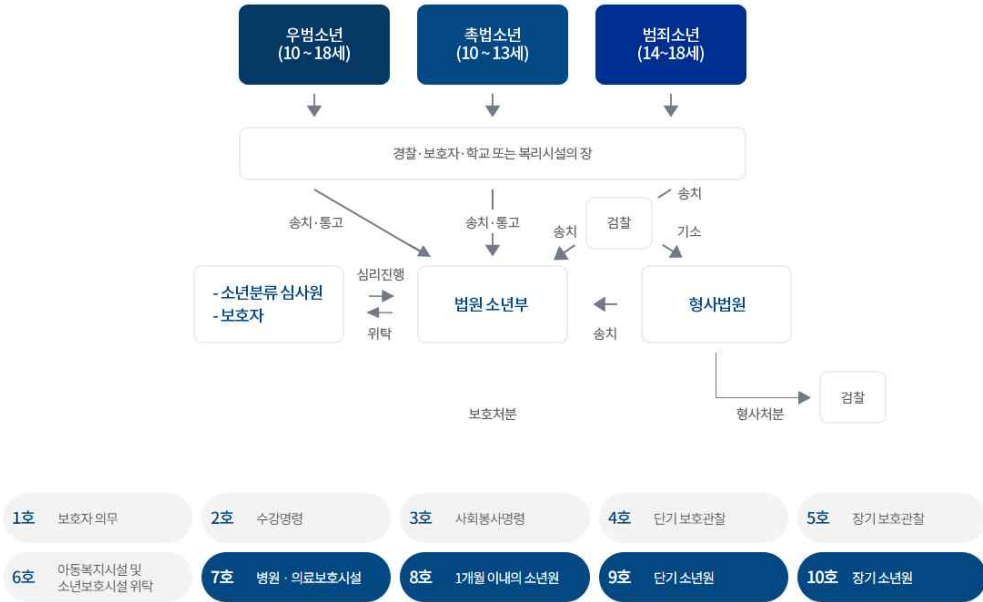


그림 III-3. 소년보호사건 처리 절차

출처: 법무부 범죄 예방정책국 홈페이지. <https://www.cppb.go.kr/cppb/578/subview.do>

(2) 소년보호사건 단계별 주요 제도 및 프로그램

경찰, 검찰, 법원 단계에서의 주요 제도 및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는 범죄소년의 특성을 분석하여 맞춤형 선도와 처분을 결정하는 데 집중한다. 경찰은 '전문가 참여제도'와 '선도심사위원회'를 통해 소년의 인성을 심층 분석하며, 경미한 사안은 훈방이나 즉결심판으로 연결하고 '사랑의 교실' 같은 선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검찰 단계에서는 '검사 결정 전 조사'로 소년의 환경과 비행 원인을 파악하며, 학교 폭력 사건의 경우 교사 의견 청취 제도를 활용한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혐의가 있는 사건 위주로 송치하며, 검사는 이를 바탕으로 일반 형사사건 처리 혹은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 단계에서는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가 소년보호사건을 심리하며, 이 과정에서 전문적인 비행 진단이 이루어진다. 판사는 소년의 신병 확보와 심층 분석을 위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임시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이곳에서 작성된 '분류심사서'는 보호처분 결정의 핵심 근거가 된다. 최종적으로 판사는 비공개 심리를 통해 소년의 특성에 적합한 보호처분을 내리거나, 사안에 따라 불처분 또는 형사법원 송치 등의 결정을

내리며 소년의 교화와 재범 방지를 도모한다.

표 III-7. 소년보호사건 단계별 주요 제도 및 프로그램

구분	주요 제도 및 프로그램	핵심 내용 및 목적
경찰 단계	전문가 참여제도	심리전문가가 인성·비행 요인을 분석하여 선도심사위 자료 및 맞춤형 교육 연계에 활용
	선도심사위원회	경미 소년범 대상 훈방·즉결심판 결정 및 낙인 방지 (외부위원 참여)
	선도 프로그램	사랑의 교실(집단상담), 마음나눔교실(치유), 희망동행교실(회복적 접근) 등 운영
검찰 단계	검사 결정 전 조사	보호관찰소 등 전문기관에 환경·품행 조사를 의뢰하여 보호 처분 여부 및 기소유예 조건 결정
	교사 의견 청취	학교폭력 등 학생 사건 시 교사 의견을 반영하여 교화에 적합한 처분 유도
	수사권 조정 반영	혐의 인정 시에만 검찰 송치, 불송치 시 경찰 자체 종결 (검사는 보완수사 요청 가능)
법원 단계	소년보호사건 접수	경찰(축법·우범), 검사, 법원, 통고 등을 통해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
	소년분류심사	위탁 소년의 비행성 진단(심리검사·행동관찰 등)을 통해 법원 심리자료 및 처우 지침 제공
	결정 전 조사/상담조사	신병 미확보 소년 대상 보호관찰소(조사)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상담·교육)에서 실시
	소년보호처분 결정	비공개 심리 진행, 분류심사관 의견 등을 종합하여 1~10호 등 각 소년에게 적합한 처분 결정

출처: 여성가족부(2025). 청소년백과. 에서 요약·정리하여 제시

(3) 보호처분 관련 시설 종류 및 역할

① 청소년회복지원시설(1호)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소년법」상 제1호 처분(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을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¹³⁵⁾ 2010년 가정 기능이 약한 보호소년의 대안 보호를 위해 창원지방법원 주도로 국내 최초 ‘청소년회복센터(사법형 그룹홈)’가 설치되었으며, 민간 주도로 운영이 개시되었다(천종호, 2013, 아동안전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재인용).¹³⁶⁾

2016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으로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

135)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https://www.mogef.go.kr/sp/yth/sp_yth_f014.do

136) 아동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아동이슈] “비행소년과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중요성”. <https://childsafetycommittee.org/jssue/?bmode=view&idx=16260145>

으며, 2019년부터는 국비 지원을 통해 더욱 체계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로이슈, 2018.12.12.:137) 정석철, 2018, 아동안전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재인용).138) 2025년 현재 전국 주요 시도에서 18개소가 운영 중이며(성평등가족부, 2025)139), 이곳은 보호소년이 부과된 처분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관리하고 그 결과를 법원 등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시설 수가 부족하고 울산·부산·경남권에 10개 중 8개가 집중되어 있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시설에서 청소년이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에 힘쓰고 있으나, 운영비 예산 부족, 낙후된 시설, 종사자의 과도한 업무량, 제한된 프로그램 운영, 전문 인력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서정아, 2016).140)

표 III-8. 청소년회복지원시설 현황(2025)

연번	시도	시군구	시설유형	시설명
1	부산	금정구	여	동지청소년회복지원시설
2		북구	여	예람청소년회복지원시설
3		금정구	남	푸른열매청소년회복지원시설
4	광주	북구	남	광주남자청소년회복지원시설
5	대전	서구	남	민족사관청소년회복지원시설
6		중구	여	사계절청소년회복지원시설
7	울산	중구	남	보금자리청소년회복지원시설
8	경기	의정부시	여	꽃마리청소년회복지원시설
9		수원시	여	세나청소년회복지원시설
10		수원시	남	세나청소년회복지원시설
11	경남	창원시	남	살롬청소년회복지원시설
12		창원시	남	소망청소년회복지원시설
13		김해시	남	새빛청소년회복지원시설
14		진주시	남	진주청소년회복지원시설
15	충북	청주시	남	하임청소년회복지원시설
16	전북	익산시	여	바자울청소년회복지원시설
17	제주	제주시	남	이시돌숨비소리청소년회복지원시설
18		서귀포시	여	빌라수산나청소년회복지원시설

출처: 성평등가족부(2025). 청소년복지시설현황_2025년 3월 기준.

137) 로이슈(2018.12.12.). 청소년회복센터 개설 8년만에 첫 국가예산지원.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18121214310886389a8c8bf58f_12

138) 아동안전위원회 홈페이지. [아동이슈] "비행소년과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중요성". <https://childsafetycommittee.org/jssue/?bmode=view&idx=16260145>

139) 성평등가족부(2025). 청소년복지시설현황_2025년 3월 기준.

140) 서정아, 박선영, 이상희(2016).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② 보호관찰소(2-5호)¹⁴¹⁾

소년 보호관찰 제도는 비행 또는 죄를 저지른 소년을 교도소, 소년원과 같이 시설에 구금하는 대신 가정, 학교, 직장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되, 보호관찰관의 지도와 감독을 통해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고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는 선진 형사정책이다.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해야 할 일반 준수사항은 ‘범죄로 이어지는 나쁜 습성을 버리고 선행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순응할 의무’, ‘주거지 이전 또는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시 사전 신고 의무’이다. 한편, 개별 특성에 따라 외출 제한, 정신과 진료, 성실한 학업 유지 등 법원 및 보호관찰심사위원회가 부과한 ‘특별 준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표 III-9. 소년보호관찰 대상 및 기간

근거법령	대상	기간
소년법	보호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강명령(2호) : 100시간 이내 ※ 12세 이상 소년에게 부과 • 사회봉사명령(3호) : 200시간 이내 ※ 14세 이상 소년에게 부과 • 단기보호관찰(4호) : 1년 • 장기보호관찰(5호) : 2년 • 소년원 임시퇴원자 : 6월 - 2년
법무부훈령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급 : 1년 • 2급 : 6월

출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https://www.cppb.go.kr/cppb/717/subview.do>

③ 6호 감호위탁시설¹⁴²⁾

6호 감호위탁시설은 법원에서 지정하며,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아동보호시설 중 아동보호치료시설로 포함되고, 주로 민간단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보호처분 6호를 받은 소년은 6개월(필요시 1년까지 연장 가능) 동안 이 시설에 머물며 생활 지도와 상담, 교육을 받게 된다. 2-5호 처분과 달리 시설 수용이 이루어지지만, 8-10호처럼 공적 시설인 소년원에 송치되는 강제 교정 절차는 아니며 민간이나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보호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6호 시설은 소년원 송치라는 엄격한 처분과 가정 복귀 사이에서 완충지대 역

141)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https://www.cppb.go.kr/cppb/717/subview.do> 에서 발췌

142) 전자소송포털 <https://ecfs.scourt.go.kr/psp/index.on?m=PSP738M03> 에서 정리하여 제시

할을 수행한다. 가정의 돌봄이 부족하거나 사회 적응이 필요한 소년들에게 심리 치료와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재범을 막고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현재 효광원, 나사로청소년의집, 살레시오 청소년센터, 로렘청소년학교, 돈보스코 센터 등 전국 8개 시설들이 이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④ 소년원(8-10호)

소년원은 소년법원에서 송치한 비행 청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실시하는 국가 기관이다. 2025년 현재 전국에 10개의 소년원이 운영되고 있다. 소년원은 사법적 기능보다 교육적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비행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기보다는 국가가 청소년들의 보호자가 되어 상담, 생활지도, 인성교육, 교과교육, 직업능력 개발훈련, 의료·재활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표 III-10. 소년원 현황 및 교육과정

구분	기관(학교명)	대상	교육 과정
수도권	서울소년원 (고봉중고등학교)	9호, 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인성교육, 컴퓨터, 보호자교육
	안양소년원 (정심여자중고등학교)	9호, 10호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인성교육, 컴퓨터, 보호자교육
중부권	대전소년원 (대전대산학교)	7호, 8호, 9호, 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재활교육(7·9·10호) 8호처분자 교육(여성) 분류심사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청주소년원 (청주미평여자학교)	9호, 10호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기 직업능력개발훈련(헤어디자인, 제과, 제빵, 뷰티메디컬) 단기 직업능력개발훈련(예술분장, 커피바리스타)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호남권	전주소년원 (송천중고등학교)	8호, 9호, 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고등학교 교과교육, 특별반(드론) 남성 특수 단기(8호 처분자) 교육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광주소년원 (고룡정보산업학교)	9호, 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능력 개발훈련(자동차 정비, 에너지 설비) 인성 강화교육(소형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분류심사

구분	기관(학교명)	대상	교육 과정
영남권	대구소년원 (음내정보통신학교)	9호, 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학교 교과교육 직업능력 개발훈련(제과제빵, 커피 바리스타) 인성 강화교육(커피 바리스타)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분류심사
	부산소년원 (오륜정보산업학교)	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능력 개발훈련(용접, 제과제빵, 헤어 디자인)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분류심사
강원권	춘천소년원 (신촌정보통신학교)	9호, 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업능력 개발훈련(헤어 디자인) 인성 강화교육(그래픽 디자인, 디저트)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분류심사
제주권	제주소년원 (한길정보통신학교)	8호, 9호, 10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주지역 남성 특수 단기(8호 처분자) 교육 직업능력 개발훈련(제과제빵, 골프 매니지먼트) 인성교육, 컴퓨터, 검정고시, 보호자교육 분류심사

출처: 법무부 범죄 예방정책국 홈페이지. <https://www.cppb.go.kr/cppb/577/subview.do>

소년원에는 소년법원에서 소년원 송치 처분(8-10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뿐만 아니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수용된 청소년이 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14세 미만 비율은 5% 미만으로 낮은 수준이나, 2023년 이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정신질환 소년은 약 3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I-11. 보호소년 수용 현황

연도	전체	성별		연령		정신질환 소년
		남성	여성	14세 미만	14세 이상	
2020	1,637 (100.0)	1,343 (82.0)	294 (18.0)	51 (3.1)	1,586 (96.9)	550 (33.6)
2021	1,361 (100.0)	1,070 (78.6)	291 (21.4)	27 (2.0)	1,334 (98.0)	415 (30.5)
2022	1,520 (100.0)	1,232 (81.1)	288 (18.9)	40 (2.6)	1,480 (97.4)	504 (33.2)
2023	2,092 (100.0)	1,671 (79.9)	421 (20.1)	99 (4.7)	1,993 (95.3)	701 (33.5)

주 1) 보호소년은 7, 8, 9, 10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의미함.

2) 정신질환자는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거나 정신과 진료 후 정신질환 소견이 있는 청소년을 의미함.

출처: 법무부(2021~2024). 범죄 예방정책 통계분석.

⑤ 청소년비행예방센터

학교폭력 및 자연령 소년의 비행 증가에 대응하여 위기 청소년 및 비행 초기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재범 방지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청소년 비행예방 센터를 설립하였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법원과 검찰청에서 의뢰한 비행 청소년 및 학교 등에서 의뢰한 위기 청소년에 대한 비행예방 교육과 부모 등 보호자 교육, 소년부 판사 또는 검사가 의뢰한 비행 청소년 상담조사, 지역사회 청소년에 대한 심리검사 및 상담, 일반학교 학생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청소년 비행 관련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진행한다.

표 III-12.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주요 업무

구분	기관명	설립일	주요업무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부산·대전	2007. 7.	청소년꿈키움센터 - 상담조사 / 결정 전 조사 - 대안교육 / 보호자 교육 - 청소년 심리상담 솔로몬로파크 - 법 교육 및 법 문화 직무연수 -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안산	2007. 7.	
	창원·청주·광주	2007. 7.	- 상담조사
	대구·서울남부·서울북부·인천	2012. 6.	- 결정 전 조사
	순천·전주·춘천	2013. 11.	- 대안교육
	부산동부·울산·수원	2014. 12.	- 보호자 교육
	제주	2016. 5.	- 청소년 심리상담
	천안·의정부	2020. 9.	

주) 부산·대전센터는 청소년꿈키움센터와 솔로몬로파크 기능 병행.

출처: 법무부(2024). 범죄 예방정책 통계분석.

(4) 퇴소 이후 사후 관리

보호처분으로 시설입소 후 출원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출원에는 퇴원과 임시퇴원이 있다. 퇴원을 하게 되는 경우는 3가지가 있는데 보호소년이 22세에 도달한 때, 수용 상한기간에 도달한 때, 교육 성적이 양호하여 교정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인정되어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이다(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¹⁴³⁾

임시퇴원은 교정성적이 양호한 자 중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때 또는 수용 상한기간에 도달하여 6월~2년 이내의 보호관찰 지도를 받게 되는 것을 말한다. 소년들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가정관과 청소년 자립생활관을 설치·운영하며, 취업지원이나 장학금·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도 한다(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¹⁴⁴⁾

현행 법률에서 임시퇴원은 보호관찰과 연계되지만 퇴원의 경우에는 아무런 통제장치가 없이 사회로 복귀하게 되며, 시설생활 중에 진행된 교육·훈련 등이 출원 이후에 지속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2023, 박정일).¹⁴⁵⁾

표 III-13. 소년보호사범 사회복귀지원

항목	내용
가정관 운영	- 1~2일간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손상된 가정 기능 회복 - 전국 소년원에 13개동(26세대) 설치·운영
취업 지원 운영	- 소년원 출원생에 대한 취업 알선 및 지속적인 사후지도 - 소년원별 취업지원협의회 구성·운영
개방처우 실시	- 모범학생에 대한 주말 외출·통근 취업 등 개방 처우 확대로 교정 효과 극대화 및 사회 적응 기회 제공
청소년자립생활관 설치·운영	- 무의탁 소년원 출원생 및 지역 내 취약계층 불우청소년을 위한 가족 같은 분위기의 보금자리 시설 안양·의왕·대전·광주·대구·부산·전주·춘천 (※ (재)한국소년보호협회에서 운영)
장학금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 대학 진학 등 성공 가능 출원생에 대하여 장학금 지급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자립능력이 미약한 출원생에게는 생활안정자금 지원

출처: 법무부 범죄 예방정책국 홈페이지. <https://www.cppb.go.kr/cppb/584/subview.do>

143) 법무부 범죄 예방국 홈페이지. <https://www.cppb.go.kr/cppb/584/subview.do> 에서 발췌

144) 법무부 범죄 예방국 홈페이지. <https://www.cppb.go.kr/cppb/584/subview.do> 에서 발췌

145) 박정일(2023). 소년원 출원절차 및 사후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고려법학*, 111, 133-170.

3. 아동의 범죄 예방과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 활동

1) 굿네이버스 ‘사회적약자통합지원센터’

굿네이버스의 사회적약자통합지원센터는 광주전남지역 내 범죄 관련 사회적 약자의 범죄 피해 예방 및 회복지원을 목적으로 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지역사회 핵심 네트워크(시청, 교육청, 유관기관, 기업 등)와 긴밀한 민관협력을 통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 대상자는 범죄 노출 취약 집중 대상자인 다문화아동, 시설아동, 자립준비청년 등이다.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서 범죄 노출 취약 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사례관리 및 서비스를 지원한다. 다문화아동을 대상으로 진로 교육, 진로 체험, 금융 피해 예방 교육, 장학금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범죄 피해 실제적인 지원을 위해 지역 내 범죄 피해 가정에 긴급생계비 지원과 금융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생계 지원, 심리치료, 금융교육, 법률상담 지원을 한다. 이 외에도 캠페인, 토론회, 컨퍼런스, 지역 행사 등 아동권리 옹호와 범죄 피해 예방 및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지역 의제에 기반한 옹호 활동을 펼치고, 조례 제정을 통해 기관의 운영 근거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표 III-14. 굿네이버스 사회적약자통합지원센터 주요 사업

사업명	세부사업
사회적약자통합지원센터 홍보 및 운영근거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권리옹호 대국민 캠페인 - 온오프라인 홍보(홈페이지 운영) - 아동권리서포터즈단 - 아동위원회(대한민국아동총회) - 지역사회홍보 - 협약식 - 지역행사(걷기대회) - 토론회 - 컨퍼런스 - 조례제정
[1차 예방 서비스] 범죄 노출 취약 집중 아동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아동 학습, 정서 지원 및 학부모 양육 훈련 지원서비스, 역량 강화 캠프 지원서비스(여름/겨울), - 자립준비청년 역량강화, 주거, 신체 및 마음건강 지원서비스

사업명	세부사업
[2차~3차 예방서비스] 범죄 피해 저/고위험군 회복 및 지역사회 지원서비스	- 사회적약자 통합지원단(광주/전남) 외부기관 통합사례회의 - 사회적약자 상담 및 사례관리(온/오프라인) - 사회적약자 통합지원 전문서비스 지원(주거/생계/교육/의료/맞춤형) - 지역사회자원연계 및 모니터링
사회적약자통합지원센터 보호체계 구축사업	- 협력지자체 및 단체관리(목적기금마련 등) - 좋은이웃후원회 - 운영위원회

출처: 굿네이버스 내부자료. 2025 광주지부 연사업계획서.

2) 월드비전 ‘하트힐링’¹⁴⁶⁾

월드비전의 ‘하트힐링’ 사업은 범죄 피해로 인해 상처받은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수용자 자녀들의 회복과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된 복합적 치유 프로그램이다. 이 사업은 2024년 월드비전과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재단법인 아가페, 소망교도소, 사단법인 온을 등 여러 민관기관 간 협업으로 공식 출범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월드비전이 글로벌 및 국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출범한 ‘월드비전 캐피탈캠페인 위원회’를 통해 기획되었으며, 3년간 20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다. 설립 배경에는 사회적·법적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강력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 회복을 돕고자 하는 의지가 자리하고 있다.

활동 내용은 범죄피해 청소년 긴급 생계 및 의료비 지원, 피해자 및 가족 심리 치료·법률 지원, 피해자·수용자 자녀·관계기관 법률 지원 및 공동연구, 수용자 자녀 발굴 체계 구축에 따른 사각지대 피해자 지원, 수용자 자녀 학업과 가족 회복 프로그램 등을 포괄한다. 특히 수용자 자녀의 발굴 및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해 이들의 학업 및 심리적 안정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밖에도 월드비전은 법무부 교정본부와 함께 소외된 수용자 자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봉사단을 구성해 운영하며 전국 4개의 서울, 대구, 대전, 광주지방교정청과 수용자 자녀의 일상 회복을 위해 긴급 위기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수용자 자녀 지원 전문기관인 아동복지실천회 세움과 업무협약을 맺고 심리 상담, 긴급 위기, 가족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 중에 있다. 긴급 위기 지원과 함께 가족 단위 회복을 위한 ‘하트힐링 캠프’ 등 심층적인 프로그램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성과로는 범죄 피해 아동·청소년과 수용자 자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와 지원의

146) 중앙일보(2024.2.1.) 월드비전, 범죄로 상처받은 아이들을 위한 회복지원사업 ‘하트힐링’ 업무협약 체결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6198> 에서 발췌·요약하여 제시

폭 확장, 그리고 프로그램 참여 가족들의 심리적 안정 및 가족관계 회복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계층의 재범률 감소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으며, 관계 기관과의 연계 강화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였다.

3) 푸른나무재단(청소년폭력예방재단)¹⁴⁷⁾

푸른나무재단은 1995년 학교폭력으로 아들을 잃은 한 아버지의 절절한 경험에서 출발해, 우리 사회 최초로 학교폭력 문제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한 청소년 NGO이다. 이후 학교폭력 예방·상담·치유를 축으로 청소년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비폭력 문화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며 활동 영역을 넓혀 왔다.

푸른나무재단에서 하고 있는 활동은 첫 번째,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상담·치유 활동이다. 재단은 본부와 전국 여러 지역 지부를 통해 위기 상담, 중재상담, 현장 긴급출동, 분쟁 조정 등을 수행하며, 연간 수만 건에 이르는 상담과 지원을 제공해 왔다. 대표적으로 전국 어디서나 연결되는 학교폭력 상담전화 1588-9128(‘구원의 팔’)을 운영해,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있다. 이 상담 체계에는 전문상담원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활동한 자원봉사 상담자들이 참여해, 청소년과 가족이 폭력 경험에서 벗어나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적 지지와 실질적인 대처 방안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두 번째,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을 사전에 줄이기 위한 예방교육과 실태조사, 연구 활동이다. 재단은 20년 넘게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해, 폭력의 양상과 변화 추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정책과 학교 현장에 필요한 근거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삼성 등 기업과 협력하여 ‘푸른코끼리’ 사업, ‘사이좋은 디지털 세상’ 캠페인 등을 추진하며, 디지털 시민성 교육,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 또래지킴이 양성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청소년이 온라인·오프라인에서 타인을 존중하고 폭력에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학교·지역사회와 연계해 교육을 확산시키고 있다.

세 번째, 제도 개선과 인식 변화를 통한 사회변화 활동이다. 푸른나무재단은 학교폭력 관련 법·제도 제정과 개선 과정에 참여하며, 학교폭력 SOS지원단 활성화, 정책 제안, 공청회 및 포럼 개최 등을 통해 공교육과 사법·복지 체계 안에서 청소년이 더 잘 보호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힘써 왔다. 또한 교육부, 경찰청 등과 업무협약을 맺어 학

147) 푸른나무재단 홈페이지. <https://btf.or.kr/index.asp> 에서 발췌·요약하여 제시

교·경찰·지역사회가 함께 대응하는 민관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인성교육·갈등조정·회복적 정의 등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공동체 회복과 비폭력 문화 확산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학교폭력 문제를 단순한 개인 갈등이 아니라 구조적·문화적 문제로 보고, 사회 전체가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에는 틱톡과 푸른나무재단이 구축한 청소년 안전 민간 핫라인¹⁴⁸⁾은 위기 청소년 발견 시 플랫폼과 NGO가 직접 연계해 신속한 삭제, 상담, 법률·수사 연계까지 가능한 글로벌 협력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 청소년이 틱톡에서 딥페이크, 사이버 명예훼손, 신상 유출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리소스 페이지의 공식 핫라인을 통해 한 번의 클릭으로 재단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신고·삭제, 상담, 법률 지원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원스톱도탈지원 체계가 가동된다.

틱톡과 푸른나무재단이 함께 주최한 ‘2025 틱톡 APAC 온라인 안전 서밋’에는 아시아태평양 14개국 전문가들이 참여해 AI 딥페이크, 온라인 성착취 등 급증하는 청소년 안전 이슈에 대해 논의하며, 기술 기업과 NGO가 협력하는 새로운 다중 협력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협력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실제 플랫폼 운영과 정책에 적극 반영되는 실질적이며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4) 영국 ‘Child First’¹⁴⁹⁾

영국의 ‘Child First’ 프로그램은 2019년 스윈던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작되었다. Child First 접근법의 일환으로, 비행 청소년들은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고 자신이 가진 강점을 발전시킬 기회를 얻으며, 자신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청소년 사범을 감독하는 청소년 사범 위원회가 모든 지역사회에서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방침이다.

소년 비행자들을 구금하는 대신 청소년 지도자들의 감독 아래 비행 청소년들은 바리스타 훈련을 받고, 고객 서비스와 팀워크 같은 기술을 배우게 한다. 이 방식은 청소년을 범죄자가 아닌 먼저 아이로 대하고, 그들이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획을 직접 만드는 데 참여하도록 한다. 이것은 청소년들의 정체성 변화를 격려하여 재범을 예방하려는 새로운 접근 방식이다.

148) 약사공론(2025.11.18.). 틱톡-푸른나무재단 손잡고 'K-청소년안전' 글로벌 모델 확산 나선다 <https://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265261&category=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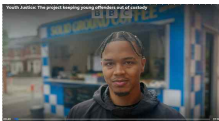
149) BBC(2025.10.8.). The scheme keeping young offenders out of custody. <https://www.bbc.com/news/articles/c98dz5l7pevo> 에서 발췌·요약하여 제시

스윈던은 갱단 관련 청소년 폭력, 범죄로 고통받았으며, 한때 영국 내에서 18세 미만 구금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였지만 현재는 전국 평균 이하로 떨어졌고 재범률도 감소하고 있다. 청소년들을 구금소 밖에 머무르게 하면서 지역사회에서 이들을 다루려는 집중적인 노력이 있었고, 이는 갱단과 범죄가 빈번한 스윈던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

이 서비스는 청소년 사법 서비스(Youth Justice Service) 산하에서 시행되며, 다기관 협력 모델로 경찰, 사회복지기관, 법원, 교육기관 등 여러 공공기관이 함께 청소년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해 협력한다. 또한,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상담, 보호처분, 재활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예산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청소년 사법 위원회(Youth Justice Board)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영국 Youth Justice Service와 협력하는 주요 민간단체로는 'Alliance for Youth Justice (AYJ)'가 있다. AYJ는 영국과 웨일즈의 75개 이상의 단체를 모아 청소년 사법 체계에서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를 옹호하고 정책 변화를 촉진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연합체이다. 영국 청소년 사법 서비스와 협력하는 민간단체들은 다수의 비영리 단체와 연합체 형태로 청소년 권리 옹호와 재활을 지원하고 정부 기관과 협업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스윈던 지역 청소년 키카의 사례**



키카는 어린 시절 일부를 보호 시설에서 보냈으며, 자신이 '범죄가 많은 매우 빈곤한 지역'에서 자람. 스윈던 청소년 사법 서비스에 처음 참석하러는 명령을 받았을 때, 키카는 "여기에 있는 매 순간이 정말 싫었다"고 함.

"저는 이전 서비스들로부터 단지 '사례'로 취급받았을 뿐, 아이로서는 취급받지 못했어요. 이 사람들이 왜 내가 여기 있는지, 내 삶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진정으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신경 쓰지 않았던 것처럼요."

키카가 인생을 바꾸는 데 도움을 준 핵심 활동 중 하나는 몇 년 전 감옥에 다녀온 시인 겸 작가인 레이디 언체 인드와 함께한 창작 글쓰기 수업이었다고 말함. 키카가 세션의 일부로 쓴 시는 책에 실렸고, 스윈던 도서관에 전 시됨.

"거기에 들어가서 그것을 보았을 때, 나는 이거 멋지다, 내가 뭔가 해내고 있구나 생각했어요"
"이것이 내가 인생에 대해 느껴야 할 방식이에요. 내가 저지른 일들 때문에 항상 고통스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나는 감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진실을 말해 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감옥이 그냥 휴가라고 거짓말을 계속했어요"

키카는 지금 스윈던 청소년 사법 서비스 에서 또래 멘토로 일하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청소년을 돕고 있음. 키카는 게임이 없었더라면 감옥에 있었을 것이라고 회상함.

"스카이다이빙, 하이킹을 하고 이 지구의 봉우리를 보고 싶어요 - 다음 싸움을 찾을 곳만 찾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그런 짓은 하고 싶지 않아요"

5) 영국 'Skill Mill'¹⁵⁰⁾

The Skill Mill은 영국(United Kingdom)에서 운영되는 사회적 기업이다. 구체적으로 잉글랜드(England)와 웨일즈(Wales)의 8개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수행하며, 뉴캐슬(Newcastle)에서 2014년 시작해 2019년부터 더럼(Durham), 리즈(Leeds), 노팅엄(Nottingham), 로치데일(Rochdale), 서리(Surrey), 웨스트서식스(West Sussex), 크로이던(Croydon) 등으로 확장되었다. 이 지역들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환경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청소년 전과자 지원 활동을 전개한다.

이 기업의 주된 목적은 청소년 재범률을 낮추고 이들의 사회 재통합을 촉진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환경 관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유급 일자리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참가자들의 자기존중감을 회복하고 노동 시장으로의 복귀를 지원한다. 주요 활동으로는 6개월간 지속되는 유급 근무 프로그램이 있으며, 한 팀은 4명의 참가자와 1명의 감독자로 구성된다. 참여자들은 하천과 원예 환경을 관리하는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며, AQA Employability Skills Level 2와 같은 공식 자격증 취득 기회도 제공받는다. 또한, 맞춤형 멘토링과 심리 상담을 받아 사회적응을 돕는다.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The Skill Mill은 뉴캐슬에서 시작하여 8개 지역으로 확장되었으며 사회적 영향 채권(Social Impact Bond, SIB) 방식을 활용해 운영되고 있다. 이 방식은 성과에 기반한 자금 조달로, 83%의 목표 성과를 달성하고 납세자 비용을 상당히 절감하는 효과를 보였다. 참가자 91.3%가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The Skill Mill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 사회의 환경 보호 및 녹색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전과자를 전문적으로 고용함으로써 사회적 인식 개선과 청년 재범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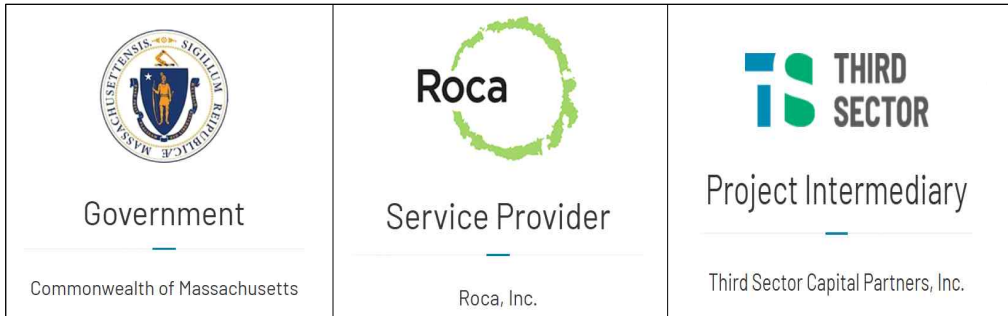
 <p>IMPACT</p> <p>The Skill Mill has employed 362 young people in England over the past 9 years - 27 have been re-convicted. 20 have been young women with zero re-convictions.</p> <p>74% RE-EMPLOYMENT RATE WITH SKILL MILL</p> <p>72% RE-EMPLOYMENT RATE WITHOUT SKILL MILL</p>	<p><i>The Skill Mill은 젊은이들에게 단순히 두 번째 기회, 아니 첫 번째 기회를 주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청소년 사범과 고용에 대한 우리의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의미 있는 일은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우리 재범률이 11회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은 청소년범의 전국 평균 63%에 비해 10% 미만이라는 사실은 이 접근법이 효과적임을 증명한다.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계속 투자하고, 그들을 지원하며, 그들이 바뀔 자격이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 David Parks OBE, The Skill Mill 설립자.</i></p>
--	--

150) <https://www.theskillmill.org/> 에서 발췌 · 요약하여 제시

6) 미국 ‘남자 청소년 재범 방지 SIB 사업’¹⁵¹⁾

미국 매사추세츠주는 효과적인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남자 청소년의 재범률을 낮춰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남자 청소년의 평균 재범률이 26.7%, 여자 청소년의 평균 재범률이 4%로, 남자 청소년의 재범률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8배 가까이 높았다. 이들은 전과기록, 마약사용, 고등학교 중퇴 등의 이유로 취업에 실패해 사회에 편입되지 못한 채 결국 생계를 위해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 이에 2012년, 매사추세츠주는 교육 및 취업 지원을 통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편입할 수 있도록 남자 청소년 재범 방지 SIB 사업을 기획하였다.

해당 사업을 위해 매사추세츠주가 성과보상자로 나섰으며, 투자자로는 골드만삭스, 크레디지재단 등 다양한 기관들이 참여하였다. 모집된 투자금은 2,700만 달러(한화 약 312억 원)로, 사업 개시 시점 기준 미국 SIB 사업 투자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금이 모집되었다. 운영기관은 써드섹터캐피탈파트너즈, 사업 수행기관은 로카가 선정되었다. 사업 대상자는 매사추세츠주 내에 있는 보스턴, 첼시, 스프링필드에 거주하며, 보호관찰 중이거나 성인이 되어 소년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만 17~23세 남자 청소년 929명이다. 특히 대상자 전체의 약 90%는 흑인·히스패닉·라틴계 청소년이다.



이들의 재범률 감소와 안정적 사회편입을 위해서는 생계유지를 위한 취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행기관인 로카는 사업대상자의 취업 지원과 사회편입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이 사업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수행기관이 직접 길거리로 나가거나 경찰서와 법원을 방문하고, 재범 위기에 놓인 남자 청소년들 가정을 찾아가는 등 발로 뛰어가며 사업 대상자를 모집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모집하게 된 이유는 사업대상자에 해당하는 남자

151) <https://panimpact.kr/sibmag-case-202101/> 에서 발췌·요약하여 제시

청소년들이 해당 사업의 존재 자체도 모를뿐더러 대부분 계속된 취업실패와 잦은 수감생활로 인해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수행기관의 노력 덕분에 2019년 사업 평가 결과는 긍정적이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재범 위기 남자청소년 1,246명이 사업에 참여했으며, 이들 중 33% 미만이 3년 내 재범하였다. 다른 교정시설에 있는 남자청소년 절반가량이 재범하는 것에 비해 약 20%나 낮은 수치이다. 2019년에는 904명의 사업대상자가 당시 수행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1년 이상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 중 무려 97%는 1년 이상 그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 또한 사업대상자 중 278명이 취업에 성공했으며, 이 중 64%가 1년 이상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184명은 전환 고용(transitional employment) 형태로 취업하여 실무 경험을 빠르게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인지행동이론(CBT) 교육과정에 참여한 대상자의 경우 참여하지 않은 이들보다 프로그램 참여 지속율과 참여도가 모두 훨씬 높았다.

매사추세츠주는 매년 교도소 수감 유지에만 인(人)당 5만 5천 달러(약 6,100만 원)라는 예산을 쓰고 있다. 만일 수감인원이 100명이라면 수감 유지비용만 61억 6천만 원이 소요되는 것이다. 매사추세츠주는 남자 청소년 재범 방지 SIB 사업을 통해 재범률을 감소시켜 사회비용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 소결

우리나라는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제4차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본계획을 통해 피해자 지원 체계를 고도화하고 있으며, 굿네이버스·월드비전·푸른나무재단 등과 같은 민간 단체는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긴급지원, 심리·법률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공공 체계를 보완하고 있다. 가해 아동에 대해서는 「소년법」 상의 보호처분 체계와 법무부의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통해 교정·교화를 강화하고, 재범 방지 인프라 확충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첫째, 피해 지원의 분절성과 아동기 특수성 반영의 미흡이다. 아동 피해자 지원은 범죄 유형(아동학대, 성범죄 등)에 따른 개별법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아동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통합 지원이 부족하다. 또한 정책과제 추진의 지연과 성인 중심의 사법 환경은 아동이 사건에서 소외시키고 반복 진술에 노출시키는 등의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지원이 긴급 구호와 단기 지원으로 이루어져 있어 성인기 이행까지 이어지는 장기적인 지원은 미흡하며, 아동의 10명 중 약 7명이 가정, 학교, 지역사회,

온라인 환경에서 피해를 경험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¹⁵²⁾ 전반적인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둘째, 가해 소년의 회복, 재범 방지를 위한 인프라 및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하다. 우선, 증가하는 소년보호사건 대비 소년원, 1호·6호 시설의 수가 부족하다. 또한, 각 시설의 관리·감독 부처가 다르며, 특히 1호·6호 시설은 민간시설 운영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가 지원보다는 민간의 자체적인 역량에 따라 회복프로그램의 질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 큰 문제는 시설 퇴소 이후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으로, 시설 내에서 이루어진 교육·훈련 등의 성과가 단절된다. 보호소년의 약 33.5%가 정신질환 소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심리·정신건강 지원의 연속성 확보는 더욱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몇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영국의 'Child First'와 같이 아동 우선 원칙을 구현하는 것이다. 범죄소년을 '범죄자'가 아닌 성장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 시각을 전환하고, 스스로 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정체성을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강점 기반 프로그램을 통해 회복적 소년사법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영국과 같이 경찰, 사회복지기관, 법원, 교육기관, 다수의 민간단체가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경제적 자립과 연계된 재범 방지 모델의 확장이다. 영국의 'Skill Mill'과 미국의 사회성과연계채권(SIB) 사업은 유급 일자리, 직무 경험, 멘토링을 결합한 고용 연계형 교정 모델로, 국내에도 이와 같은 방식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는 소년원 및 1호·6호 보호처분 시설 내에서 학업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한편, 훈련을 통해 습득한 기술과 경험이 지역사회 내 실질적인 일자리 경험으로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생애주기를 고려한 통합 사례관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긴급지원·심리치료·학업복귀 등의 지원이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학교·사법·복지 기반 자원을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피해와 가해를 동시에 아우르는 통합적 사정(assessment)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동이 피해자로 발견되든 가해자로 발견되든, 초기 개입 단계에서 두 경험의 중첩 가능성을 함께 탐색하는 표준화된 사정 도구와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경찰·검찰·법원·학교·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하기보다, 중첩 사례를 공유하고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다기관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152) 11장의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지수 데이터 분석 결과 참조

아동의 범죄 대응은 단기적 처벌이나 일시적 개입으로 끝나지 않는다. 피해 아동에게는 온전한 일상 회복을, 가해 소년에게는 낙인을 최소화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실질적 경로를 마련하고, 모든 아동을 아우르는 포괄적 안전망의 실현을 지향해야 한다. 이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력, 민간의 실천적 노력이 있을 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IV

아동의 피해-가해 중첩 현상에 대한 사례연구

- 보호처분 아동의 사례로 본 피해에서 가해로의 전이 과정 -

1. 사례연구 개요
2. 사례연구 결과
3. 참여자별 피해-가해 전이 맥락
4. 소결

G O O D N E I G H B O R S

Ⅳ. 아동의 피해-가해 중첩 현상에 대한 사례연구

- 보호처분 아동의 사례로 본 피해에서 가해로의 전이 과정 -

1. 사례연구 개요

1) 본질적 사례연구의 선정

본 연구는 아동의 피해-가해 중첩 현상의 전이 과정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질적 연구 방법 중 본질적 사례연구(intrinsic case study)를 채택하였다. 사례연구는 연구참여자들을 둘러싼 내부적·외부적 역동과 함께 ‘경계 지어진 체계(bounded system)’가 실제로 어떻게 모습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Stake, 1995).¹⁵³⁾ 따라서 보호 처분 아동이 피해에서 가해로의 전이되는 과정을 심도 있게 파악하는 데 적합하다. 특히 본질적 사례연구는 사례 그 자체가 일차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사례 자체가 비 일상적이거나 독특한 상황을 보여주는 경우에 효율적인 연구 방법이다(공수연, 양성은, 2014).¹⁵⁴⁾

또한, Stake의 본질적 사례연구 접근법은 현상과 맥락 간의 상호 관계를 고려한다는 점에서 전체론적 특성을 지니며, 해석적 관점을 취하기 때문에 보호처분 청소년의 범죄 피해와 가해 경험을 맥락 속에서 의미화할 수 있다.

본질적 사례연구의 목적은 특정 사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생생한 묘사를 통해 사례가 지닌 독특함, 특별한 상황, 맥락 및 의미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의 제시 방식은 단계적으로 구성되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첫째, 연구 서론에서는 사례의 배경과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둘째,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방법론

153) Stake, R. E. (1995).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Sage.

154) 공수연, 양성은. (2014). 중국국적 결혼이주여성들의 취업준비 경험에 대한 과정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2(1), 133-150.

서술을 통해 연구목적과 방법적 쟁점을 명확히 한다. 셋째, 연구결과에서는 사례와 사례 간의 맥락을 기술하며, 넷째, 연구결과의 전개 과정에서 중심주제들을 제시한다. 다섯째, 도출된 주제들에 관한 상세한 논의를 통해 사례의 의미와 특징을 분석하고, 여섯째, 결론 및 논의에서 연구의 주장을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에서 사례에 대한 그림, 삽화 등을 통해 연구참여자의 생활세계를 생생하게 묘사함으로써 연구의 전체적 이해를 돕는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본질적 사례연구의 특성과 방법론적 장점을 활용하여, 아동의 피해-가해 전이 과정을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보호처분 아동의 피해 경험과 가해 경험을 단순한 행동적 사건으로 환원하지 않고, 사례가 놓인 사회적, 심리적 맥락과 아동의 내적 경험을 총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보호처분 아동의 피해와 가해의 전이과정의 구조를 정교하게 해석할 수 있다.

2) 연구참여자

질적연구는 특정 현상의 보편적 확률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맥락에서 적용 가능한 의미 패턴과 해석적 구조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양적연구에서 요구되는 통계적 일반화보다는, 참여자 경험의 밀도, 맥락적 적합성, 해석의 타당성을 통해 연구의 일반화 가능성이 평가된다. 특히 질적연구에서 중요한 기준인 데이터 포화(data saturation)는 분석 과정에서 더 이상 새로운 주제나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며, 적절한 참여자 수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Guest 외(2020)¹⁵⁵⁾는 동질적 표본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 6-7개의 인터뷰만으로도 주요 주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보수적인 기준에서는 11-12개의 인터뷰가 적정하다고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경우, 보호처분 아동 12명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충분한 데이터 포화에 도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1호에서 6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은 만 14-18세 아동¹⁵⁶⁾ 12명을 대상으로 본질적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참여자 수 외 연구참여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이 피해와 가해가 중첩되는 과정을 탐색하기에

155) Guest, G., Namey, E., & McKenna, K. (2020). A simple method to assess and report thematic saturation in qualitative research. *Plos one*, 15(5), e0232076.

156)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14-18세이며, 본 보고서에서는 아동으로 통칭한다. 18세는 아동복지법상의 아동 연령(만 18세 미만)을 웃도나, 이들이 고등학교 재학 연령에 해당한다는 점, 소년법상 소년보호사건 대상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무엇보다 본 연구의 목적이 아동기 피해 경험이 현재 가해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전이 과정을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데 있으므로, 생애사적 연속성을 반영하고자 함이다. 나이가 현재의 법적 지위를 넘어 이들에 대한 복지적인 관점과 아동 권리 측면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기 위함이다.

적합한 연구집단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호처분 청소년’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선행연구에 따르면(Miley et al., 2020¹⁵⁷), Mulford et al., 2018¹⁵⁸), Zimmerman et al., 2017)¹⁵⁹) 아동·청소년기 피해 경험은 이후 가해 행동으로 전이될 가능성과 구조적 연관성을 지니며, 특히 지속적이고 높은 수준의 폭력 노출은 이후 비행과 범죄 지속의 위험을 현저히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된 바 있다(Mulford et al., 2018).¹⁶⁰)

둘째, 본 연구에서 보호처분 1호부터 6호까지의 아동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보호처분은 「소년법」에 근거하여 아동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성격·행동을 교정하기 위해 법원이 결정하는 일련의 조치로서, 1호부터 10호까지 다양한 수준의 처분으로 구성된다(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 구체적으로 1호는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감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는 ‘복지시설 또는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이며, 7호는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부터 10호까지는 기간의 차이를 두고 소년원 송치를 명하는 처분이다. 이 중 1호부터 6호까지는 아동이 사회 내에서 생활을 유지하거나 비교적 낮은 강도의 시설에서 생활하며, 행동 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경미하거나 중간 수준의 보호처분으로 분류된다. 특히 6호의 시설 위탁은 일시적 분리 조치이긴 하나, 7호 이상의 의료보호시설 또는 소년원 송치와 비교할 때 법적·물리적 강제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반면, 7호는 치료 목적의 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이상의 처분은 소년원 송치로 이어져 생활환경의 통제 수준과 처분의 강도가 현저히 증가한다. 이러한 점에서 7호 이상 처분을 받은 아동은 일상생활 조건, 통제환경, 관계경험, 생활세계가 1-6호 처분 아동과 크게 다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호처분 중에서도 사회 내 생활을 유지하거나 낮은 강도의 시설 처분을 받은 아동이 피해·가해 경험이 교차하는 과정을 탐색하기에 적절한 연구대상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를 연구참여자 선정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연구참여자의 연령을 만 14-18세로 한정하였다. 이는 만 14세 이상부터 형법상 형사책임이 인정되어 법적으로 범죄소년 범주에 포함되는 연령대이기 때문

157) Miley, L. N., Fox, B., Muniz, C. N., Perkins, R., & DeLisi, M. (2020). Does childhood victimization predict specific adolescent offending? An analysis of generality versus specificity in the victim-offender overlap. *Child Abuse & Neglect*, 101, 104328.

158) Mulford, C. F., Blachman-Demner, D. R., Pitzer, L., Schubert, C. A., Piquero, A. R., & Mulvey, E. P. (2018). Victim offender overlap: Dual trajectory examination of victimization and offending among young felony offenders over seven years. *Victims & Offenders*, 13(1), 1-27.

159) Zimmerman, G. M., Farrell, C., & Posick, C. (2017). Does the strength of the victim-offender overlap depen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ictim and perpetrator? *Journal of Criminal Justice*, 48, 21-29.

160) Mulford, C. F., Blachman-Demner, D. R., Pitzer, L., Schubert, C. A., Piquero, A. R., & Mulvey, E. P. (2018). Victim offender overlap: Dual trajectory examination of victimization and offending among young felony offenders over seven years. *Victims & Offenders*, 13(1), 1-27.

이다. 실제로 2023년 범죄소년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주요 비행·범죄 행위가 만 14-16세에 높은 비중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확인된다(대검찰청, 2024).¹⁶¹⁾

또한, 최근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전체 범죄자 중 범죄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여성가족부, 2024.5.28.일자 보도자료)¹⁶²⁾, 해당 연령대 청소년의 비행·위험행동, 피해·가해 경험 구조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계적·법적 근거에 기반하여, 본 연구는 만 14-18세 아동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넷째,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 만큼, 연구 참여 과정에서 정서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연구참여자 선정 기준을 설정하였다. Alessi와 Khan(2022)¹⁶³⁾의 연구절차를 참고하여, 기관 실무자의 협조를 통해 아동의 현재 심리·정서 상태를 사전 확인하여 잠재적 위험요인이 있는지 검토하였다. 면담 시작 전 간단한 확인 절차를 통해 아동이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지 재확인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서적 불편감이나 심리적 위험이 예상되는 아동은 연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각 면담 종료 이후에도 참여 아동의 정서 상태를 당사자에게 질의하고 이에 대한 안정성을 확인받았다.

한편, 연구참여자는 만 14-18세 아동이므로, 연구 참여 동의 절차는 아동의 자발적 의사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만 인정하였다. 모집 과정에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아동 중, 아동이 직접 참여 의사를 구두로 밝히고 법정대리인이 이에 대해 구두로 동의한 경우에 한 해 연구참여자로 포함하였다. 아동 또는 법정대리인 중 한 쪽이라도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아동은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3)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25년 10월부터 11월까지 보호처분을 받은 만 14-18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 중심의 질적 자료수집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참여자는 「소년법」에 따라 1호부터 6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 12명으로, 파일럿 조사 2명과 본 조사 10명으로 구성되었다. 연구참여자는 소년보호기관 및 유관기관의 협조(그림 IV-1)를 통해 모집하였으며, 기관 추천 방식을 통해 연구참여자를 확보하였다.

161) 대검찰청(2024). 범죄분석통계: 소년범죄자 연령별 분포 (14~18세 기준) 및 범죄분석.

162) 여성가족부(2024.5.28.일자 보도자료). 2024 청소년 통계.

163) Alessi, E. J., & Kahn, S. (2022). Toward a trauma-informed qualitative research approach: Guidelines for ensuring the safety and promoting the resilience of research participants. *Qualitative Research in Psychology, 20*(1), 1-34.

자료수집은 연구참여자의 자발적 동의와 법정대리인의 서면 동의를 전제로 진행되었으며, 모든 면담은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IRB P01-202508-01-054)절차를 거친 후 실시되었다. 면담 시작 전 연구자는 연구의 목적과 절차, 참여 중단 가능성, 녹음·녹화 여부, 개인정보 보호 방안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연구참여자가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였다.

표 IV-1. 연구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

구분	성별	연령	시설구분	학업상태	보호처분이력
#1	남	18	1호(청소년회복지원시설)	고등학교 재학 중 학업중단(자퇴)	1, 2, 5호, 재처분
#2	남	14	1호(청소년회복지원시설)	중학교 재학	1, 2, 4호→ 1, 2, 5호 처분변경
#3	남	18	1호(청소년회복지원시설)	중학교 졸업 후 학업중단 (고졸 검정고시 합격)	1, 2, 3, 4, 5호 처분
#4	여	14	6호(아동보호치료시설)	중학교 재학	1, 2, 4호 처분
#5	여	17	6호(아동보호치료시설)	중학교 졸업(검정고시) 후 학업중단	1, 2, 4호 처분, 재처분
#6	여	15	6호(아동보호치료시설)	중학교 재학	1, 2, 5호 처분
#7	여	15	6호(아동보호치료시설)	중학교 재학	1, 2, 4호 처분, 5, 6호 재처분
#8	여	17	1호(청소년회복지원시설)	고등학교 재학 (학업숙려제 진행중)	1, 5호 처분, 1, 2, 3, 4호 재처분
#9	여	17	1호(청소년회복지원시설)	고등학교 재학	1, 2, 4호 처분
#10	여	16	1호(청소년회복지원시설)	고등학교 재학 중 학업 중단	1, 5호 처분, 1, 4호 재처분. 1, 4호 재재처분
#11	남	16	6호(아동보호치료시설)	고등학교 재학 중 학업중단(자퇴)	5, 6호 처분
#12	남	15	6호(아동보호치료시설)	중학교 재학	5, 6호 처분

면담은 반구조화된(semi-structured)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Krueger와 Casey(2000)¹⁶⁴가 제시한 도입 질문, 전환 질문, 주 질문, 마무리 질문의 구조를 적용하여 진행되었다. 연구자는 개방형 질문을 활용하여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시간적 흐름과 맥락 속에서 서사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솔라리움2 카드를 활용

164) Krueger, R. A., & Casey, M. A. (2000). *Focus groups: A practical guide for applied research* (3rd ed.). Sage Publications.

하여 참여자들과 라포 형성의 도구로 사용하고, 과거와 현재의 자신의 상황과 ‘자아’에 대해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표현 방식을 활용하여 아동의 경험이 보다 풍부하게 드러날 수 있었다.

표 IV-2. 면담 회차별 주요 면담 내용

구분	면담 1회차 (피해 경험 중심 탐색)	면담 2회차 (가해 행동과 전이 과정 탐색)
목적	아동과의 신뢰 형성 및 피해 경험 확인	본인의 가해 행동 경험 회고
면담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과 감정 공유를 통한 라포 형성 (인터뷰 동의 및 설명, 현재 근황, 일상 질문, 현재의 주거와 상황) - 범죄에 대한 인식 - 피해 경험(피해 경로, 내용과 방법, 감정, 문제 해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포 형성 - 가해 경험 (가해 동기, 가해의 내용과 방법, 가해로 인한 처우 이력, 가해 행동 후 감정 등) - 효과적인 개입방안 제안 - 정책 제안
방법	반구조화된 면담, 필요시 그림, 시, 짧은 글 작성	
소요 시간	회당 약 60분	

면담 장소는 연구참여자가 신체적·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대면 면담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청소년복지시설 내 상담 공간 등에서 진행하였으며, 상황과 연구참여자의 선택에 따라 비대면 면담(Zoom)을 병행하였다.

모든 면담은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녹음(대면) 또는 녹화(비대면)되었으며, 수집된 음성 및 영상 자료는 연구 분석 목적에 한해서만 활용되었다. 녹음·녹화 자료는 공동연구자가 전사를 담당하였고, 1차 자동 전사 후 녹음 파일을 반복 청취하며 정확성을 확인·보완하였다. 전사 과정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인명, 지명, 시설명 등 식별 가능한 정보는 가명 처리하였다

또한 면담 과정에서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비언어적 반응, 정서 변화, 침묵이나 망설임과 같은 표현을 현장 노트에 기록하여, 면담 자료를 보완하는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자료수집 과정을 통해 본 연구는 아동의 피해 경험과 가해 경험, 그리고 그 전이 과정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맥락을 다층적으로 확보하고자 하였다.

표 IV-3. 면접 절차

면접진행	범 주	면접 내용
도입질문	라포형성	· 인사 및 소개 · 인터뷰 동의 및 설명
		· 현재 근황, 일상 질문 · 현재의 주거와 학업상황
전환질문	인식	· 범죄에 대한 인식
주질문	피해 경험	· 피해의 경로
		· 피해의 내용과 방법
		· 피해 후 감정
		· 피해 후 문제해결
	가해경험	· 가해 동기
		· 가해의 내용과 방법
		· 가해로 인한 처우이력
		· 가해 행동 후 감정
마무리질문	개입방식	· 효과적인 개입방안 제안
	대안방안	· 정책제안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질적 자료는 면담 녹취록과 현장 노트를 중심으로 분석되었으며, 자료분석은 Lichtman(2006)¹⁶⁵⁾이 제안한 질적 자료분석의 세 가지 구성요소(three C's of data analysis: codes, categories, concepts)를 본 연구의 목적과 자료 특성에 맞게 적용하여 단계적으로 수행되었다. 분석 과정은 총 5단계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자료의 의미를 점진적으로 추상화하면서도 사례의 맥락과 구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이다.

165) Lichtman, M. (2006). *Qualitative research in education: A user's guide*. Sage Public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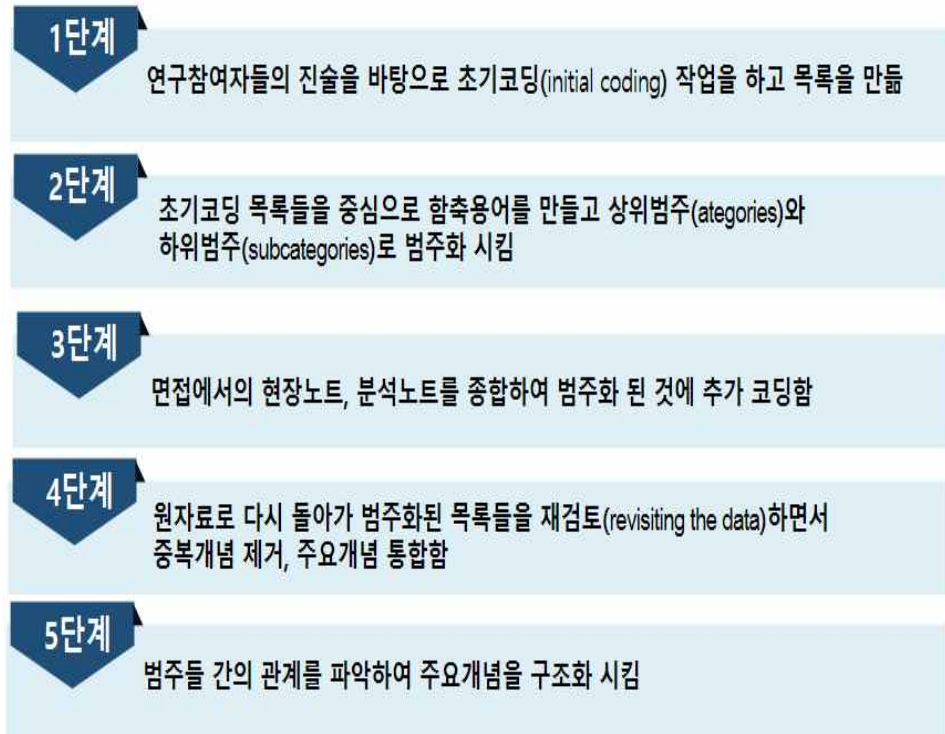


그림 IV-2. 아동의 피해-가해 전이과정 5단계 분석 절차

첫 번째 단계에서는 모든 면담 녹취록을 반복적으로 정독하며 자료에 대한 전반적 이해와 친숙화 과정을 거쳤다. 이 단계에서 연구자는 아동의 진술을 시간적 흐름과 경험의 맥락 속에서 파악하고, 피해 경험과 가해 경험, 그리고 그 전이 과정과 관련된 의미 있는 진술에 주목하였다. 면담 과정에서 기록한 현장 노트와 비언어적 반응 역시 함께 검토하여, 텍스트에 드러나지 않는 정서적 맥락을 보완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녹취록의 문장, 단락, 의미 단위를 중심으로 개방 코딩(open coding)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아동의 언어를 가능한 한 그대로 유지하여 코드화하였으며, 피해의 경로, 피해 이후의 감정 반응, 가해 행동의 동기, 가해 이후의 인식 변화 등 연구 목적과 관련된 경험 단위를 중심으로 초기 코드를 도출하였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미를 지닌 진술은 반복 비교를 통해 정교화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도출된 초기 코드들을 비교·통합하여 범주(categories)로 구성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개별 사례 내에서 나타나는 경험의 흐름뿐 아니라 사례 간 공통성과 차이를 함께 고려하여, 피해 경험의 누적 양상, 정서적 반응의 변화, 행동의 외현화

방식, 전이 과정에서의 맥락적 요인 등을 중심으로 범주를 조직하였다. 범주화 과정은 지속적인 비교 분석(constant comparison)을 통해 이루어졌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범주 간의 관계를 탐색하며 개념(concepts) 수준으로 분석을 확장하였다. 이 단계에서 연구자는 범주들이 어떠한 맥락 속에서 연결되고 전개되는지를 검토함으로써, 피해 경험이 가해 행동으로 전이되는 과정의 구조적 특성과 의미를 해석하였다. 특히 아동의 주관적 인식, 정서적 반응, 환경적 맥락이 상호작용하는 양상에 주목하여 사례의 전체적 흐름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Stake의 본질적 사례연구 접근에 따라, 도출된 개념과 이슈를 중심으로 사례 서사(case narrative)를 구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는 개별 사례의 독특성과 맥락을 유지하면서도, 피해-가해 전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조직하였다. 분석 결과는 사례의 맥락 기술, 이슈의 전개, 종결 삽화 등의 형태로 제시하여, 아동의 경험이 지닌 의미와 특수성이 드러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자료분석 절차를 통해 본 연구는 아동의 피해 경험과 가해 경험을 단절된 사건으로 보지 않고, 시간과 맥락 속에서 연결된 전이 과정으로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개별 사례에 대한 심층적 해석을 통해 피해-가해 중첩 현상의 구조적 특성과 의미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5) 연구절차의 타당화 검증과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보호처분을 받은 만 14-18세 아동을 대상으로 피해-가해 중첩 현상의 전이 과정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질적 사례연구로서, 연구 전 과정에서 연구절차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연구참여자의 윤리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다층적인 장치를 마련하였다. 질적 연구의 특성상 통계적 일반화보다는 분석적 일반화와 해석의 신뢰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 설계, 자료수집, 자료분석 전반에 걸쳐 절차적 엄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먼저 연구절차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본 연구는 본질적 사례연구 접근을 적용하여 사례의 맥락과 경험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소년법」에 따라 1호부터 6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으로 한정하여,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동질적인 사례 집단을 구성하였다. 이는 보호처분 아동이 법적으로는 가해자로 분류되지만, 이전에 누적된 피해 경험을 지닐 가능성이 높다는 선행연구 검토 결과에 근거한 것으로, 피해에서 가해로의 전이 과정을 탐색하는 데 적합한 사례 선정 기준이라 할 수 있다.

자료수집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연구참여자는 각 2회의 심층 면담에 참여하였으며, 면담은 피해 경험과 가해 경험을 구분하여 단계적으로 탐색하도록 구조화되었다. 1회차 면담에서는 피해 경험을 중심으로 한 탐색을 2회차 면담에서는 가해 행동과 전이 과정을 중심으로 심층 탐색을 실시함으로써, 단편적인 진술이 아닌 경험의 흐름과 변화 과정을 충분히 포착하고자 하였다. 또한 반구조화된 면담 방식을 활용하여 연구자의 질문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아동의 주관적 경험과 서사가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분석 과정에서도 타당성 확보를 위한 절차가 적용되었다. 수집된 면담 자료는 녹음·녹화 후 전사되었으며, 전사 자료는 반복적인 검토를 통해 정확성을 확인하였다. 분석은 Lichtman(2006)¹⁶⁶⁾이 제시한 코드-범주-개념의 단계적 분석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고, 이를 통해 자료에 내재된 의미를 점진적으로 추상화하면서도 사례의 맥락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면담 과정에서 기록한 현장 노트를 분석 자료로 함께 활용하여, 언어적 진술뿐 아니라 비언어적 반응과 정서적 맥락을 해석에 반영하였다.

연구참여자 수는 질적 연구에서의 데이터 포화(thematic saturation) 개념에 근거하여 설정되었다.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기준을 바탕으로, 동질적인 표본의 경우 11-12명의 면담으로 주요 주제를 충분히 포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총 12명의 사례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파일럿 조사 2명 역시 본조사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진행되었으며, 질문 검증은 넘어 자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분석에 포함하였다.

한편, 본 연구는 미성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질적 연구라는 점에서 윤리적 고려를 연구 전 과정의 핵심 요소로 설정하였다. 연구는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진행되었으며, 모든 연구참여자는 본인과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모두 확보된 경우에 한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자는 면담 시작 전 연구 목적, 절차, 예상 소요 시간, 참여 중단 가능성, 개인정보 보호 방안 등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연구참여자가 언제든지 불이익 없이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심리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서적 위험이 예상되는 아동은 연구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였다. 보호자 및 기관 실무자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1차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면담 시작 전 간단한 확인 절차를 통해 연구자가 연구참여자의 정서 상태를 재확인하였고, 면담 중 심리적 불편이 관찰될 경우 면담을 중단하거나 유보하도록 하였다.

면담 환경 역시 윤리적 고려에 기반하여 조성되었다. 모든 면담은 연구참여자가 신체적·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에서 진행되었으며, 보호자 동석 없이 아동

166) Lichtman, M. (2006). *Qualitative research in education: A user's guide*. Sage Publications.

단독 면담으로 실시하여 자유로운 진술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에게 면담 내용과 연구 참여 여부가 현재의 보호처분 상태나 향후 처우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음을 반복적으로 안내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수집된 모든 자료는 연구 목적에 한해서만 사용되었으며, 녹음·녹화 파일과 전사 자료는 가명 처리 후 암호화된 파일 형태로 안전하게 보관되었다. 연구 관련 자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 종료 후 3년간 보관한 뒤 안전하게 폐기할 계획이며, 제3자에게 제공되거나 연구 목적 외로 활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연구 설계에서부터 자료수집, 분석, 윤리적 보호 조치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절차를 통해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동시에 보호처분 아동이라는 연구참여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윤리적 책임을 최우선으로 수행하였다.

2. 사례연구 결과

본 연구는 보호처분 청소년의 심층 면담 자료를 반복적 비교와 해석적 검토를 거쳐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과정에서 참여자들의 경험을 관통하는 핵심 개념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구성하는 범주-대주제-소주제가 단계적으로 조직되었다. 소주제는 참여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초기 코딩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의미 단위로 구성되었고, 이러한 의미 단위의 상호 연관성을 토대로 상위 범주와 하위 범주를 합쳐 대주제가 정립되었다. 대주제들 간의 의미적 연계성을 해석하고 현장 노트와 분석 노트의 통찰을 함께 반영하여 상위 범주로 재구성하였으며, 이러한 범주의 통합을 통해 참여자들의 전체 경험을 포괄하는 핵심 개념으로 귀결되었다. 다음으로 표 IV-4는 이러한 분석 절차를 통해 밝혀진 아동 피해-가해 중첩 현상에 대한 결과이다.

표 IV-4. 아동 피해-가해 중첩 현상에 대한 사례분석 결과

핵심 개념	범주	대주제	소주제	
회복적 가능성	피해자로 살기	비행의 시작	가정의 해체와 정서적 안전기반의 부재 ‘그냥’에 숨겨진 피해 경험의 내면화	
		도래 관계의 양가성과 비행의 학습	친밀함과 압력이 교차하는 양가적 도래관계 비행의 학습	
	가해자 됨	청소년 피해-가해 전이	과시형	과시형
			보상형	보상형
			반항형	반항형
			도피형	도피형
	과도기적 전환의 공간	시설에서의 삶	경계형	경계형
			결핍과 회복이 공존하는 이중적인 공간 처분-보호-통제-관계의 삼중구조	결핍과 회복이 공존하는 이중적인 공간 처분-보호-통제-관계의 삼중구조
	회복적 삶의 재구성	사회복귀의 문턱 낮추기	되풀이될 위험: 재비행에 대한 두려움	되풀이될 위험: 재비행에 대한 두려움
			미래를 향한 구체적 계획과 의지	미래를 향한 구체적 계획과 의지

1) 피해자로 살기

(1) 비행의 시작

① 가정의 해체와 정서적 안전 기반의 부재

모든 참여자들은 어린 시절 부모의 불화(#1, #3, #4, #5), 높은 통제(#2, #9, #10, #12), 가정폭력과 학대와 같은 처벌적 훈육(#1, #2, #4, #6, #7, #11), 정서적 지지 부족(#1, #3, #5, #6, #7, #8, #12) 등을 경험하였다. 가정은 안정된 공간보다는 불안하고, 상처의 시작점이며 감정 표현을 억압당하고, 통제와 방임이 주기적으로 재현되었다.

저희 집안이 막장 드라마 집안이어서 진짜 막장 드라마를 찍어버렸습니다. 이제 잘못했으니까 맞는 거지. 이제 뭐, 맞아도 죽지만 않으면 되니까 이런 생각

을 하고 있었거든요. ‘엄마도 가정폭력을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닐 거야’ 라고 계속 생각했거든요. 쇠 행거로 종아리를 풀파워로 때려줍니다. 행거로 맞는 게 아픈긴 하지만 그게 더 낫습니다. 치욕적이지가 않아요. (#2)

여기 대부분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엄마 아빠랑 사이도 되게 안 좋거든요. 맞은 사람도 있고, 저도 엄마 아빠한테 맞았었고. 아빠가 저를 엄청 때렸었거든요. 거의 다 가정폭력 이런 것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나와서 가출하고 놀다가 이런데 들어오는 것 같아요. (#6)

6살 때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집에서 그냥 장난감 가지고 혼자 놀거나 놀이터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되돌아보면 많이 외롭고 사랑이 좀 부족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돌봐줄 사람도 없고 같이 있어 줄 사람도 없어서 외로웠는데 지금은 그래도 (시설에서) 같이 있어 주거나 그럴 사람은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7)

부모님한테 뭐라 해도(훈육) 되겠냐 물어보고, 엄마가 알겠다고 하면 그때, 체육관에서 후드려 패요. 맞으면서 ‘제가 잘못된 거니까 맞는 거지 부모도 동의했으니까’ 맞으면서 싫은 것보다 너무 아팠어요. 쇠 파이프 안에 각목을 넣고 테이 휴지 좀 넣은 다음에 그걸로 엉덩이를 때렸어요. 체육관 앞에서 담배핀다거나 그럴 때 맞았죠. 부모님은 알아서 끊으라고... 저는 좀 맞으면서 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오냐오냐 키운 애들은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11)

참여자들은 유도선수 출신의 친부로부터 상습적 폭행(#6)에 시달렸으며, 계부로부터의 성추행(#5)과 친언니의 이유 없는 폭행(#7)도 견뎌야 했다. 이처럼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 정서적 방임 등으로 참여자들은 정서적으로 항상 긴장 상태이고, 만성적이며, 일차적 애착대상과의 관계에서 손상과 단절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참여자들은 침묵이 습관이 되고, 혼란과 양가적 감정을 갖게 되었으며, 자연스럽게 ‘자아 형성’이 취약해지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② “그냥” 에 숨겨진 피해 경험의 내면화

참여자들은 습관적으로 “그냥” “그나마” “어차피” 등의 체념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

용하였다. 그냥 참거나(#1, #3, #4, #11, #12), 넘기거나(#1, #8) 말할 데가 없거나(#2, #5), 바뀌지 않는 상황에 아무 말도 못하는 경우(#2, #3, #5, #7, #8)들이 대다수였다. 이들은 말하기 불편한 상황이나 경험을 최소한의 단어로 바꿔 회피적 정서 표현을 하고 있었으며, 인지적 측면에서는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를 보호하고, 복잡한 감정이나 동기들을 단순화하여 심적 부담을 줄였을 가능성이 있다. 본인들이 이미 익숙해진 위험, 결핍 상황을 내재화하면서 그나마 결핍된 환경에서 최소한의 위안을 찾고, 상황을 바꿀 힘이 없는 무기력감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참여자들은 피해 경험이 내면화되면서 자신의 삶에서 감정 노출을 최소화하고 상처받지 않기 위한 자기보호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너무 화가 나거나 슬픈데 참을 수가 없을 때 누구한테 이거를 말할 데가 없고 할 때 해소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냥 커터칼로 긁거나 약간 아니면 볼펜으로 찌거나 아니면 제 얼굴을 그냥 친다거나 하는 거죠. (#2)

어차피 사고 쳐서 갔다 와도 1년 밖에 안 지나 있고 나는 아직 학생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구요. (#8)

그냥 좀 애랑 싸우는데 좀 때려 가지고 공동 그냥 상해로 갔어요. 처음에는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막상 일단 했는데 제가 이겨서 말로 하는 것 보다는 몸 싸움에서 이기면 제 뜻대로 되길래 그렇게 했어요. (#10)

여기는 사고 안 치게 생긴 애들 되게 많아요. 어차피 우범(가출하고 부모가 신고해서)으로 왔겠지. 여기서는 우범으로 오면 약간 병신이다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범죄를 저질러서 온 게 여기는 오히려 뭐 멋있다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5)

나는 보호할 사람이 나 말고는 없어서 더 세계 행동한다고 느껴왔고, 그냥 무시 받아왔고, 부모로부터 보호받지 못해서 나를 보호하려고 살짝 세계 보이고 싶은데 조직에 끼어서 놀다 보면 내가 애만큼 안 하면 더 약해 보이고 내가 저 언니가 하는 걸 꼭 해야만 저 위치에 갈 수 있구나, 어른들이 돈이랑 명예에 대해 그런 위치라고 생각하잖아요. 저희는 뭐 그냥 잘 놀고 싸움 잘하고 욱 잘하고 돈 많고 집에 돈이 많고 그런 거를 자신의 위치라고 생각해요. (#5)

(2) 또래 관계의 양가성과 비행의 학습

① 친밀함과 압력이 교차하는 양가적 또래 관계

연구참여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정서적 지지를 또래 관계를 통해 보완하고 있었다. 또래는 외로움·방임·정서적 공백을 완충하는 대체적 지지 체계로 기능하였으며, 가정 내 갈등과 단절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관계적 선택지로 의미화되었다. 이러한 의존적 관계는 소속감, 안정감, 친밀감을 동시에 제공하며 정서적 기반의 대체물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일부 참여자는 또래 관계를 “피라미드 같다”고 표현하며 친구 사이에 서열과 등급이 존재한다고 진술하며, 친밀함과 위계성이 혼재된 이중적 관계구조 또한 드러났다.

이처럼 또래 관계는 평등한 관계로 인식되지만, 실제 경험에서는 동조가 중심적으로 작동하는 관계로 나타났다. “친구들이 놀자고 하면 거절을 못하고”(#6), “만나면 뿌리칠 자신이 없다.”(#10)고 진술하며, 범죄의 시작 또한 대체로 친구들의 권유나 분위기에 의해 촉발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는 또래 관계가 자기결정보다는 상황적 압력에 의해 움직이는 관계로 설정되었음을 보여주며, 수동성과 동조성이 강한 관계적 특징을 반영한다. 심층면접 분석 결과, 또래는 도박, 폭력, 절도, 가출 등 일탈행동에 접근하게 하는 주요 경로이자 자신의 일탈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기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친구들이랑 사이가 안 좋고 소문이 이상하게 나고 왕따 같은 느낌이 드니까 SNS를 통해서 팔(팔로우)이 온 거예요. 서로 욕을 하다가 뭔가 잘 맞는다 생각해 가지고 만났는데 개가 알고 보니까 원래부터 담배 피우고 그랬던 애인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따라가게 된 것 같아요. 완전 범죄다 이런 건 딱히 없었어요. 그냥 미성년자인데 술, 담배 편의점에서 사고 머리채 잡고 그냥 여기 (시설) 들어오기 전에 한 행동들? 다 문제인 것 같은데 범죄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별 생각이 없어서. 술 담배 했을 때 재미있기도 했구 죄책감은 안 들었고 그냥 건강 걱정은 조금 하긴 했어요. 약간 가오 부리려고 피는 것도 있었고 전에는 애들이 저를 다 무시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니깐 좀 덜 무시당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6)

애들 사이에서 서열 가르기가 조금 심한 게 있어요. 서열은 나이순이 아니에요. 생긴거나 행동하는 걸로 봤을 때 좀 세야 하고 애들한테 당당하게 자기 의견 다

말할 수 있고, 약간 조금 무서운 언니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애들이 1순위에
요. 저는 남들한테 하기 싫다 이건 아니다 하고 거절 의사를 잘 못 밝혔어요. 말
은 또 되게 많은데 감정 싫으면 싫다 말할 수 있는 당당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
겠어요. (#4)

② 비행의 학습

보호처분 청소년들의 비행은 가출을 기점으로 음주·흡연, 모방범죄, 학교폭력, 사이버
비행, 도박, 임신과 낙태, 절도, 무면허 운전, 성매매, 공동상해 등 매우 다층적이고 다양
한 형태로 확장되었다. 다수의 참여자들은 “재미있어 보여서 따라하고 호기심에 따라했
다”(#4)고 진술하였으며, 이러한 선택의 배경에는 “가족보다는 친구들이 더 좋으니까”
“집이 싫으니까”와 같은 표현에서 드러나듯 가정에서의 정서적 회피와 또래에 대한 선호
가 작용하고 있었다. 이는 비행이 단순한 규범 위반이 아니라, 정서적 결핍과 관계적 욕
구가 교차하는 맥락 속에서 의미화되고 실천된 행동임을 시사한다.

그냥 엄마 아빠가 너무 집에서 쪼니까 이젠 담배 한 번 피우면 걸리면 휴대폰
세 달 동안 뺏고 일찍 들어오라고 하니까 그렇게 쪼이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그냥 친구들이랑 밤늦게 놀고 싶고 폰도 안 뺏기고 싶고 담배도 그냥
피고 싶으니까 그거 하기 싫어서 (6학년 때) 가출을 했죠. (#10)

SNS 같은 거 가끔씩 막 도박 광고 같은 거 뜨고 좀 자극적인 게 많은데 거
기에 살짝 영향을 받아서 후회와 어쩔 수 없다는 쪽 반반이에요. 그냥 가출해
서 갈 데도 없고 돈도 없어서 학교에서 하기도 했고 그것 때문에 온 게 후회
되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는 거를 좋아한 건 좀 외로웠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저한테 관심이 없다고 해야 되나? 친구들이랑도 처음에
는 별로 안 친해가지고 같이 안 놀았어 가지고 부모님이랑 어디 여행을 가거
나 그런 경험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그랬던 것 같
아요. (#12)

가출 때문에 돈이 없어서 그때 친구가 차털이를 권유해서 그거라도 해봐라. 저
는 처음이어서 가지고 차털이를 처음할 때 친구가 이렇게 방법도 알려주고 그랬
어요. 처음에는 불안하고 그랬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쉬워져서 계속하
고 그랬어요. 안 걸리니까 이제 계속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안

걸렸어요.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 나왔었어요. 부모님이랑 사이가 좀 안 좋습니
다. (#1)

2) 가해자 됨

(1) 청소년 피해-가해 전이

청소년의 피해-가해 중첩 현상은 과거 피해 경험이 단순한 일탈로 전이되는 과정이 아닌 정서적 취약성과 상호작용하여 나타나는 복합적 현상으로 이해해야 한다. 관계적 맥락과 정서적 흐름을 파악해야 하고, 사건의 의미구조를 분석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피해-가해 중첩 현상을 개인의 의미세계, 관계적 맥락, 경험의 시간적 흐름에 따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청소년들이 왜 피해를 경험한 후 가해자로 전이되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내러티브와 의미구조를 형성하는지 5가지 유형(과시형, 보상형, 반항형, 도피형, 경계형)으로 도출하였다.



그림 IV-3. 청소년 피해-가해 전이 유형

① 과시형

과시형 유형에 속하는 참여자들은 또래 관계에서 서열과 지위, 우월성을 확보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있다. 피해 경험을 지배 구조 안에서 재현하는 형태로 과시적으로 폭력을 일삼고, 폭행 후 사진이나 영상을 SNS에 업로드, 피해자를 무릎꿇림, 인증샷을 찍는 등의 서열 구조에서 '상위'가 되기 위해 노력하였다.

내가 이 사람보다 잘 나가고 싶고 내가 애보다 더 아는 사람이 많고 잘 논다 이런 걸 과시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같아요. 자기가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범죄들이 육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강해 보이기 위해 한 것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7)

친구랑 담배 피우고 일탈을 한번 해보는 게 처음 딱 했을 때는 엄청 불안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점점 하면 할수록 불안한 것보다는 좋은 감정이 좀 더 커졌고 제 세상 같았어요. 여자애들이랑은 말싸움도 안 끝나고 그래서 몸싸움 한번 하고 이기고 나니까 애들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듣길래 그게 더 쉬운 방법이라 생각했어요. (#10)

② 보상형

지속된 방임과 학대, 무시로 인한 내적 공허함을 느끼는 참여자들은 “상처받은 마음을 뭉가로 채우고 싶어” 한다. 인정과 위로의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거절에 대한 두려움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들이 느끼는 공허함은 즉각적 만족을 추구하는 형태로 나타났고, 도박, 절도, 위험한 연애, 조건만남 등의 비행이 보상으로 작용하였다. 도박은 당첨에 대한 보상으로, 절도는 단기적 만족감과 성취감으로 위험한 연애와 조건만남은 애정을 보상받았다.

부모님이랑 사이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엄청 반항심 좀 들어서 그거를 조금 더 부모님이 사랑해줬다면 안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9)

어른들을 제가 좀 미워하는 것도 있었거든요. 애정결핍이 기본으로 가지고 있던 말이에요. 사이가 안 좋으니까 가족이랑 밖에서 사랑을 못 받았잖아요. 그

래 가지고 그냥 제가 쌤들한테 좀 앵기거든요. 여기 시설 쌤들이 되게 잘 안
아준단 말이예요. 밖에서는 이런 걸 원했던 거 아닌가 그냥 그런 생각을 해요.
(#5)

안되는 건 구분은 했어요 그러면 안된다 해도 된다. 근데 이제 조절력, 충동성
그런 것 때문에 (도박)이번만 하자 이번만 하자 하다가 계속 되는 거죠. 도박
충전할 때 충전 내역을 보니까 모든 사이트 합쳐서 1500만원 되어 있는 거예
요. 도박이랑 안 맞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다가도 중독이 됐는데 끊기는 쉽지
않으니까. (#3)

③ 반항형

과도한 규제와 통제적 양육 환경에서 자라난 참여자들은 저항과 반발 심리로 가해
행동을 하였다. 억압감은 자유 욕구로 표출되고, 충동성은 반항으로 연결되어 규칙을 위
반하고 가해 행동의 패턴을 보였다. 대표적으로 가정에서 가출을 하거나 이유 없는 공격
성을 나타냈다. 이들에게 가정은 “갑갑해서 도망가고 싶은 곳”이며 무시당하면 당장이라
도 폭발할 것 같았다.

가정불화로 인해서 관심받고 싶었고 만약에 집에서 나를 함부로 대하거나 그
러면 폭력을 해요. 왜냐하면 나는 강해지고 싶었거든요. 나는 이런 대우를 받
기 싫고 강해지고 싶어서 잘 나간다는 애들이랑 놀면서 나도 부모님이 했던
짓 똑같이 하면서 내가 강하다는 걸 계속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그걸(반항을)
즐겨요. (#4)

부모님이 억압적이었던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범죄 쪽으로 연결된 거 같아요.
그냥 엄격해 가지고 통제받았는데 그냥 저도 제가 하고 싶은 걸 자유롭게 하
고 반항식으로 했죠. 그냥 학원 같은 거 막 보내고 폰 같은 거 10시쯤 내고
자라 선택권이 없고 자유롭지 못해 반항식으로 그랬어요. (#12)

④ 도피형

도피형 유형에 속하는 참여자들은 대체로 위험하거나 폭력적인 환경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생존적 회피 전략을 수행하였다. 이들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와 상황을 피하려는 선택을 반복하였으나, 이러한 회피적 대응은 오히려 통제되지 않는 환경으로의 이동을 촉발하며 새로운 위험에 노출되는 경로가 되었다. 결과적으로 회피 전략은 보호 기능을 갖기보다는 비행행동으로 작동하게 하였다.

가출을 해서 잡혔어요. 엄마가 처분이 마음에 안 들기도 했고 애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다 생각해서 처분(통고처분)을 바꿔 달라고 해서 여기에 왔어요. 시설에서 가족이 보고 싶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저희는 재결합 가정이고요. 통고처분을 해서 시설을 오게 되어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일단 집에 있기 싫었습니다. 이제 안전한 곳으로 가는구나 했어요. 쉽게 말해 아동 폭력을 당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3년째 사례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2)

부모님이랑 싸워 가지고 그냥 기분 나빠가지고 하루 이틀 나갔었는데 이번에 범죄 할 때 한 달 정도 나갔던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연락을) 안 받으니까 집 들어와서 밥이라도 먹어라 그래가지고 알겠다 메시지 보내고 그냥 엄마가 출근했을 시간대에 들어가서 밥 먹고 나가서 애들이랑 놀고 그러다가 중2-3학년때 약간 범죄는 아니라 자잘하게 오토바이만 타고 다녔어요. 안 걸렸는데 이번 범죄하다 다 같이 엮여 가지고 걸렸어요. (#11)

새벽에 집 거의 안 들어가고 거의 아침까지 (술을) 마시고, 그냥 집에 아예 안 들어갔었어요. 거의 가출을 했다시피. 그냥 저는 술을 마실 때 그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모여 가지고 얘기하고 좀 취하는 그런 느낌이 좋아서 제 생각에는 알코올 중독인 거 같긴 한데 보통 제가 먼저 마시자 했어요. 여기(시설)에서 한 번 나간 날에 하필이면 제가 마셔 가지고 걸렸어요. (#8)

⑤ 경계형

명확히 한 유형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경계선상의 참여자들도 확인되었다. 이들은 자신의 삶을 둘러싼 중요한 관계들 사이에서 ‘머물 수도’ ‘떠날 수도 없는’ 경계적 위치에

놓여 있었다. “편하게 살고 싶다”고 소망하지만, 가정, 또래, 시설, 온라인 등의 생활세계에서 완전한 소속과 안전을 제공받지 못했다. “그냥 싫은데 그렇다고 갈 데는 없고”의 표현해서 보여주듯 단순한 회피와 반항이 아니라 불안정한 심리적 경계면을 보여준다. 집의 갈등을 피해 벗어나려고 하지만 결국 밖에서 불량 교우들과 다시 연결이 된다.

집에 가면 엄마랑 동생이 거의 거실에 있던 말이에요. 저는 보통 집에 들어가잖아요? 화장실이나 물 마시러 나오는 거 빼면 다 방에서 생활했었어요. 거실을 나가도 사이 좋은 사람도 없고 딱히 가고 싶지가 않아 가지고 방에 있었어요. 그냥 혼자 있을 때 좀 심심하긴 했는데 거실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6)

아빠가 일한다고 자주 집에 안 들어와서 아빠랑 사이도 별로 안 좋아요. 아빠가 화를 좀 많이 내서 가지고 아빠가 집에 있으면 좀 눈치 보이고 그래서 밖에 있던 시간이 많아 가지고 새벽에도 밖에 있고. 아빠랑 원래 대화도 잘 안 하고 서로 같이 있으면 좀 불편하고. (#1)

3) 과도기적 전환의 공간

(1) 시설에서의 삶

① 결핍과 회복이 공존하는 이중적인 공간

보호처분을 받은 참여자 모두는 현재 “간혀 있는데 괜찮아지고”(#6) 있다고 자신을 평가하였다. 이들이 머무는 시설은 사법형 그룹홈의 형태의 1호 시설과 아동보호치료와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6호 시설이다. 다양한 보호와 회복, 교정 기능을 가진 시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1호와 6호 시설 간의 차이를 ‘자유’와 ‘통제’의 기준으로 설명하였다. 1호 시설은 “보호력이 부족한 아이들”(#1, #3, #4)이 오는 곳으로 단정 지으며 “침터 같은 느낌이고 핸드폰 사용도 가능하고 외출도 자유롭다”(#11)라고 이야기하지만, 비행이 가능해지는 자유이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옛날에는 그냥 사회에 있을 때 하도 일 많이 겪다 보니까 진짜 디폴트 값이 예민해져 있었어요. 좀만 건드려도 이제 화내고 욕하고, 물건을 부신다거나 했는데 이제 여기 시설 들어오면서 초반에도 그랬거든요. 근데 계속 있다보니까 그런 것도 찾아들고 거의 안하게 되더라고요. 소장님이 케어도 잘해주시고, 엄마 같으셔서 말로는 표현을 못 하겠는데 따뜻하게 대해 주시고 또 잘못해도 최대한 화도 안내시려고 차분하게 물어봐주시고 변화하는데 도움이 됐어요. (#3)

반면, 6호 시설은 “소년원 가기엔 조금 이른 애들을 6개월 동안 잘 데리고 변화시키는 곳”(#7)이라고 정의하며,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 준소년원 같은 곳(#2)이라고 하였다. 이들은 철저히 감독되는 형태의 자유임을 강조하며, “선생님과 같이 나가야 해서 비행이 안 생길 수 있다”(#5)고 여겼다. 이처럼 보호처분을 받은 참여자들이 생활하는 시설은 허가과 승인 감독의 틀 안에서 자유가 인정되는 곳이기 때문에 ‘결핍과 회복이 공존되는 이중적인 공간’이다. 허용된 공간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의 시설에서의 삶은 일상화된 규율과 통제된 자유 속에서 형성된다.

여기 시설은 그나마 소년원 그런데 안 보내고 기회를 주는 곳이에요. 일단 소년원은 제약이 엄청 많잖아요. 아예 못 나가기도 하고 폰이나 그런 것도 못하고. 그리고 소년원은 폭력도 있는데 샘들이 그냥 심하지 않으면 안 말려요. 근데 여기는 폭력을 하면 일단 샘들이 경고를 주고, 말리고 이제 계속 그러다하면 또 처분 변경도 될 수 있죠. 소년원은 제약도 많고 거기 안에 또 안 좋은 애들이 엄청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그나마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프로그램을 하면서 좋아질 수도 있죠. (#3)

아이러니하게도 시설은 “가족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 가정”(#3)의 역할을 담당하지만, 가족이 오지 않는 경험을 통해 가족의 부재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이중적인 공간이다. 갈등이 많았던 가족과의 관계를 거리두기 속에서 재발견하고 회복하게도 만들지만, 가족으로부터 단절을 확인하기도 한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와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엄마가 여기 들어오셔서 한 초반대 심할 때도 면회도 아예 안 오고 전화도 안 받고 그다음에 여기 와서도 전화 저랑 안 하고 싶다고 하고 전화 피하고 면회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왔단 말이에요. (#6)

② 처분-보호-통제-관계의 삼중구조



그림 IV-4. 청소년들의 시설 경험을 구성하는 처분-보호-관계의 삼중구조
(Triple Structure of Juvenile Residential Experience)

참여자들은 시설에서 생활을 하며 인식, 정서, 관계 등 일상의 구조 전반이 바뀌는 경험을 하였다. 시설은 “통제된 공간”이며, “그냥 사회에 내보내기엔 좀 그렇고 보호력이 안 좋은 애들”, “시설은 할 수 있는 게 한정적이고 소년원 보내기 애매한 애들”이 오는 곳이라고 하였다. 본질적 사례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시설을 어떻게 ‘지식화(epistemic)하며, 이를 해석(interpretive)하고, 구조화(structural)하는지를 분석한다. 이들에게 시설은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다층적이고 맥락적인 경험의 장이었다. 사회로부터 격리와 통제의 공간이기도 하며, 가족기능이 부재할 때의 대안 가정이기도 하고, 보호력이 부족하고 낙인이 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들은 재비행을 막기 위한 규율이 있는 곳이라는 동일한 인식을 하고 있었다. 즉, 이들이 정의한 시설은 법적처분-보호통제-대안가정이라는 단위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공간이었다.

해석적 차원에서는 시설을 단순히 이해하는 것을 넘어 내적 의미 흐름(inner meaning flow)을 살피볼 필요가 있다. 이들에게 시설은 집보다는 덜 외로운 공간이고, 부모님과 거리두기를 통해 관계 개선을 하고 가족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공간이다. 차별적 자유가 존재하지만 확실히 비행을 중단하게 만드는 구조를 지닌 곳이다. 해석적 차원에서 이러한 사례는 모순적이고 다층적인 면에서 의미가 있다.

제가 이곳에서 생활만 잘하면 핸드폰도 쓸 수 있고 외출도 할 수 있고 외박도 할 수 있고 저에 대한 좀 자유 같은 게 좀 보장이 되지요. (#11)

다음의 단계에서는 이러한 의미가 맥락적 구조 속에서 어떤 작동을 하는지 구조를 분석한다.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은 제도적으로 법적 처분을 받고 시설에 배치되고 규율의 틀 안에서 생활한다. 관계적 측면에서는 또래-교사-가족의 삼중구조 속에 놓이게 되는데 교사는 감독자이자 최소한의 보호자의 역할을 하며, 또래는 새로운 사회적 지지망과 갈등의 요인이 된다. 가족은 부재-거리두기-재발견의 구조를 반복적으로 가지면서 시설 속 대안 가족으로 구조를 재형성한다. 공간적으로 1호 시설은 개방 형태라면 6호 시설은 관리 중심의 폐쇄적 형태이다. 6개월의 제한적 시간 속에 이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 세계를 구성했는가를 들여다 볼 수 있다.

사회와 다르게 여기서는 다 따뜻하게 품어주고 사랑해주니까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믿어주니까 그래서 좋은 어른이 중요합니다. (#2)

제가 가장 큰 도움을 받은 것은 선생님들이예요. 여기서 힘들거나 그런 거 있으면 다 해결해 주시니까 너무 좋고 진짜 안 보이면 좀 무서울 것 같은 부모와 같은 존재예요. (#7)

특히, 이번 연구과정에서 만화 형식의 캠페인은 청소년들이 시설을 단순히 규율의 장이 아니라 잠재력을 재발견할 수 있는 공간, 사랑과 지지를 경험하는 공간, 격려와 위로를 통해 다시 시도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시각적으로 드러낸다. 이들은 스스로 '문제의 주체'가 아닌 성장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바라보고, '사랑받고 싶음'의 욕구를 사회적 메시지로 표출하였다(그림 IV-5). 결국, 보호처분 청소년에게 시설은 자율성과 보호가 공존하는 전환기의 삶의 무대로 기능하며, 이 안에서 형성되는 지지적 관계와 긍정적 경험은 사회 복귀 이후 재비행을 억제하는 핵심적인 심리사회적 자원으로 작용한다.



그림 IV-5. 보호처분 아동이 직접 그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캠페인

4) 회복적 삶의 재구성

(1) 사회 복귀의 문턱 낮추기

① 되풀이될 위험: 재비행에 대한 두려움

내·외부 세계가 혼란스럽고 예측 불가능했던 청소년들에게 시설은 안전장치로서 기능했다. 외부의 자극과 비행 환경으로부터 물리적 단절된 시설 생활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내면의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된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시설에서의 규칙적인 생활과 지지적 어른, 교정적 정서 경험 속에 늘 재비행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공통적으로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처분이 바뀌”(#2)기 때문에 보호처분 변경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한편, 재비행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참여자도 있었다.

참을성 훈련할 수 있어야 해요. 여기 있으면 못 참으면 안 되거든요. 못 참으면 일단 또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좀 더 가면 이제 보호처분 변경도 될 수 있고 하니까 참을성이 길러지는 것 같아요. (#3)

범죄도 안 저지르려고 하고 분노가 왔을 때도 화도 참여하려고 하는 건 처분 변경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12)

여기 있다가 나가서도 다시 사고를 칠 수 있잖아요. 성인이 안 됐으니까 어차피 사고 쳐서 와도 1년밖에 안 지나 있고 아직 학생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씨를 뽑아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회를 주면 안 되고 몇 세부터 몇 살까지 봐주고 처벌이고 뭐 없고 절대 안 되고 그냥 어릴 때부터 확실하게 나이 상관없이 처벌해야 돼요. (#8)

특히 퇴소를 앞둔 참여자들은 삶에 대한 희망과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만 다시 사회에서 마주해야 할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깊은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들에게 사회복귀는 단순히 시설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는 물리적 이동이 아닌 과거의 부정적 환경과 불량 교우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사회적 편견에 맞서야 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

이다.

솔직히 사회에서 저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제게 뭐라고 하면 너무 짜증이 나요. 핏김에 뺨한테 욕을 할까 뭘 할까 집어던질까 할까 그러다가 항상 약간 마법이 있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인정을 하게 만들고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자꾸 알려주고 그래서 제가 인정하면 사회에서 잘못하면 딱 낙인이 찍히잖아요. 그게 두려운 거죠. 선생님들이 네 바뀐 모습만 기억할 거니까 바뀌라고 해줬는데 살면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4)

② 미래를 향한 구체적 계획과 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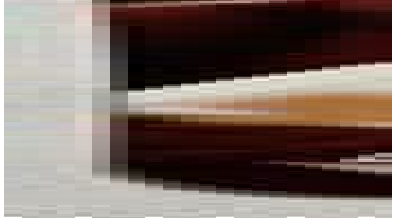






시설에서의 다양한 교육과 성찰은 참여자들이 퇴소 후 삶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동력이 되었다. 과거 박탈당했던 안정성, 무력감과 의존 상태에서 벗어나 자신의 힘으로 자립하려는 자율성과 경제적 독립을 열망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학업에 복귀(#4, #6, #10)하거나, 직업과 진로를 준비하고(#2, #3, #8, #9), 지역이나 불량 교우들과 단절을 통해 문제행동을 통제, 중단하여 새출발(#1, #12)하고자 하였으며, 가족관계 회복(#5, #7, #11)의 의지를 밝혔다.

검정고시를 보고, 플랜A가 있고 플랜B가 있어요. A는 대학을 안 가고 이제 조소소가 있거든요. 거기는 초보자도 모집을 하고 해서 거기에서 일을 할까 생각 중이고, 플랜B는 대학을 갑니다. 조리 관련된 학과를 들어가 체과제빵을 하고 싶어요. 원래는 관심이 없었는데 꿈드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다니면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땀단 말이에요. 그때 관심이 생겼어요. (#9)

저는 그냥 떳떳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냥 그때 안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친구들이랑은 나가서 안 어울리려고 해요. 범죄 같은 거 하자 해도 그냥 제가 딴 데로 가려고 외로워져도 집에 가거나 아니면 다른 친구들 만나려고요. (#12)

참여자들이 면접 과정에서 직접 제시한 사진과 진술을 종합하면, 보호처분 이전의 자신을 대체로 비가시적 존재, 상처받은 존재, 위협적 존재로 표상하고 있었음이 드러난다. “나는 없어요”,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 “충동적”, “사고만 일으키는 사

람” 등의 표현은 존재감의 소멸, 부정적 낙인, 통제 상실감이 뒤섞인 정체성을 드러낸다. 또한 어두운 배경, 뒤돌아 있는 모습, 검은 실루엣 등 시각적 요소는 자신을 사회 속에서 지워진 존재로 경험해 온 심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그림 IV-6).

번호	과거의 나	지금의 나
#1	-	
	“나는 없어요”	“웃을 때가 많습니다”
#2		
	“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	“공부가 안돼 보이고 지쳐있는 상태”
#3		
	“행보가 힘들잖아요”	“ 미래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4		
	“돈이 필요했고 돈이 없어 불행했고, 돈도 많이 뺏겼고, 돈도 많이 뺏겼고요”	“불안해서 맨날 기도해요 (사실) 나가는 게 무서워요”

번호	과거의 나	지금의 나
#5	 <p data-bbox="481 494 628 523">“공동묘지 같아요”</p>	 <p data-bbox="893 494 1078 523">“(시설)시간이 잘 가요”</p>
#6	 <p data-bbox="429 813 680 842">“행복한 모습을 부러워하는 것”</p>	 <p data-bbox="838 813 1133 842">“갑혀 있지만 더 괜찮아지고 있어요”</p>
#7	 <p data-bbox="385 1141 721 1170">“누군가에게 통제당하고 혼자 힘들어하는”</p>	 <p data-bbox="920 1141 1050 1170">“행복해하는 나”</p>
#8	 <p data-bbox="364 1479 749 1508">“예전에 공부만 했을 때가 행복했던 것 같아요”</p>	 <p data-bbox="831 1464 1146 1528">“당장 몇 개월 뒤에 제가 어떻게 될진 잘 모르겠어서”</p>

번호	과거의 나	지금의 나
#9	 <p data-bbox="395 488 710 513">“폐쇄병동에 간 적 있는데 지쳤었어요”</p>	 <p data-bbox="884 488 1081 513">“앞날이 조금 막막해요.”</p>
#10	 <p data-bbox="371 807 732 832">“결국 사고 많이 치고 그냥 갈 때까지 갔다”</p>	 <p data-bbox="806 794 1163 852">“여기 오면서 점점 고쳐나가고 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p>
#11	 <p data-bbox="458 1132 646 1157">“껄렁껄렁 거리고 있다”</p>	 <p data-bbox="916 1132 1048 1157">“반성하는 시간”</p>
#12	<p data-bbox="485 1450 622 1476">“없는 것 같아요”</p>	 <p data-bbox="911 1450 1053 1476">“감혀 있는 느낌”</p>

그림 IV-6. 보호처분 청소년이 지각한 자아

자료 : 슬라리움2 카드, 순출판사. 출판사의 동의하에 사용

그러나 시설 입소 이후 참여자들은 스스로의 위치를 전혀 다른 틀 안에서 새롭게 구성하고 있었다. 책상 앞에서 노력하는 모습, 햇빛을 바라보는 자세, 웃고 있는 얼굴, 자연 속 쉬, 반성하는 모습을 시각화한 이미지 등은 회복 가능성에 기반한 ‘미래 지향적 자기’를 강조한다. 즉, 과거의 부정적 자아표상으로부터 벗어나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고 있는 존재”로서 작동하는 자기 정체성의 전환을 반영한다. 이는 시설 환경이 낙인의 공간에서 회복의 공간으로 전환되는 인식적 변화이며,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자 하는 긍정적 자기정체성의 재구축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여전히 불확실성을 드러내는 참여자들도 있지만, 이들 모두는 시설의 생활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된 기반이 마련되었고, 이러한 과정을 겪으며, 나는 다시 관계를 만들 수 있고, 앞으로는 다르게 살고 싶다”(#11)는 다짐을 드러내며 자신의 삶을 재구성(reconstruction)하였다.

저는 여기 나가면 반려동물 쪽으로 공부하고 타투도 배우고 일본 가서 살고 싶어요. 여기 지역을 뜨고 싶어요. 애들 없는 데로. 다른 나라로 가고 싶어요. 여기 계속 있으면 또 엮여서 또 무슨 일들이 생길 거 같아요. (#9)

참여자들은 과거 위험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한 각자의 전략을 사용하고, 일상적 회복의 욕구를 강하게 드러내었다. 자신을 객관화하면서 자기통제를 경험하고, 문제행동을 중단하는 연습을 통해 단기적 행동 변화를 이끌었다. 이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참여자들이 보여준 ‘회복가능성’은 본질적 사례연구에서 주목하는 사례 고유의 의미 세계(construction of meaning)가 드러난 대목이다. 선형적 인과관계보다는 경험의 구조와 감정의 흐름, 관계의 맥락적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해석한다. 이들의 의미 세계의 변화는 다음의 흐름으로 연결되었다(그림 IV-7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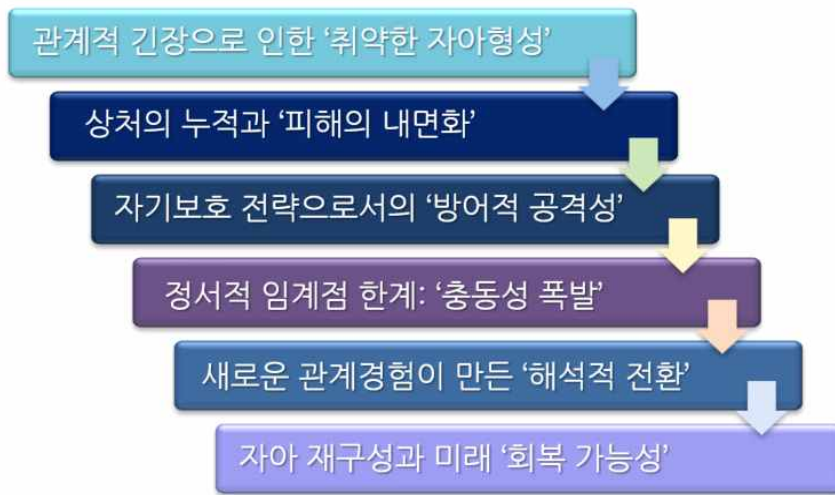


그림 IV-7. 청소년들의 피해-가해 전이에서의 의미 세계 변화

3. 참여자별 피해-가해 전이 맥락

1) 안정된 환경의 부재와 생계형 비행(#1)

#1번 참여자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1호)에서 1호, 2호, 5호 보호처분을 두 차례(재처분 포함) 받은 청소년이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때까지 지각과 가출을 반복하고, 술과 담배를 하며, 친구들과 싸우기도 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를 하였다. 가출 후 돈이 부족하자 친구의 권유로 차털이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친구 따라 범죄를 시작하였지만, 곧 용돈벌이 수단이 되었다. 부모님의 이혼 후 아버지, 형, 여동생과 함께 살았으나 이틀에 한 번씩 집에 들어오는 아버지보다는 인근에 거주하는 할머니와 유대감이 더 깊고, 실질적인 보호를 받고 있었다. #1 참여자에게 집은 “불편하고 답답한” 공간이었다. 6학년 때 첫 가출 후 친구 집에서 지내거나 모텔에서 숙박하기도 하고, 때로는 돈이 없어 계단에서 자기도 하였다. 처음 범죄를 가담하였을 때는 불안했지만 발각되지 않자 “재미”와 “돈에 맛이 들려 계속” 범죄를 행하게 되었다.

시설에 온 후 참여자는 규칙적인 생활과 선생님들의 관리로 시설의 규율과 생활이 답답함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고 느끼며 비행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주는 안정적 울타리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시설에서 생활을 하며, 범죄의 심각성을 알게 되고,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 한편, 시설의 소장님을 신뢰할 만한 어른으로 여기며, 조언을 통해 아버지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가정 내 정서적 고립감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며, “친구들이랑 있으면 또 사고 칠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검정고시를 치르고, 군대에 입대할 결정을 내렸다.

2) 가정 내 학대와 현실도피(#2)

#2번 참여자는 만 14세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자신의 가정환경을 “막장드라마”로 비유하였다. 계모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렸으며, 아버지는 이를 방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3년째 사례관리를 받고 있는 중이었다. 참여자는 “아무도 못 믿겠다”라고 말하며, 가족과 타인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갖고 있었다. 초기 처분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동승)으로 1호, 2호, 4호 처분이었으나, 계모가 ‘통고처분’ 제도를 통해 5호로 변경 신청하여 참여자를 시설로 보냈다. 참여자는 오히려 “다행이다”라고 느끼며, 시설은 차별이 아닌 구원처로 작용하였다. #2번 학생은 가해자로서의 정체성보다는 피해에서 가해로의 전이 과정을 여실하게 보여준다. 집은 가장 위험하고 불안한 공간이며, 비행의 핵심 동기는 가정 학대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현실도피였다. 퇴소 예정일이 임박하였음에도 스스로 시설에서의 생활을 연장하여 집이 아닌 시설을 선택한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외고 진학을 준비할 만큼 우수한 학생이었으나 현 시점에는 “성적이 절벽이 되어” 큰 좌절을 느끼고 있었고, 불안장애,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스트레스성 공황장애 등을 겪고 있었다. 그럼에도 사회구조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갖고 있으며, 웹소설의 작가 계약을 맺는 등의 활동들이 회복 자원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시설 기간 종료 후 부모와 떨어져 지낼 수 있는 기숙사 고등학교 진학을 계획하고 있다.

3) 전형적인 중독의 악순환과 회복탄력성(#3)

#3번 참여자는 과거 잦은 가출과 절도(1, 2, 3, 4, 5호 처분) 등의 비행 문제로 부모님과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왕따(무시) 경험과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을 경험하였다. “돈과 친구”가 가장 필요하다는 참여자는 “진짜 죽고 싶더라기보다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타이레놀 360정을 복용하는 극단적 자살 시도와 자해 행동을 하였다. 이 일로

인해 한 달간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기도 하였다.

그 당시 스팸 문자를 계기로 온라인 도박(바카라)에 빠져들었고,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중고나라를 통해 없는 물품을 올려 돈을 받는 사기행각(이체 알바, 카메라 사기), 절도(담배 훔치기, 자전거, 에어팟 절도) 등을 반복적으로 일삼았다. “훔칠 때 심장 떨리는 느낌”을 좋아한 참여자는 절도 행위가 단순한 금전적 목적을 넘어 쾌락적 중독 문제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도박을 끊기 위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방식으로 충동을 억제하고, 화가 나거나 슬플 때 숨을 크게 쉬기, 생각 비우기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참여자에게 시설은 스스로 시설 연장을 신청하여 도박이나 계정팔이 등 자신의 비행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교정하는 공간이며, “기회를 주는 곳”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었다. 김정고시 합격으로 첫 성취를 맞본 참여자는 앞으로 플랜A는 조선소에 취업, 플랜B는 제과제빵과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을 통해 관련 분야 취업 후 사업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혔다. 참여자는 자신을 “아직 배우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며, 주변의 권유나 통제보다는 “제 마음가짐이랑 다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라며 회복의 동력이 외부가 아닌 자신에게 있음을 보여주었다.

4) 애정결핍과 돈을 통한 행복 갈망(#4)

#4번 참여자는 유년기 시절 어머니의 부재(4살~초등학교 4학년까지) 속에서 큰엄마 집에 맡겨져 자랐다. 그곳에서 친척 오빠와 비교당하며 차별(“소파에 못 앉았어요.”)과 학대(“발가벗겨서 베란다에 세워 놓은 적”)를 경험하였고, 이로 인한 정서적 박탈감이 관계에 대한 집착과 불안으로 이어지게 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조건만남과 우범 등으로 보호처분(1, 2, 4호)을 받았고, 이후 학교 미출석과 학교폭력 가해자로 재차 처분을 받았다. “그 언니를 만나기 전에는 친구가 없었거든요”의 진술해서 보여주듯이 외로움이 비행을 통해 ‘재미’와 ‘소속감’을 채우려고 하였다. 돈을 쉽게 벌고, 강해 보이고 싶다는 욕구, 외로움으로 인한 도박(토토)중독, 금전 갈취, 절도, 폭력 등 비행이 점차 다각화되었으며, 비행의 기저에는 “돈이 없어 불행했다” “돈으로는 친구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강했다.

참여자는 아파에 대한 강한 의존(“거의 다 아빠한테 의지”)을 보이며, 중1 시절 남자 친구와의 관계에서 임신과 낙태, 이로 인한 분노와 스트레스로 자해한 이력을 갖고 있다. 하지만 시설에 온 후 구조화된 생활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며, “너는 변할 수 있다”고 믿어주는 선생님들의 말에 힘을 얻고, 승무원이란 꿈을 갖고

있다. 퇴소 후 고등학교 졸업을 하면 외국으로 어학연수와 유학을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5) 복합적 트라우마와 자기 구원을 위한 분투(#5)

#5번 참여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폭행 사건으로 보호처분(1, 2, 4호)을 받았으며, 이후 야간 전화 처분 불이행, 보호관찰법 위반으로 6호 시설에 입소하게 되었다. 고1 폭행 이전 중학교 시절 참여자는 계부로부터 성추행, 폭행 등 가정폭력을 경험하였으며, 남자 친구의 자살로 복합적인 트라우마를 겪는 과정에서 반항심의 표출로 가출과 조건만남 조직에 연루되었다. 2년 동안 조건만남을 하고, 이후에는 친구들을 조건만남을 시키는 마담의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이후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술, 담배, 신분증 도용, 자해 등 다양한 일탈을 하였다. 하지만, 조건만남 조직에서 스스로 탈출하고 가해자들을 직접 신고하는 등의 주체적이고 강한 회복 의지를 보여주었다.

지금은 시설에서 중학교 검정고시를 마쳤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과거의 불량 교우들과의 연락처를 모두 지우고, 인스타그램 계정 삭제, 상담과 심리 관련 독서를 통해 감정 조절법을 배우고 있었다. 특히, 현재의 남자 친구에게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이 긍정적 변화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고, 퇴소 후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마치고, 운동 관련 전공으로 대학을 진학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었다.

6) 관계의 단절과 소속감을 향한 열망(#6)

#6번 참여자는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친구들과 사이가 안 좋고, 놀림이 쌓여 폭력 사건으로 시설에 들어오게 되었다. 6호 시설 감호위탁과 2년간 5호 보호처분을 받았다. 아버지의 폭력으로 인해 부모님은 이혼 상태이며, 어머니와는 관계가 단절(심사원, 시설 면회 오지 않음)되어 남처럼 지내고 있다가 최근 시설 교사의 도움으로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 비행 동기는 가정과 학교, 양쪽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게 되자 SNS(인스타그램)를 통해 만난 비행 청소년 무리에서 소속감을 찾게 되었다. 참여자는 음주, 흡연, 폭력 등을 통해 “덜 무시당하는 것 같고 더 가오 부리기” 위해서 무리 속에서도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생존 수단으로 더 강한 일탈행위를 하였다.

피해에서 가해로의 전이 과정을 “피해를 받았을 때 도움을 받을 사람과 방법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스스로 문제를 분석하였다. 하지만 시설 입소 후 불량 교우들과 연락을

끊는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규칙적 생활, 학습동아리, 상담 등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자기 이해가 증진되었다. 현재는 교사들을 통해 사랑과 안전감을 얻고 있으며, 이에 애정결핍이 다소 해소되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있다. 퇴소 후 학교에 잘 다니고 어머니와 함께 웃으며 밥 먹고 일상을 나누는 평범한 삶을 소망하고 있었다.

7) 외로움의 왜곡된 방식과 믿을 수 있는 좋은 어른과의 만남(#7)

#7번 참여자는 어린 시절 맞벌이로 바쁜 부모님의 부재 속에 “많이 외롭고 사랑이 좀 부족한 시기”를 보냈다. 6살 때부터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고, 언니로부터 이유 없는 폭력을 당하는 등 정서적 방임과 학대 환경에 노출되었다. 점차 성장하면서 참여자의 외로움은 집에서 채우지 못한 관심과 재미를 밖에서 채우고 싶어 하며 “호기심” “재미”를 추구하였다. 친구 관계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칼로 손목을 긋거나 머리를 뜯는 등의 자해를 통해 스스로 벌을 주는 행동을 하거나, 가출, 무단결석, 불량 교우들과 어울려 술, 담배, 학교 친구들을 폭행(뺨 때리기, 목조르기 등)하였다.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 외로움을 해소하고, 부모님의 관심을 끌기 위한 왜곡된 방식을 선택하였다.

하지만 시설에 들어온 후 “믿을 수 있는 좋은 어른, 부모님 같은 존재”인 선생님들을 만나 정서적 안정을 찾았고, 스스로 소중하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책 40권 읽기, 상점 100개 이상 획득 등을 통해 조기 퇴소 예정을 앞둔 만큼 모범적인 모습으로 변화하였으며,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키고, 과거 불량 교우들과 만남 참기, 약자를 괴롭히지 않고 사회가 정한 법을 지키는 건강하고 바른 어른으로 사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었다. 퇴소 후 네일아트 학원을 다니며 학업을 이어갈 포부를 밝혔다.

8) 알코올 의존과 심리적 취약성의 작용(#8)

#8번 참여자는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하여 술을 마신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재판(1, 2, 3, 4호)을 받았으며, 이전 성매매 알선(1, 5호)과 관련된 처분 이력을 가지고 있다. 주운 주민등록증을 사용하다 클럽 지문검사에서 적발되어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술을 마시는 것을 좋아해 주 3-4회, 소주 3~4병 정도의 술을 마시고, 하루에 담배 두 갑을 피우기도 하였으나 지금은 금연, 금주 중이다. SNS에 친구가 자신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따돌림 비슷한 피해 경험을 가지고 있다.

본인의 비행 원인을 지역 이주로 만난 또래 영향이 결정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안 걸릴 줄 알고” 반복적으로 비행하였으며, 알코올 의존과 심리적 취약성(양극성 장애 진단, 우울감, 삶에 대한 허탈감)은 자해 행동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자신을 “항상 후회할 짓을 하는 미련한 사람”으로 평가하였으며, 시설은 법적 권위에 기반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성찰하고 조절하는 노력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였다. 이에 시설에서 지속적으로 공무원 시험(소년, 성인 보호관찰 분야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퇴소 후에는 부모와 시간을 많이 보내고, 늦은 귀가나 음주, 위험한 또래 관계는 모두 차단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성인이 된 후 다시 예전 지역으로 돌아가 살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9) 소속되지 못한 돌봄의 공백과 끝없는 억울함(#9)

#9번 참여자는 아버와의 잦은 갈등, 체벌로 반항심이 커졌으며, 흡연, 음주, 문신, 학교결석, 도박(토토)으로 1호, 4호 보호처분을 받았다. 동물 입양과 타투 비용, 오토바이 구매 욕구로 도박을 시작하였다. 중2 당시 충동적 행동으로 인해 폐쇄병동에 강제 입원하며 큰 두려움을 느꼈고, 이로 인해 부모에 대한 원망이 깊어졌다. 스트레스 해소와 관심받기 위한 표현으로 자해를 하였으며, 타투할 때 행복감을 느꼈다. 외로움과 부모의 관심 부족으로 인해 문제행동을 하게 되었다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부모에 대한 억울함은 여전히 남아 있으나, 판사의 지시를 잘 지키며 문제행동을 중단하려고 노력 중이다.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 입소하였을 때는 “범죄자가 아닌데 들어왔다”는 억울함과 심리적 상처를 표현하였다. 통제적 환경과 자유제약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감정적 불편감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며, 시설종사자와도 정서적 신뢰 형성의 한계를 느낀다. 하지만, 시설에서 참을성, 자기조절력이 일부 회복되고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였으며, 타투 아티스트를 꿈으로 생각하고, 학교 공부를 다시 이어 대학 진학을 희망하고 있다. 불량 친구와 거리를 두고 싶어 하며, 일본 등 “아무도 자신을 모르는 환경”으로 조용히 떠나 살고 싶어한다. 본인을 “불쌍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며, 앞으로 튀지 않고 평범하게 살기 위해 부모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문제행동을 중단하려 노력 중이다.

10) 통제 회피로 인한 일탈과 자기조절력 회복(#10)

#10번 참여자는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공동상해,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흡연, 음주, 무단결석 등)의 복합적 비행으로 반복적인 보호처분을 받으며, 재입소하게 되었다. 신체적 가정 학대는 없었지만 부모의 통제와 엄격한 교육, 잦은 간섭으로 답답함을 느껴 가출과 일탈행위를 하게 되었다. 특성화고에 진학을 하게 되며 학교 분위기(흡연, 조퇴, 수업불참 등의 일반화)로 인해 비행행동이 더 강화되었다고 인식하였다. 현재는 품행장애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중이며 공격적 행동을 줄이기 위해 “행동하기 전 결과를 생각하는 연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설 입소 후 규칙적 구조와 일상의 규율로 인해 자신이 변화되었다고 여기며, 부모와의 관계도 개선되었다고 평가하였다. 하지만, 변화를 위해서는 외부개입보다는 “스스로 깨닫는 과정”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남이 도와주는 것만으로는 변화가 어렵다고 하였다.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형식적 강의보다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비행의 결과를 깨달아 “인생이 밑바닥 친다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였다. 구체적인 미래 계획은 없지만 검정고시와 수능을 통해 좋은 대학과 사회 기여도 높은 직업을 목표로 하고 있다.

11) 빠른 돈벌이 수단으로 강화된 도박중독(#11)

#11번 참여자는 절도, 무면허 운전과 온라인·오프라인 도박(바카라)으로 인해 5호와 6호 처분을 받고, 6호 시설에 입소하게 되었다. 중1 시절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리며 삐뚤어졌으며”, 범죄의 직접적인 계기는 도박으로 빌린 50만 원을 170만 원으로 갚으라는 압박 때문이었다. 도박에 빠지게 된 것은 “10만 원으로 500만 원 만든 적이 있다”고 밝히며, 빠른 돈벌이 수단과 강한 보상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참여자는 “갑자기 많은 돈이 들어오는 경험 때문에 계속하게 된다”고 토로하였다. 고1 때 친구가 없어 한 달 만에 자퇴를 하고 이후 가출과 도박이 반복되었다. 도박으로 번 돈으로 여러대의 오토바이를 구매하기도 하였으며, 현재 부모가 오토바이를 관리해 주고 계신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폭력은 없었으나 흡연 허용 등 낮은 수준의 개입을 하였고, 부모 동의하에 격투기 관장님에게 심한 체벌(쇠파이브, 각목 등)과 폭력적인 훈육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였다. 현재 부모님과의 관계는 좋은 편이며 부모님이 범죄 합의금을 대신 처리해 주어 죄송스런 마음 커 반성하고 있다고 하였다. 재범을 막기 위해 “범죄에 대한 생

각을 아예 차단”하려 노력 중이며, 소년원과 같은 감금 시설로의 처분 변경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 퇴소 후 고등학교 1학년으로 재입학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12) 가출과 또래집단 행동이 빚어낸 생계형 비행(#12)

#12번 참여자는 무면허운전, 카드절도 및 사용(약 3천만 원)혐의로 5·6호 처분을 받아 시설에 입소했다. 카드 절도 경위는 가출 후 생활비 부족과 친구들과의 집단행동이 결합된 형태로, 무인카페 분실함의 카드를 가져오면서 시작되었다. 범죄는 훔친 카드로 핸드폰이나 금을 구입하고 중고거래로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어린 시절 게임중독의 고립적 생활과 초등학교 때부터 외로움과 부모님의 관심이 부족하였다. 부모는 엄격하고, 통금시간, 학원 강요, 핸드폰 사용 제한 등 높은 수준의 통제적 부모였다. 중학교 이후 친구들의 영향으로 노는 문화와 서울에 대한 동경이 생기면서 6개월간 장기간 가출을 하였다.

현재 통제가 심했던 아버지는 “미안하다”고 사과하였으며, 참여자와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 “간헐 있는 느낌, 일상 제약”이 있는 시설이지만, 시설에 온 것이 가장 효과적인 교육이라고 평가한다. 퇴소 후 학교 복귀를 할 예정이지만, 학교생활에 대한 불확실성(장거리 통학, 성적 문제, 학교에 대한 낮은 흥미)이 큰 상태여서 “처음에 좀 가보다가 안 맞으면 안 가려고”하는 단기중심적 계획을 갖고 있다. 생계는 아르바이트, 부모 지원으로 해결하고자 하며, 문제가 있었던 친구들과는 거리를 두고, 규범적 생활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4. 소결

본 연구는 보호처분 청소년들의 피해 경험이 가해 행동으로 전이되는 전 과정을 심도깊게 고찰함으로써 ‘피해-가해 중첩 양상’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호처분 받은 만 14세-18세 아동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통해 참여자들의 주관적 경험과 서사를 본질적 사례연구 방법으로 해석하였다. 참여자들은 1호와 6호 시설에서 생활하는 12명(남자5명, 여자7명)이었으며, 주요 면접 내용으로는 일상과 감정에 대한 공유, 범죄에 대한 인식, 피해 경험, 가해 경험, 효과적인 개입 방안과 정책 제언 등이다. 인터뷰는 1차와 2차로 진행되었고, 차시별 인터뷰는 약 60분 정도였으며, 1-2차 인터뷰한 전사본은

A4기준으로 총 702장이었다.

연구결과 청소년들의 범죄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위기 가정과 학교 내·외에서의 위험 요인, 심리·정서적 특징들이 복합적으로 비롯됨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이들의 비행행동과 위험행동은 다양하였고, 피해에서 가해로의 전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새로운 삶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이들은 시설 퇴소를 앞두고 희망과 불안의 교차 지점에서 ‘사회문턱넘기’의 과제를 마주한다. 본 연구는 참여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가정요인, 또래·학교요인, 정서·심리적 특성, 비행·위험행동, 피해에서 가해로의 전이, 보호요인 및 전환점의 분석틀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틀에 따라 수행한 분석 결과, 보호처분 청소년들의 경험에서 다음과 같은 핵심 주제가 도출되었다(그림 IV-8). 참여자별 진술 분석 결과는 표 IV-5에 제시하였다.



그림 IV-8. 보호처분 청소년의 피해-가해 중첩 현상 요인별 핵심 주제

표 IV-5. 보호처분 아동의 피해-가해 중첩 현상 분석틀

번호	A. 가정요인	B. 도래·학교 요인	C. 정서·심리 특징	D. 비행·위험행동	E. 피해→가해 전이 요인	F. 보호요인·전환점
#1	이혼, 처벌적 훈육, 정서적 지지 부족	학교 이탈, 비행도래와의 밀착	충동성, 호기심, 낮은 자기 인식, 회피적 문제 해결 방식	장기가출, 학교부적응, 음주, 담배, 차탈이	정서적 결핍→회피적 가출 →생존 쾌락 중심 비행환경 →금전 자극 추구형 범죄	재범에 대한 두려움, 법지에 대한 긍정적 태도 변화, 시설 입소
#2	가정폭력, 아버지 방관, 계모불신, 재혼	도래 소외, 비행도래와 결속, 학교폭력 피해 경험	불안장애, 우울증, 분노조절 장애, 스트레스성 공황장애, 자기따괴적 대처, 낮은 대인 신뢰	도래 갈등, 모방범죄	신체적·정서적 피해 경험 → 분노 → 타인 불신→무력감	우수한 지능, 창의활동(웹소설 작가), 상담 통한 자기 통찰
#3	부모와의 갈등, 공감 지지 기능 약화, 불일치적 소통	집단따돌림, 학교부적응, 비행도래 의존	사회적 고립, 우울, 자해, 인정욕구, 충동성	가출, 절도, 사기, 사이버비행, 도박중독	정서적 취약성 + 도래폭력 피해 → 인정 욕구 증가 →일탈 행동 → 가해 행동	도박 절제법 개발, 감정고시 합격, 뚜렷한 진로 계획
#4	어린 시절 부모와 분리 (다문화가정), 차별, 학대	비행집단 편입, 학교폭력, 장기 결석	외로움, 충동성, 낮은 자기통제, 인정욕구, 관계 의존	임신, 낙태, 가출, 절도, 조건반응, 학교폭력, 도박	정서적 결핍→도래 과의존 →비행 집단 편입→보상 추구 → 중복범죄	아버지와의 안정적 관계, 구조화된 시설의 안정감
#5	계부에게 성추행·폭행, 재혼가족, 부모 갈등, 정서적 지지 결핍	학교폭력, 방관한 도래, 학교부적응, 남자친구 자살	우울, 공황, 자해, 거식증, 지속적 연애	조건반응, 가출, 도용, 무면허 운전, 신분증 음주, 흡연, 자해	학대→반항심(분노 불신)→복합적 트라우마→가해 규범 위반 반복	상담·독서를 통한 감정 조절 학습, 남자 친구에게 어울리는 사람 되기, 업무와의 관계 회복
#6	가정폭력, 이혼 후 어머니와의 관계 단절, 정서적 방임	도래 갈등 심화, 폭력 피해, 비행집단 결속	소속감의 욕구, 외로움, 충동적, 쾌락적 욕구, 심리적 공허함	음주·흡연·폭행, 과시적 폭력	가정폭력·정서불안→외로움 회피→도래 의존→가해 행동 반복	시설 교사의 깊은 애정, 안정감, 학교 복지 의지
#7	어린 시절 부모 부재, 정서적 방임, 학대, 재혼가정 부적응	학교부적응(찾은 결석), 도래 의존, 서열 문화	외로움, 충동성, 정서 조절의 어려움, 관계중독	자해·가출·무단결석·음주·흡연·폭행·사이버폭력 가담	가정 갈등·정서적 방임→외로움 →도래 중심 비행→충동성→가해행동	시설 교사로부터의 정서적 안정, 모범적인 시설 생활, 삶의 목표 생김
#8	부모의 낮은 감독, 정서 공백, 이주로 인한 환경 변화	도래비행 영향, SNS위험 네트워크, 학교 개입 부족, 지역환경 영향	충동성, 즉시적 자극 선호, 외로움, 소속욕구, 경계심 부족	가출·알코올의존·성매매·알선·허위사실유포	정서 공백→도래 의존→위험 요청 수락 →자기통제 부족→도래 위험행동 수용	통제된 시설 생활, 자신의 행동 객관적 성찰, 가정 복귀 욕구
#9	돌봄공백, 아버지와의 갈등, 통제적 양육	학교밖 도래비행 영향, 지역환경 영향	도피성, 충동성, 정서불안, 외로움, 억울함	흡연, 음주, 문신, 학교 결석, 도박, 자해	아버지의 통제적 양육 → 스트레스 회피 도피적 일탈행동 → 비행처분	시설 입소, 규칙적 생활, 문제 도래 단절 의지, 가족 복귀 기대
#10	엄격한 통제, 학업 압박, 자율성 부족	공격 행동의 사회적 강화, 특성화고의 비행규범 문화	반항성, 자율성 욕구, 충동성, 반응적 공격성	가출, 무면허 운전, 공동상해, 흡연, 음주, 무단결석	통제적 양육+도래 압력 →반항심→공격성 행동화	부모 애착 회복, 규범적 시설, 교육·상담 통한 재해석, 진로 목표
#11	허용적 부모, 친밀감 부족 대리 훈육(격투기 관장의 심한 체벌, 폭력적 훈육)	도래비행 영향, 학교 소속감 부재	즉각적 보상 추구 높음, 충동성, 감정 조절 어려움, 회피적 대처	가출, 절도, 무면허 운전, 도박중독	허용적 부모→왜곡된 금전 신념 → 보상 추구 행동 → 일탈 강화	처분 변경에 대한 두려움, 외부 자극 차단, 부모와의 관계 안정화
#12	통제적 양육, 정서적 지지 부족, 방임	도래비행 모방, 학교소속감 낮음, 게임 몰입으로 제한적 도래 관계	외로움, 자아개념 낮음, 충동성, 회피적 대처	무면허 운전, 카드 절도 및 사용, 가출, 게임중독	속박감 → 회피적 가출 → 비행 환경 노출→문제행동	시설의 규칙 생활,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 비행 도래와의 거리두기

첫째, 가정요인이다. 가정요인에서 드러난 핵심 주제는 ‘결핍’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경험한 가정은 공통적으로 관계적 긴장이 일상화되었다. 부모의 보호력 부족, 방임과 통제적 양육, 가정해체와 폭력은 꾸준한 갈등과 충돌, 요구와 실망 사이에서 정서적 안정이 쉽게 무너졌으며, 혼자 외로움을 견뎌야 하는 소속감의 부재인 기능적 결핍(functional deficiency)의 공간이었다. 비행 청소년들은 가족해체, 방임, 갈등 수준이 높을수록 재범 가능성이 커지며, 가족 환경이 결국 청소년 비행과 재범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들과 일관된 경로를 보여준다(성우제, 2021).¹⁶⁷⁾ 연구에 참여한 보호처분 청소년 부모들의 통제와 비난은 자기비난으로 강화되었고,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보다 행동으로 드러내는 패턴이 고착화되었다.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다는 무기력감과 말을 해도 이해받지 못할 거라는 불신감, 피해를 당한 것이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느끼는 왜곡된 죄책감은 “나의 약함”을 상징화시키고, 약함을 숨기거나 극복하기 위한 행동으로 전이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안정감과 정이 없는 가족 분위기로부터 부모의 역기능적 양육태도와 역기능적 의사소통은 자신이 이해와 존중받지 못한다는 감정을 갖게 되며, 폭력이나 불행한 상황에서 무력감으로 나타나 사람에게 대한 증오 원망, 자포자기하게 되고 함부로 행동하게 되면서 거부하는 몸짓으로 문제행동을 보이게 된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한다(김성봉, 홍달아기, 이선우, 황은경, 2014).¹⁶⁸⁾ 결국 재범을 억제에 최적의 효과는 가족 기반의 중재이다. 따라서 비행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다차원적 요인을 고려할 때 가족치료의 병행과 지역사회 기반의 중재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Aazami et al., 2023).¹⁶⁹⁾

둘째, 또래 · 학교요인이다. 또래 관계에서 드러난 핵심 주제는 ‘소속과 배제의 이중 지배’이다. 또래 속에서 유대를 찾기도 하지만 동시에 범죄로 이어지는 경로가 되기도 하였다. 최근 연구에서는 또래 압력(peer pressure)이 비행행동과의 연계 경로를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Reeta(2020)¹⁷⁰⁾의 연구에서는 또래 집단의 행동양식이나 상호작용의 구조, 집단 규범과 일탈 승인이 청소년 비행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이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맥락적으로 또래는 인식처이자 위협이었고, 소속감이자 통제력이 없어진 관계였다. 청소년들의 경험 속 학교는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고 생존 방식을 만들어가는 관계적 장(場)이기도 하였다. 또래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배신, 무시와 따돌림,

167) 성우제 (2021). 비행청소년의 가정요인이 재범에 미치는 영향 연구: 소년원 임시퇴원생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34(1), 149 - 193.

168) 김성봉, 홍달아기, 이선우, 황은경. (2014). 보호관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가 재범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6(2), 263-284.

169) Aazami, A., Valek, R., Ponce, A. N., & Zare, H. (2023).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nd interventions for reducing juvenile delinquency: A systematic review. *Social Sciences*, 12(9), 474.

170) Reeta, V. (2020). Effect of peer influence on juvenile delinquency. *Research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11(2), 148-152.

원하는 집단에 속하지 못한 거절 경험, 소외와 주변화가 반복되면서 참여자는 또래들과 취약한 관계적 자아(Vulnerable relational self)를 형성하였다. 이로 인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 타인을 신뢰하는 형태, 정서를 조절하는 정도에 영향을 미쳤다.

학교에 대한 소속감은 비행으로부터 보호 수단으로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 특히 소외된 배경을 가진 청소년 범죄자들에게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친사회적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Miklósi & Kovács, 2025).¹⁷¹⁾ 그렇지만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보호처분 청소년들은 학교 내에서는 위축된 참여를 하고 있었고, 학교 밖에서는 지기 싫어서 힘을 과시하거나 내가 약해서 당했다고 규정하며, “내가 먼저 치고 나가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즉, ‘수동적 피해자’에서 ‘능동적 방어자’로 전환되었다. 이들의 범죄는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며, 분노와 두려움, 당할지 모른다는 예측불가능성,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압박 등에서 온 정서적 생존전략인 셈이다. 범죄 이후 이들은 즉각적 후회를 하지만 행동 전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없었다.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또래 관계에서 의미를 구성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으로 반응적 행동을 하였다. 이는 정서적 취약성과 방어적 전략의 결과라는 점을 확증한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22)¹⁷²⁾에서 연구한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은 사회성 기술 훈련, 또래 관계 기회 확대, 팀 기반 활동 등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과 또래 관계 능력 향상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소속감 증진과 부적응 행동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호처분 청소년들을 위한 관련 프로그램을 현장 특성과 대상자의 요구에 맞게 적용·확장하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정서·심리적 특성이다. 심층면접에서 드러난 핵심 주제는 보호처분 청소년들은 반복적으로 감정과 행동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슬픔이나 두려움, 억울함을 실제로 느끼고 있음에도 명확한 언어로 표현하기 보다는 행동으로 표현하거나 반대로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이들이 자주 표현하는 “몰라요” “그냥요” “어차피”의 말 속에는 이들이 정서적으로 손상된 애착을 갖고 있으며, 불안정한 안정감, 또래 관계의 상처, 가족의 결핍 속에서 의미화된 표현이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결과는 외상 경험이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매개로 정서 조절이 어려운 형태로 나타나며, 이는 내적 혼란, 침묵적 감정 축적에 기여할 수 있다(심연홍, 이미선, 2020).¹⁷³⁾ 이와 같은 정서·심리적 반응은 개인적 결함보다는 상황과 경험이 만들어낸 의미화된 반응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제는 취약성을 지니고 있

171) Miklósi, M., & Kovács, K. E. (2025). Factors influencing school bonding among juvenile offenders – The experience of a systematic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Open*, 8, 100441.

172) 공윤정, 정애경, 김영화, 김현령, 김혜량, 이주은, 차민아. (2022). *자연령 학교 밖 청소년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개발 연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73) 심연홍, 이미선. (2020). 소년원학교 학생의 아동기 외상경험이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부정적 자동적 사고의 매개효과. *놀이치료연구*, 24(2), 69-85.

음에도 불구하고 취약성이 설명되지 않고, 숨겨져 있으며, 때로는 공격성 뒤에 가려져 있다는 것이다. 참여자들의 정서 깊은 곳에는 자기비난이 무력감으로 그리고 이것이 침묵의 구조를 만들어내었다. 분노와 불안 슬픔이 뒤섞여 축적되었으며 이것은 어느 순간 정서적 임계점을 넘는다. 감정 폭발은 '충동성'이라는 결과로 나타났지만 원인-결과처럼 단선적 인과관계로 환원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서적·관계적 흐름의 응축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정서조절능력(emotion regulation)이 청소년의 비행, 내재화, 외현화 행동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정서조절이 어렵거나 부적응적일 경우 충동적, 외현적 행동이 증가하며, 범죄 참여 가능성을 높이는 경향이 확인되었다(Salinas & Venta, 2021).¹⁷⁴⁾ 참여자들은 낮은 자기인식과 우울, 불안장애, 낮은 자기통제, 외로움, 쾌락적 욕구, 반항성, 정서불안, 감정조절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자해를 하거나 회피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정서의 경험이 심할수록 자기평가 기준이 낮아져 “나 같은 애는 원래 문제를 일으키며, 사람들이 나를 원래 그런 애로 본다”라고 진술하며, 내면화된 자기낙인을 심화시키는 왜곡된 인지 양상이 나타난다. 결국 파국적 정서 해석, 자기비난 등 부적응적 전략은 우울, 불안의 증가와 연결되며 정서 표현의 억압, 무반응적 태도에 대한 정량적 근거로 해석될 수 있다(이유현 외, 2018).¹⁷⁵⁾

넷째, 비행·위험행동의 형태이다. 참여자들의 진술 속에서 비행은 '의도된 선택'보다는 상황과 감정, 관계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행동화된 것이다. 따라서 핵심 주제는 “맥락적 비행”이다. 비행은 청소년이 놓인 관계적 세계가 빚어낸 결과이다. 최근 Kuah와 Zhooriyati(2021)¹⁷⁶⁾의 연구에서도 청소년 비행은 또래 영향(peer influence)과 또래 압력(peer pressure)의 역할에서 또래 비행이 비행 행동에 강력한 촉진 역할을 하며, 개인의 의도보다 관계 속의 상호작용이 비행 참여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 청소년 발달기 동안 내재화나 외현화 문제의 또래 관계는 서로 영향을 주며, 친구의 정서·행동 특성이 개인의 외현화 행동(일탈적 행동, 규칙 위반 등)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기제임을 보여준다. 결국 또래 내 정서·행동 문제는 서로 선택(selection)과 전염(contagion)과정을 통해 강화된다(Havewala et al., 2023).¹⁷⁷⁾

174) Salinas, K. Z., & Venta, A. (2021). Testing the role of emotion dysregulation as a predictor of juvenile recidivism. *European Journal of Investigation in Health, Psychology and Education*, 11(1), 83-95.

175) 이유현, 정소희, 최응용 (2018). 청소년의 인지적 정서조절전략이 우울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상당학연구*, 19(2), 125-147.

176) Kuah, Y. Y., & Zhooriyati, S. M. (2021). A case study on peer influence and peer pressure in juvenile delinquency. *International Journal of Academic Research in Business and Social Sciences*, 11(12), 342-353.

177) Havewala, M., Bowker, J. C., Smith, K. A., Rose-Krasnor, L., Booth-LaForce, C., Laursen, B., Felton, J. W., & Rubin, K. H. (2023). Peer influence during adolescence: The moderating role of parental support.

한편, 대다수 많은 참여자들이 경험한 온라인도박은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감정의 허기를 채우는 즉각적 보상으로 작용했다. 절도가 “안 되는 건 알지만 충동 때문에 이번에만 하자하다 계속”한 참여자들은 도덕적 판단의 부재가 아니라 조절력의 실패가 반복적인 비행행동으로 이어지게 했다. 가정에서의 갈등과 방임, 정서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들은 가출을 선택하였고, 흡연과 음주는 또래 문화 속에 만연화된 일상적 행위가 되었다. 이러한 일탈적 또래와의 만남은 기폭제가 되었다. 결국 이들의 비행은 개별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취약한 정서와 관계 속에서 의미화된 행동의 흐름으로 이해된다.

다섯째, 피해에서 가해로의 전이이다. 피해에서 가해로의 전이과정은 보호처분 청소년들의 생활세계(life world)를 들여다보는 작업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행동의 의미가 만들어지는 근원적 맥락을 탐색한 결과 참여자들은 모두 불안정한 가정 분위기와 통제·갈등·폭력·방임이 중첩된 환경이 유해환경 노출을 촉진하는 구조적 기반이 되었다. 또한, 규제 없이 접속가능한 온라인 환경은 도박·금전거래·성 관련 콘텐츠와 같은 유해 정보에의 노출을 일상화시키며, 피해 경험과 가해 행동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드는 맥락적 공간으로 기능하였다. 청소년들의 온라인 경험은 오프라인 또래의 영향에 더 수용적일 수 있으며, 온라인 또래의 폭력 지지는 오프라인에 비해 더 명확한 영향력을 강화될 수 있다 (McCuddy et al., 2025).¹⁷⁸⁾

한편, 또래 집단 내에서는 도박·폭력·부계정 생성 등이 일상적 유희의 일부로 정상화되면서, 피해와 가해 행동의 경계가 희석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특히 인터뷰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몰라요”, “그냥”과 같은 축소적 표현은 행위의 이유를 성찰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 경험이 가해 행동으로 신속히 전환되는 인지적 기반을 형성하였다. 이처럼 피해와 가해는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일상 속 누적된 피해 경험의 구조적 환경이 만들어낸 귀결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피해에서 가해로의 전이에서의 핵심 주제는 “누적된 피해의 외현화”이다. 피해의 구조가 가해 행동으로 외현화되며, 두 경험은 상호순환적으로 전이된다.

이는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서·심리적 개입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시사한다. 신나영(2021)¹⁷⁹⁾의 메타분석 연구에 따르면,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된 심리사회적 개입 가운데 예술치료와 인지행동치료(CBT)가 가장 빈번하게 적용되었으며, 이러한 개입은 우울·불안·분노 등 정서적 문제를 완화하는 데 유의미한 효과를 보였다. 특히, 우울 감소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52(1), 163-175.

178) McCuddy, T., Gallupe, O., Kranenbarg, M. W., & Weerman, F. (2025). Online peers and delinquency: Distinguishing influence, selection, and receptivity effects for offline and online peers with longitudinal data. *Journal of Developmental and Life-Course Criminology*, 1(4), 573-600.

179) 신나영 (2021). 비행청소년에 대한 심리학적 개입 프로그램의 효과: 메타분석 연구. *교정당론*, 15(1), 179-210.

효과가 가장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여섯째, 보호요인과 전환점이다. 본질적 사례연구에서는 경험의 의미가 재구성되는 순간(interpretive moment)을 가장 중요한 분석 지점으로 본다. 보호요인과 변화될 수 있었던 전환점의 핵심은 ‘경험의 재해석(meaning reinterpretation)’이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과거 경험을 새로운 의미 체계 속에서 ‘다른 시선’으로 재해석하는 해석적 전환을 경험한다. 시설에서 만난 시설장과 교사, 상담사 등의 지지적 어른과의 만남은 삶을 다시 보게 만든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비난하지 않고 정서를 설명해주고, “좋은 어른을 처음 만나”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을 해석하는 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맞이한다. 강한 사회적 유대와 지지 체계는 위험 경험을 의미화하고 행동을 전환하는데 핵심적인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Aazami et al., 2023).¹⁸⁰⁾ 외부와의 단절된 시설에서의 시간을 통해 그동안 일탈과 충동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생활에서 벗어나 자신의 과거 행동을 ‘잘못’으로만 보지 않고 그 이면의 감정과 상처, 관계적 어려움의 맥락을 이해하게 되었다.

가족과의 재접촉에서도 새로운 감정적 유대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는 태도를 변화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이 생기면서 ‘사회적 정상성’에 대해 재정의하기 시작하였다. 표면적으로는 제약과 답답함을 표현하였지만 이러한 제한된 환경은 위험 행동을 반복하던 생활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고, 자기 감정과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구조적 보호요인이 되었다. Lee 외(2023)¹⁸¹⁾의 연구에서도 보호요인의 증가는 부정적 결과와의 연결성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보호요인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행동경로가 긍정적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때문에 보호요인의 증가는 단순히 위험 감소 뿐 아니라 행동 경로 자체의 변화를 가능하게 함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참여자들의 에센스(essence)는 ‘회복 가능성’인 것으로 밝혀졌다. 질적 연구에서 에센스는 참여자들이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의미 패턴이며, 사례 뒤에 숨겨진 공통된 의미의 흐름을 말한다. 보호처분 청소년들의 경험의 본질에 대한 해석적 통찰로 현상 전체를 꿰뚫는 의미의 핵심이다. 이들은 경험을 통해, 불안정한 가정환경과 또래 관계 속에서 축적된 관계적 긴장이 연구참여자들에게 취약한 자아형성을 심화시키는 주요 배경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관계적 취약성은 반복된 상처와 배신, 소외와 방임을 통해 피해 경험을 내면화하는 과정으로 이어졌고, 이는 자기보호를 위한 방어적 공격성으로 표출되었다. 정서적 자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러한 공격성은 충동의 폭

180) Aazami, A., Valek, R., Ponce, A. N., & Zare, H. (2023).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nd interventions for reducing juvenile delinquency: A systematic review. *Social Sciences, 12*(9), 474.

181) Lee, J. S., Applegate, C. E., & Stuart, O. K. (2023). Changes in risk profiles: Latent transition analysis of youth on probation.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50*(12), 1783-1804.

발로 이어지는 정서적 임계점의 한계를 드러냈고, 비행행동을 유발하는 핵심기제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새로운 인간관계·정서적 지지·거리두기 경험을 통해 기존 삶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해석적 전환을 경험하였으며, 이는 자아에 대한 의미구조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부정적 경험이 많은 청소년이라도 지지적 관계나 안정적 환경의 긍정적 경험의 누적은 회복력(resilience)을 증가시켜 장기적 적응과 행동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Baglivio & Wolff, 2021).¹⁸²⁾ 이러한 과정은 위협이 누적된 상황 속에서도 자아를 재구성하고 미래지향적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회복가능성’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182) Baglivio, M. T., & Wolff, K. T. (2021). Positive childhood experiences (PCE): Cumulative resiliency in the face of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Youth Violence and Juvenile Justice*, 19(2), 139-162.

V

아동의 피해-가해 중첩에 대한 개입 방안

1. 아동 피해-가해 중첩에 대한 정책적 개입 방안
2. 굿네이버스에서의 아동 피해-가해 중첩에 대한 실행 방안

G O O D N E I G H B O R S

V. 아동 피해-가해 중첩에 대한 개입 방안

1. 아동 피해-가해 중첩에 대한 정책적 개입 방안

본 연구는 보호처분 청소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아동 피해-가해 중첩 현상이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가정 해체-학교 소외-위험환경이 복합적으로 작동한 결과임을 명확히 확인하였다. 보호처분 청소년들의 진술은 단순한 ‘문제 청소년’의 이야기가 아닌 가정·교육·지역사회 보호체계의 구조적 결함이 나타난 결과다. 비행과 재비행 위험은 정서적 결핍, 관계적 단절, 사회적 배제 등 복합 요인이 장기간 누적된 결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환경은 이들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었으며, 결국 피해에서 가해로 순환되는 구조적 현실이 드러났다.

따라서 문제 해결은 단순한 처벌 강화나 단기적 격리 중심의 대응이 아니라, 보호처분 청소년이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회복하며 지속 가능한 삶의 궤도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기회 구조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실제 참여자들은 “경각심을 주는 교육보다는 다시는 돌아가기 싫은 현실을 체험적으로 알게 될 때 변화된다”고 제안하였다. 이는 추상적 예방 교육의 한계를 지적하고, 현실 기반의 개입과 재경험(re-experience)을 통한 행동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결국 보호처분 아동 지원 정책은 행동 변화의 책임을 아동 개인에게만 전가하는 기존의 관점을 탈피해야 한다. 보호처분 청소년들은 충분한 회복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 변화는 적절한 환경적 지지 속에서 지속될 수 있다. 따라서 변화가 시설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일시적으로 발현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로의 재통합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즉, 청소년의 긍정적 변화가 일상생활 속에서 구조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보호처분

지원 정책의 핵심적 과제이다. 본 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예방-회복-재통합을 관통하는 실효적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 V-1. 아동 피해-가해 중첩 현상에 대한 정책적 개입 방안

영역	목표	과제
예방	비행 초기 위험요인 차단	① 가정 기능 회복을 위한 조기개입 및 지원 강화 ② 비행 예방 교육 개선
회복	피해-가해 전이 차단 및 회복 지원	③ 재비행을 차단하는 생활환경 설계 ④ 통제 중심이 아닌 비행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보호환경 구축 ⑤ 지지적이고 일관된 ‘좋은 어른’의 지속적 개입 ⑥ 퇴소 이후 단계적으로 사회복귀 전환 체계 구축
재통합	통합보호체계 강화	⑦ 보호처분시설 인력 기준 재정립 및 종사자 보호 체계 강화 ⑧ 집중 사례관리 체계 지원 ⑨ ‘경험의 빈곤’ 해소 프로그램 제도화 ⑩ 국가 책임성 강화를 통한 보호처분시설의 실효적 운영 체계 재정립

■ 예방 : 비행 초기 위험 요인 차단

<p>① 가정 기능 회복을 위한 초기 개입 및 지원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 가정 조기 발굴 시스템 강화 ▪ 가족 중심 통합 지원 체계 구축 ▪ 초기 심층사정(Assessment) 제도화 ▪ 정서적 지지 기반 가족관계 회복 지원
-------------------------------------	--

<p>② 비행 예방 교육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험·참여 중심의 비행예방 교육으로의 전환 ▪ 온라인 도박·유해 콘텐츠 대응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 비행 동기 유형별 맞춤형 개입 체계 구축 ▪ 학교 기반 회복적 지지 환경 조성 및 교사 역량 강화
----------------------	---

① 가정 기능 회복을 위한 초기 개입 및 지원 강화

○ 첫째, 위기 가정에 대한 조기 발굴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학대, 방임, 극심한 부모 갈등 등 가정 내 위험 신호가 표면화될 경우, 이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즉각적인 개입을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 법원, 학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독립적으로 정보를 보유하는 현재의 구조를 개선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연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통합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 둘째, 가족 중심의 통합 지원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청소년의 비행은 가정 기능의 불안정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부모를 개입의 핵심 대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부모 상담과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경제적·정서적·법률적 지원을 포함하는 가정 단위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다시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 셋째, 초기 심층 사정(assessment) 제도화가 필요하다.

처벌이나 단편적 교정 중심의 개입에서 벗어나, 비행의 배경이 되는 정서적 결핍과 관계적 위기, 환경적 위험 요인을 면밀히 파악하는 진단 절차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 개인에게 내재된 위험요인뿐 아니라, 그를 둘러싼 복합적 맥락을 고려한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이 가능해진다.

○ 넷째, 정서적 지지 기반의 가족관계 회복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참여 청소년들이 반복적으로 강조한 “외로움”과 “사랑의 부재”는 비행의 핵심 요인임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가족 내 긍정적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정서적 유대 형성을 회복하는 경험 기반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단순한 조언 전달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추억을 쌓는 구체적 활동 지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비행 예방 교육 개선

○ 첫째, 범죄·비행 예방 교육은 정보 전달 중심에서 경험 기반·참여 중심 교육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정보 전달 중심 교육은 당사자들로부터 “경각심을 유발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실제 예방적 효과 또한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경험 기반·참여 중심의 교육 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보호처분 경험 사례를 활용한 현실 기반 학습, 역할극·시뮬레이션 등 청소년이 직접 상황을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비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사회적 결과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또래 압력과 동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기조절 및 의사결정 훈련을 포함함으로써 청소년이 실제 위험 상황에서 보호적 선택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둘째, 온라인 도박과 유해 콘텐츠 노출에 대응하기 위해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온라인 도박과 각종 유해 콘텐츠 노출이 청소년 비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이에 기술적·법적 규제 강화와 함께 미디어 위험성에 대한 인식 및 비판적 해석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의무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범죄 연결고리와 보호처분 과정에 대한 현실 기반 교육을 제공하여 사전 차단 효과를 높여야 한다.

- 셋째, 청소년 비행 예방은 동기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개입 체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비행 동기 유형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획일적 개입은 실효성이 낮다. 본 연구에서 드러난 비행의 유형은 도박·금전 자극형, 방임·트라우마형, 관계의존형, 반항·자율성 추구형 등 다양하였다. 동기 유형별 맞춤형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당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청소년 각자의 위험 구조에 대응하는 정밀한 개입이 가능해질 것이다.

- 넷째, 학교는 청소년 비행 예방과 회복을 지원하는 핵심 환경으로서 교사의 회복적 지원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대응 방식은 여전히 징계와 통제 중심에 머물러 있다. 이에 포용적 민감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 연수 의무화를 통해 교사가 관계 기반의 회복적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상담 시스템 역시 문제 해결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경청·공감 중심의 치료적 상담 체계로 전환하여, 청소년이 신뢰할 수 있는 지지적 성인과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회복 : 피해-가해 전이 차단 및 회복 지원

<p>③ 재비행을 차단하는 생활환경 설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권 재구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지 이전 지원(위험지역을 벗어난 안전 거점 제공) - 전학 연계 시스템: 학교 전환 시 학업 단절 최소화 개입 ■ 관계 단절 및 대체 관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험 또래와의 접촉 차단 - 청소년 멘토(상담사, 청년 멘토그룹) 연결 - 사회적 관계망 재구축(동아리, 직업 체험, 건강한 또래 네트워크)
<p>④ 통제 중심이 아닌 비행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보호환경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처분 단계에서 가두는 방식 최소화 ■ 청소년회복지원시설(사법형 그룹홈) 확대 ■ '설명·인정·대화' 기반 지원 원칙 확립
<p>⑤ 지지적이고 일관된 '좋은 어른'의 지속적 개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처분부터 사회 복귀까지 단절 없는 '전담 멘토링' 지원 ■ '관계' 중심의 전문 상담 모델 도입
<p>⑥ 퇴소 이후 단계적 사회복귀 전환 체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소 전 개인별 사회복귀 계획 수립 의무화 ■ 퇴소 후 초기 집중 모니터링(1-3개월) ■ 학교로의 원활한 복귀 ■ 지역사회 전문기관 즉시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업 복귀·검정고시·취업·자격증 연계 지원 - 외부 학원·직업훈련 참여에 대한 탄력적 허용

③ 재비행을 차단하는 생활환경 재설계

○ 보호처분 청소년의 재비행은 개인의 의지 부족에서 비롯되는 단선적 문제가 아니라 기존의 위험 또래 및 지역 환경과의 재접촉에서 주로 촉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여자들은 “문제 있는 애들이 없는 곳으로 가야 한다”, “환경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직접 진술하였으며, 이는 환경 차단 자체가 가장 효과적인 재범 예방책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험적 통찰은 보호처분 이후 일정기간 동안 거주지 이동, 전학, 생활권 재구성 등 구조적 차원의 지원이 제도화될 필요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따라서 정책적 개입은 통제 중심 조치의 강화가 아니라 비행이 구조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보호 환경을 설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구체적 실행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생활권 재구성 지원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재비행의 가장 큰 요인으로 기존 지역 환경 및 위험 또래와의 재접촉을 지목하였으며, 환경 변화 자체가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보호처분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거주지 이동을 지원하여 고위험 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고, 전학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업 단절을 최소화하며 안정적인 복귀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청소년이 기존 환경으로부터 물리적·심리적 분리를 통해 새로운 출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적 제도적 장치로 기능할 것이다.

○ 둘째, 위험 관계의 단절과 대체 관계망 구축을 동반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재비행은 개인의 의지나 처벌 강화만으로 차단될 수 없으며, 기존 고위험 또래 공동체로의 재편입을 막는 보호적 관계 환경이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고위험 또래와의 접촉을 예방 중심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전문상담사 및 청년 멘토 그룹과의 지속적 연결을 통해 청소년이 긍정적 관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동아리 활동, 직업 체험,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 등 사회적 네트워크 재구축 기회를 확대하여 기존의 부정적 관계를 보호적 관계망으로 대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4 통제 중심이 아닌 비행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보호환경 구축

- 본 연구 결과 보호처분 청소년들은 시설에서의 일상을 “간혀 있지만 사고를 안 치게 만드는 곳”으로 표현하며, 감독과 규율이 일상 속 자연스럽게 내재된 환경이 충동적 행동을 차단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는 당사자의 실제 경험에 기반한 인식으로 단순히 처벌 강화를 통해 비행을 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비행이 발생하기 어려운 생활 구조 자체를 설계하는 접근이 재비행 예방에 더욱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특히 외출·휴대폰 사용·일상 활동이 허가와 감독을 통해 관리되는 구조는 청소년의 즉각적 충동 행동을 감소시키고, 위험 상황에 대한 접근을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는 통제와 격리가 아닌 규율 속 제한된 자유가 회복의 촉진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위탁형 그룹홈과 같은 개방형 보호모델은 청소년의 자발적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며, 처벌이 아닌 회복 중심 접근의 효과적 사례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모델은 일시적 실험이 아닌 정책적으로 확대·정착해야 할 시스템적 대안임을 재확인되었다. 따라서 보호처분 시설 운영은 처벌 공간이 아닌, 예방적 생활환경 제공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재정립이 필요하다.

- 첫째, 가두는 방식의 보호처분을 최소화해야 한다.

단순 격리·통제 중심의 처분은 청소년의 반발과 재비행을 강화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폐쇄형 수용시설은 단기적 행동 중단 효과는 있으나, 퇴소 이후 현실 적응 능력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보호처분 단계에서 불필요한 구금과 과도한 통제를 지양하고, 청소년이 일상 속에서 자율성과 책임감을 점진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운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 둘째, 청소년회복지원시설과 같은 사범형 그룹홈의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회복지원시설(1호 시설) 경험 청소년들은 “규율 속에서도 희망을 갖게 되는 공간”, “변화를 연습할 수 있는 곳”으로 시설을 평가하였다. 개방형 보호 모델은 강제적 수용이 아닌 관계 중심 회복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변화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장점을 갖는다. 이러한 모델이 임시적 시범 운영에 머물지 않고, 정책적으로 안정적 확장과 전국적 적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 셋째, **규율 중심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설명-인정-대화’를 기반으로 한 관계적 지원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참여자들은 시설 내에서의 긍정적 변화 경험을 설명하며, “좋은 어른 한 명의 존재”, “비난보다 이해와 설명”이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이는 단순히 행동을 통제하는 접근이 아닌, 정서적 안정과 자기 이해를 촉진하는 상호작용적 개입이 회복과 사회 복귀를 실질적으로 견인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보호처분 시설 운영 기준 전반에 관계 기반의 회복적 접근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5] 지지적이고 일관된 ‘좋은 어른’의 지속적 개입

- 본 연구에서 확인된 가장 핵심적인 변화 요인은 시설 종사자, 상담사, 교사들과 형성된 신뢰 관계였다. 이들을 통해 분노를 조절하고 스스로를 성찰하며 행동 변화를 경험했다고 진술하였다. “인정해주고 설명해주는 어른”, “부모 같은 존재”와의 만남이 이들을 지탱해 온 가장 결정적 보호요인으로 작동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회복이 단기적·기술적 개입보다 지속적이고 관계 기반의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다. 따라서 보호처분 청소년 정책은 관리·감독 인력 중심에서 벗어나, 정서적 지지와 지속적 관계 형성이 가능한 전문 인력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 첫째, **보호처분 기간부터 퇴소·사회복귀 이후까지 ‘전담 멘토’ 중심의 상시 상담권을 보장해야 한다.**

단순히 아동에게 상담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 아동이 위기 상황에서 언제든지 손을 내밀 수 있는 특정 지지적인 성인과의 연결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특히, 보호처분 종료 후 사회 복귀 과정에서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시설 안팎을 잇는 ‘연속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의 변화 동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둘째, **문제행동 교정을 넘어 ‘관계 형성’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 상담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교정을 문제행동 수정이라는 기능적 측면에만 두지 않고, 아동의 삶을 함께 해석하고 수용하는 ‘관계 지향적 개입’으로 재설정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복지적 친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보호처분 아동의 삶에서 지지적 어른 한 명의 존재가 비행의 경로를 회복의 경로로 전환시키는 결정적 전환점이 된다는 실증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적 요구이다.

6 퇴소 이후 단계적 사회복귀 전환 체계 구축

-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보호처분 청소년들은 퇴소 이후 기존의 위험 환경으로 다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출하였다. 특히 학업 복귀의 어려움, 생계 문제, 불안정한 또래 관계 등은 재비행을 촉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학교를 가보다가 안 맞으면 안 간다”는 참여자의 진술은 준비되지 않은 복귀가 곧 재유입의 위험을 의미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경험적 증언은 퇴소 시점을 개입 종료가 아닌 전환기 지원의 공식적 시작점으로 재개념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보호처분 청소년의 사회복귀는 단절적 방식이 아니라 점진적이고 연속적인 복귀 체계 안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정책적 제안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퇴소 전 단계부터 개인별 사회복귀 계획을 수립하는 체계를 의무화해야 한다. 청소년의 학업 수준, 진로 희망, 정서 상태, 관계 환경 등을 종합 진단하여, 퇴소 직후 즉시 시행 가능한 맞춤형 복귀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전환기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 둘째, 퇴소 직후 1~3개월 동안 집중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을 제공하는 전환기 안전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이는 재비행에 가장 취약한 초기 시기 동안 지속적인 상담·안정적 생활 점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보호적 조치로서 기능한다.
- 셋째, 보호처분을 종료 아동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학교생활로의 원활한 복귀이다.
그러나 현재 학교는 이들의 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낙인과 배제 메커니즘이 강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진로탐색, 학업 복귀 지원, 멘토링 기반 관계 회복, 심리정서 지원, 지역사회 협력을 포함한 의무적 재통합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 나아가 보호처분 이력이 학업·진학·전학 과정에서 불이익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청소년의 사회복귀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 넷째, 지역사회 전문 기관과의 즉각적 연계를 체계화함으로써 지속적인 사회적 지지 기반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업 복귀, 검정고시 준비, 취업·자격증 취득, 직업훈련 및 외부 학원 참여 등에 대한 탄력적 지원을 확대하고, 청소년이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 재통합: 통합보호 체계 강화

<p>7] 보호처분시설 인력 기준 재정립 및 종사자 보호 체계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시간 생활지도 환경에 부합하는 인력 배치 기준 재설정 ▪ 전문상담 인력 배치 기준 강화 및 업무 과부하 구조 개선 ▪ 종사자 법적 보호 및 위기 대응 기반 강화
<p>8] 집중 사례관리 체계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소 아동 대상 기본적인 사례관리 체계 마련 ▪ 자해 등 정서위기 전문 개입 강화 ▪ 전문 사례관리 제도화
<p>9] '경험의 빈곤' 해소 프로그램 제도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자원 기반의 상시 프로그램 운영체계 마련 ▪ 진로 설계 및 사회적 관계망 재구성 통합 프로그램 실시
<p>10] 국가 책임성 강화를 통한 보호처분시설의 실효적 운영 체계 재정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특성 고려한 운영 기준 수립 ▪ 시설 기능 중심으로의 재정 지원 ▪ 회복지향적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실시 ▪ 현장 밀착형 정책 환류를 위한 공론화 및 협력 체계 구축

7] 보호처분시설 인력 기준 재정립 및 종사자 보호 체계 강화

○ 첫째, 24시간 생활지도 환경에 부합하는 인력 배치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

현행 보호처분 전담시설은 최소 인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24시간 생활지도 및 돌봄이라는 업무 특성을 충분히 감당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돌봄 공백과 종사자 번아웃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보호처분 아동은 피해와 가해 경험이 중첩된 복합적 욕구를 지닌 대상인 만큼, 단순한 생활지도만으로는 효과적인 개입에 한계가 명확하다. 이에 야간·주말을 포함한 상시 돌봄 체계를 반영한 전담 인력 기준을 재설정하고, 상담·사례관리 기능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 둘째, 전문상담 인력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업무 과부하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 임상심리사 1인이 상담·중재·사례관리 업무를 모두 담당하는 구조는 업무 지속 가능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는 개입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전문상담 인력의 배치 기준을 아동 1:20 수준으로 강화하고, 국고 지원의 인건비 비중을 확대하여 인력 충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종사자 복지와 근무환경 개선을 병행함으로써 안정적 회복 지원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 셋째, 종사자의 법적 보호와 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청소년 간 폭력 및 갈등 상황에서 종사자와 기관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분리조치가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물리적·구조적 제약으로 즉각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고 발생 시 책임이 시설에 집중되는 현 구조는 현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한다. 또한 현재 배상책임보험은 시설물 사고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청소년 간 상해나 분쟁과 같은 실제 위험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설 종사자의 안전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적 보호 장치를 확충하고, 청소년 간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물리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 개편이 시급하다.

8 집중 사례관리 체계 지원

○ 첫째, 입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사례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보호처분 청소년은 대부분 심리적 취약성과 대인관계 결손이 중첩된 복합위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설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모든 입소 아동이 개별 사례관리가 필요함에도 실제로는 인력 여건상 약 5~6명만을 선별적으로 집중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가장 취약한 아동 중심으로 우선 순위를 설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현실은 사례관리의 형식화 및 단기 성과 중심의 개입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 둘째, 자해 등 정서위기 행동에 대한 전문적 개입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참여자 대다수가 입소 이전 자해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입소 후 자해 감소는 환경적 통제에 기인한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자해는 처벌이 아닌 정서적 고통의 표현임을 고려할 때, 행동 중단만을 목표로 하는 접근은 불충분하며, 정서 조절과 애착 회복을 목표로 한 전문 중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장 기반의 자해 특성 연구와 치료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공적 투자 확대가 시급히 요구된다.

○ 셋째, 청소년의 심리·관계적 회복을 중심으로 한 전문 사례관리 전담 인력 확충, 운영 예산 확대, 지속적 개입체계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단순 관리가 아닌, 변화 유지와 재통합을 위한 심층적·장기적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할 때, 보호처분 청소년의 재비행 예방과 안정적 사회적 전환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다.

9 '경험의 빈곤' 해소 프로그램 제도화

- 공공 재원을 기반으로 한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처분 청소년 모두에게 동등한 경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본 연구 결과 보호처분 청소년의 변화 동력은 처벌·교정 중심 개입보다는 새로운 경험을 통한 자기확장 기회 제공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여자들은 여행·문화예술 활동·봉사·직업체험 등을 통해 “다른 삶의 가능성”을 직접 목격하면서 비행을 대체할 만한 삶의 방향성을 획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건강한 자아정체감 형성과 미래 계획 수립을 위한 경험적 학습의 중요성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활동의 상당 부분은 외부 후원이나 일회성 프로젝트에 의존하고 있어, 지속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제도적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공공 재원을 기반으로 한 상시적 프로그램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보호처분 청소년 모두에게 동등한 경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 진로 설계 및 사회적 관계망을 재구성할 수 있는 통합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일회성 직업 체험이 아닌,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고 구체적인 생애 경로를 그릴 수 있는 전문적인 진로 프로그램 및 컨설팅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아동이 자신의 잠재력을 인지하고 실질적인 자립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학습 및 훈련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비행을 유발했던 기존의 부정적 관계 환경으로부터의 단절을 돕기 위해, 건강한 성인 멘토 및 또래 집단과의 새로운 관계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대안적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 아동이 사회적 규범을 학습하고 긍정적인 사회자본을 축적하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

10 국가 책임성 강화를 통한 보호처분시설의 실효적 운영 체계 재정립

○ 첫째, 보호처분 시설 특성을 고려한 운영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1호 보호처분 청소년을 수용하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은 행정적으로 ‘쉼터에 준하는 시설’로 분류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보호·교정·회복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제도적 지원체계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현행 청소년사업 안내 체계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특수성과 난이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별도의 운영 기준과 지침 부재로 인해 시설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책무를 충분히 이행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유사하게 6호 감호위탁시설도 아동보호치료시설로 분류되고 있으며 민간에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체계적인 운영 기준이 필요하다.

○ 둘째, 시설 기능 중심으로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

현행 1인당 지원비 중심의 재정 체계는 기본적인 생활비 충당조차 어려우며, 시설의 핵심 기능에 따라 차등화된 지원 구조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전국에서 청소년이 유입되는 보호처분 정책의 국가 책임성을 고려할 때,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지점이다.

○ 셋째, 회복지향적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시설 인프라 측면에서도 협소한 생활공간, 제한된 샤워·공용공간 등이 정서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건폐율 및 토지 소유 제한으로 시설 자체의 확장이 불가능한 현실은 국가 차원의 물리적 기반 개선 지원이 요구됨을 분명히 보여준다. 보호처분 청소년은 충동성, 공격성, 정서 불안정성이 높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 및 전문 역량 확보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기반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는 시설에 부과된 역할과 정책적 지원 수준 간 불균형을 구조적으로 드러낸다.

○ 넷째, 현장 밀착형 정책 환류를 위한 공론화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장은 개별 시설의 문제 제기가 지역 차원에 머물지 않고 정책으로 변환될 수 있도록, 국회·NGO·전문 포럼 등과 연계한 공론화와 정책적 옹호 활동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데이터를 정책 언어로 번역하고, 보호처분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완화하며, 제도 개선을 실질적으로 견인할 수 있

는 중간지원 체계 구축이 긴급히 요구됨을 보여준다.

- 요컨대, 청소년회복지원시설, 6호 감호위탁시설 등 보호처분시설이 보호처분 청소년의 회복과 변화를 담보하는 국가적 보호 기반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현장 기능에 부합하는 별도 시설 유형화와 지원 체계 재편, 안정적 재정 구조 확립, 적정 인력 배치 및 인프라 개선 등 구조적 지원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2. 굿네이버스에서의 아동 피해-가해 중첩에 대한 실행 방안

본 연구에서는 상당수의 아동이 가정, 학교, 지역사회, 온라인 환경에서 피해를 경험하며, 그 중 일부는 피해 경험이 이후 공격성이나 비행 행동으로 전이되는 피해-가해 중첩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을 밝혔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에 주목하여 민간 영역에서의 개입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의 범죄 대응 체계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교정이 분리된 구조로 운영되어 왔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학대·폭력·방임 등 피해 경험을 가진 아동이 이후 또래 폭력이나 비행 행동에 연루되는 중첩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피해 경험을 단순한 사건이 아닌 아동의 발달 과정 속 위험 요인으로 이해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할 것은 아동의 피해 예방과 피해자 회복의 우선성이다. 피해-가해 중첩 현상의 출발점은 결국 아동이 최초로 경험하는 피해에 있다. 피해가 적시에 발견되지 못하고 충분히 회복되지 않을 때, 트라우마는 내면화되거나 공격성·비행으로 외현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나아가 범죄 가해 행동의 상당 부분이 과거의 피해 경험(학대·방임·폭력·차별 등)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은, 피해자 지원을 단순한 사후 구호가 아닌 비행 예방의 선제적 개입으로 재위치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이에 굿네이버스에서는 피해 아동의 조기 발견과 회복 지원을 핵심 기능으로 강화하고, 피해 경험이 가해 행동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차단하는 통합적 개입 전략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예방-회복-재통합 관점에서 아래와 같은 사업 활동을 제안한다.

■ 예방 : 피해 아동 조기 발견 및 회복 지원

피해-가해 중첩을 차단하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은 피해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가 트라우마로 고착되기 전에 충분한 회복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피해 경험은 정서적 외상, 공격성, 관계 불신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례관리·심리치료·관계 회복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장기적 개입 모델이 필요하다. 본 고에서는 굿네이버스에서 운영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적약자통합지원센터, 아주좋은마음심리치유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을 통해 다음의 사업을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 범죄 피해 아동 발굴을 위한 전문 사정 도구 및 절차 마련

- 사례관리 초기 단계에서 가정·학교·지역사회·온라인 환경에서 범죄 피해 경험을 확인하는 사정 도구 마련
- 피해 아동은 스스로 피해 사실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굿네이버스 아동보호전문기관, 사회적약자통합지원센터, 아주좋은마음심리치유센터에서는 사례관리자가 전문적인 사정 도구를 활용하여 아동의 피해 경험 조기 파악
- 범죄 피해 확인 사정 도구에는 다음의 내용 포함 필요
 - 환경별 세분화하여 측정 : 가정(아동학대)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지역사회(범죄 노출), 온라인(온라인 그루밍, 도박, 개인정보 피해) 등 구분하여 측정
 - 피해 사실 포괄적 파악 : 직접적인 폭력 외에 정서적 학대, 갈취, 성적 착취 여부 등을 파악
 - 피해자의 정서 상태, 트라우마 수준 및 공격성, 위험행동 수준, 비행 친구 관계, 일상생활 패턴, 디지털 기기 사용 패턴(SNS 이용, 불필요한 고액 결제 유무 등) 등 확인

○ 아주좋은마음센터를 중심으로 한 피해아동의 트라우마 치료 실시하여 피해 회복 지원

- 범죄피해가 확인된 아동을 대상으로 트라우마 중심 치료(Trauma-Focused CBT), 정서 조절 훈련, 자기비난 감소 프로그램 등 실시
- 범죄피해 아동의 트라우마를 충분히 회복하고, 피해 경험이 공격성이나 비행으로 외현화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예방
- 단기 상담에 그치지 않고 최소 6개월 이상의 집중 사례관리와 장기 멘토링을 결합하여 회복의 연속성을 보장

- **사회적약자통합지원센터의 범죄 피해 아동을 위한 허브 기능 강화 및 차별화된 대응**
 - 경찰, 법원, 지역사회 법무법인, 복지시설, 심리상담센터 등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심리치료를 넘어 의료, 법률, 경제적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
 - 센터 내 숙련된 전문가를 배치하여 피해자 사례관리 및 상담에 즉각 배치하되, 필요시 지역사회 전문심리상담센터 및 의료기관으로 최적화된 서비스 연결
 - 범죄 피해 유형별로 차별화된 대응 가능하도록 지원 방식 다양화

-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연결’ 중심 프로그램 확대**
 - 범죄 피해-가해 전이는 근본적으로는 가정 내의 결핍에서 시작되므로, 가족 내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가족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필요
 - 지역아동센터, 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중심으로 가족기능 회복 프로그램 실시
 - 프로그램 예
 - 한끼의 대화(가칭) : 청소년한부모, 다문화, 저소득 등 취약한 가정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요리 밀키트 배달. 단, 조건은 요리 과정과 식사 시간 폰을 끄고 함께 대화하기, 식사 후 인 증샷을 공유로 하여, 가족 간 정서적 유대감 강화를 실질적으로 증진
 - 로그아웃 가족 캠프(가칭) : 하루 동안 온 가족이 디지털 기기를 반납하고, 대화에 몰입하는 캠프 실시.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아날로그 보드게임이나 가족 요리 대회를 통해 오프라인 즐거움 회복

- **아동의 안전 역량 강화 및 디지털 환경 대응**
 - 피해 아동이 유사한 위험 상황에 다시 노출되지 않도록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역량 증진하는 것 필요, 아동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위험 상황 인식, 단호한 거절 의사 표현, 효과적인 도움 요청 방법 등 실전 중심의 안전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
 - 온라인 도박, SNS 사용, 조건만남앱 사용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위험 요인은 아동·청소년 비행의 핵심 경로이므로, 체계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마련 및 실시 필요
 - 온라인 도박의 위험성, 성범죄 발생 구조, 그루밍의 접근 방식 등 현실 기반의 교육 내용을 마련하되, 아동의 발달 단계에 맞게 제공, 실제 위험 상황을 체감하고 대처할 수 있는 참여형·체험형 방식으로 운영

■ 회복 및 재통합 : 가해 아동 재범 예방 및 회복 지원

○ 피해-가해 중첩 아동 조기 개입

- 단순한 법적 처벌은 아동에게 '낙인'과 '반발심'을 남기기 쉬우므로,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친 실질적인 영향을 직시하고 바로잡을 기회 제공 필요
-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아동은 학대 피해자임과 동시에 그 상처가 외부로 표출되어 비행행동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례관리 초기 단계에서 아동의 친구관계, 비행행동 등을 정밀하게 사정하고, 비행 징후가 보이는 아동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하여 조기개입 실시
- 아동이 겪은 가정 내 학대 피해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입하여 공격성의 근본 원인을 제거함을 우선으로 하며, 학대피해 회복 지원과 동시에 아동이 저지른 비행행동에 대해서는 엄중히 인지하게 하여 비행이 정당화되지 않도록 교정 지원
- 사례관리자 혹은 필요시 전문가 중재 하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거나, 자신이 할 수 있는 방식의 보상(봉사 등)을 실천하게 하여 회복적 사법 관점의 관계 복원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마련 및 실천

○ 1호·6호시설 및 소년원 아동 대상 신체 및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 1호·6호 시설 및 소년원 아동의 경우 가정 내 학대·방임, 경제적 결핍으로 인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적음.
- 1호·6호 시설, 소년원에 있는 외부 출입이 제한적인 보호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치과질환, 만성질환 치료 등 의료서비스 제공
 - 굿네이버스에서는 소년원과 의료기관을 연계하여 치과 진료 사업 실시할 예정, 이를 통해 보호소년의 방치된 구강질환에 대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할 예정임.
- 이 외에도 아동이 자신 혹은 타인으로부터의 생긴 흉터(상처의 흔적)를 제거하여 아동이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흉터 치료 지원), 온라인 도박이나 약물 등 중독 문제를 겪는 경우 전문 치료기관과 연계하여 집중 치료를 지원하는 것을 제안

○ 가족 관계 회복을 통한 가해 아동 재범 예방 및 사회 복귀 지원

- 1호 시설(청소년회복지원시설)과 연계 부모(보호자) 교육 지원 (가족 유대감 강화 프로그램, 정서적 교감의 장 마련)
- 사법 체계와 연계한 가정 기능 회복의 실효성 확보 필요,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보호자에게 시설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수강할 것을 권고하거나 이수하도록 하는 체계 구축
 - 부산 등지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는 월 1회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이후 아동과 부모가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단절된 가족 관계를 자연스럽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음. 이는 법원과 연계하여 보호처분 시 부모에게 시설에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도록 권고하는 시스템을 마련한 결과임.

○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활용한 「회복적 멘토링」 연결

- 피해-가해 중첩 아동의 고립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다각적 멘토링 모델을 운영 실시
 - 사업대상 : 아동보호전문기관·사회적약자통합지원센터 사례관리 아동 중 비행행동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아동, 1호·6호시설 및 소년원에서 추천을 받은 아동
- 상담멘토, 생활멘토, 진로멘토 등 다양한 지역사회 전문가와 연계하여 퇴소 이후에도 일상생활, 진로, 심리정서적인 부분에 대해 조언을 받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상담멘토 : 지역사회 심리상담센터 종사자
 - 생활멘토 : 지역사회 대학생 또는 직장인 등
 - 진로멘토 : 좋은이웃후원회 소속된 기업인 또는 전문가 등

■ 옹호 활동(Advocacy) : 사회 인식 개선 및 제도 변화 주도

굿네이버스의 역할은 직접 서비스 제공에 머물지 않는다. 아동권리옹호기관으로서 피해-가해 중첩 현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제도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옹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 피해-가해 전이 차단 관점의 정책 도입과 관계 기관의 협력 촉구

- 현행 소년사법 체계가 처벌·교정 중심 접근을 보완하여, 피해 경험이 이후 비행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전이 차단 관점(Prevention of victim-offender transition)’의 정책적 고려 시급
- 피해 경험을 가진 아동을 조기에 파악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정 및 평가 체계 도입 검토 필요
- 학교·경찰·법원·관련부처·민간시설 간 협력 기반이 이루어져야 하며, 통합 사례관리 시스템 강화 필요
- 피해 경험과 비행 위험이 공존하는 아동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마련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실질적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논의 필요
- 현장전문가의 목소리와 피해-가해 중첩 아동의 의견을 적극적 반영한 정책 설계 필요

○ 사회인식 전환 캠페인 실시

- 범죄 가해 행동의 상당 부분이 과거의 피해 경험(학대·방임·폭력·차별 등)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기회의 장 마련
- 가해 아동을 단순한 처벌 대상이 아니라 조기 개입과 지원이 필요한 아동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을 이끌 수 있는 적극적인 캠페인 실시
- 단순한 여론 형성을 넘어, 조기 개입과 회복적 지원 체계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정책 변화를 촉구하는 옹호 활동 지속적 추진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찾아보기 쉽도록 본문의 각주로 제시하였음.

아동의 피해-가해 중첩 현상 분석 및 개입 방안 연구

발 행 2025년 12월 31일
발 행 인 김 응 철
발 행 처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3
전 화 02-6424-1695
이 메 일 crrt1@gnk.or.kr
홈페이지 www.goodneighbors.kr
발행번호 25-사07-027
